

Liberty University School of Divinity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OF WORSHIP BY USING
MULTIMEDIA IN KOREAN RURAL CHURCHES WITH
A PARTICULAR ATTENTION TO VISUAL MEDIA**

한국 농촌교회에서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예배 활성화에 관한 연구:
영상매체 활용을 중심으로

A Thesis Project Submitted to
The Faculty of Liberty University School of Divinity
in Candidacy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In Jun Hwang (황 인 준)

Lynchburg, Virginia

May 2018

Liberty University School of Divinity

THESIS PROJECT APPROVAL SHEET

MENTOR

Dr. Sungtaek Kim
Director, Korean Ministries
Assistant Professor of Practical Theology

READER

Dr. Justin Yoojung Lee
Adjunct Professor of Practical Theology

ABSTRACT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OF WORSHIP BY USING MULTIMEDIA IN KOREAN RURAL CHURCHES WITH A PARTICULAR ATTENTION TO VISUAL MEDIA

In Jun Hwang

Liberty University School of Divinity, 2018

Mentor: Dr. Sungtaek Ki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help to bring about the revitalization of worship in rural churches by using visual media. At present, Korean churches, especially rural churches, are facing great challenges due to the aging of the church members, illiteracy rates, a poor educational environment, the lack of incoming young people, pastors' reluctance to minister in rural areas, troubled rural economy and so on. Nonetheless, churches in rural areas should not be abandoned.

In this context, one of the most urgent needs in rural churches is healing and restoration through church worship. At any arduous and difficult time in history, churches overcame difficulties through the restoration of a relationship with God. The key to restoring a relationship with God is true worship. The utilization of multimedia, which is a modern convenience available to churches these days, can contribute to church members' active participation, commitment, and communication in worship services.

This study will investigate the ideas of and methods for the utilization of multimedia among churches that it, incorporating the researcher's knowledge on multimedia accumulated over 16 years at Gashin Baptist Church, and offer a practical manual on using multimedia in rural churches. With a desire to revitalize worship, he offers a model for pastors of rural churches

who attempt to incorporate multimedia in their worship services.

Abstract length: 218 words

ABSTRACT
초록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OF WORSHIP BY USING MULTIMEDIA IN KOREAN RURAL CHURCHES WITH A PARTICULAR ATTENTION TO VISUAL MEDIA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농촌교회 예배 활성화에 관한 연구: 영상매체 활용을 중심으로

In Jun Hwang (황인준)

Liberty University School of Divinity, 2018

Mentor: Dr. Sungtaek Kim

이 연구는 영상을 활용하여 농촌교회의 예배의 활성화를 가져오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재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농촌교회는 교인들의 고령화, 높은 문맹률, 열악한 교육환경, 청년들의 부재, 농촌 지역에 대한 목회자들의 회피, 농촌 경제의 어려움 등으로 교인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농촌지역의 교회는 포기되어 질 수 없다.

이런 농촌교회의 회복에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교회의 예배를 통한 치유와 회복이다. 지난 역사 속에 국가나 교회공동체가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 나왔다.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의 핵심은 바로 예배이다. 이시대 문명의 이익인 멀티미디어를 활용한다면 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몰입하며, 함께 소통할 수 있다.

그 동안 가신교회에서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사역한 16년의 노하우와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교회들의 예배의 아이디어와 방법, 활용 등에 대하여 연구하여 실제적인 농촌교회를 위한 멀티미디어 사용 메뉴얼을 제공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농촌교회 예배의 활성화를 위해 고민하는 목회자들에게 도전과 도움을 주어 교회를 세워나가고 예배를 회복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초록 길이: 149 words

CONTENTS

목차

ABSTRACT	iv
초록	
TABLES	xiii
표	
PICTURES.....	xiv
그림	
SUMMARY	xvii
요약	
CHAPTER 1: Introduction	1
제 1 장: 서론	
1. Purpose of the Study and Statement of the Problem	1
연구 목적과 문제 제기	
2. Scope and Limitation	6
범위와 한계	
3. Theoretical Basis.....	6
이론적 근거	
4. Statement of Methodology.....	9
연구 방법에 대한 진술	
5. Review of Literature	10
문헌 검토	
CHAPTER 2: Theoretical Foundation for Worship and Understanding of Multimedia	20
제 2 장: 예배의 이론적 근거와 멀티미디어의 이해	
1. Definition of Worship.....	20
예배에 대한 정의	
1) Dictionary Definition of Worship.....	20
예배에 대한 사전적 정의	
2) Biblical Definition of Worship	21
예배에 대한 성경적 정의	

2. Biblical, Historical, and Theological Background of Worship.....	23
예배의 성경적, 역사적, 신학적 배경	
1) Biblical Background of Worship.....	23
예배의 성경적 배경	
2) Historical Background of Worship.....	33
예배의 역사적 배경	
3) Theological Background of Worship.....	39
예배의 신학적 배경	
3. Understanding of Multimedia.....	44
멀티미디어에 대한 이해	
1) Concept of Multimedia.....	44
멀티미디어의 개념	
2)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Use of Multimedia.....	47
멀티미디어의 활용의 역사적 배경	
3) Theological Consideration of the Use of Multimedia.....	49
멀티미디어 활용의 신학적 고찰	
4) The Use of Multimedia in Worship.....	51
멀티미디어의 예배 활용	
4. Necessity of Worship Using Multimedia in Korean Rural Churches.....	55
한국 농촌교회에서의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예배의 필요성	
1) Realities of Korean Rural Churches.....	55
한국 농촌교회의 현실	
2) Necessity for Worship Renewal in Korean Rural Churches.....	58
한국 농촌교회의 예배 갱신의 필요성	
3) Necessity of Using Multimedia in Korean Rural Churches.....	59
한국농촌교회의 멀티미디어 활용의 필요성	
5. Sub-conclusion.....	60
소결론	
CHAPTER 3: Case Studies of Churches Using Multimedia in Worship.....	62
제 3 장: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예배하는 교회 사례 연구	
1. Bundang Woori Church.....	62
분당우리교회	

1) Overview of Bundang Woori Church	62
분당우리교회에 대한 개요	
2) Analysis of Worship	63
예배 분석	
3) Characteristics and Evaluation	66
특징 및 평가	
2. Ulsan Methodist Church	67
울산감리교회	
1) Overview of Ulsan Methodist Church	67
울산감리교회에 대한 개요	
2) Analysis of Worship	67
예배 분석	
3) Characteristic and Evaluation	71
특징 및 평가	
3. Chilsan Baptist Church	73
칠산침례교회	
1) Overview of Chilsan Baptist Church	73
칠산침례교회에 대한 개요	
2) Analysis of Worship	73
예배 분석	
3) Characteristic and Evaluation	78
특징 및 평가	
4. Yongan Baptist Church	78
용안침례교회	
1) Overview of Yongan Baptist Church	78
용안침례교회에 대한 개요	
2) Analysis of Worship	79
예배 분석	
3) Characteristic and Evaluation	82
특징 및 평가	
5. Gashin Baptist Church	83
가신침례교회	

1) Overview of Gashin Baptist Church.....	83
가신침례교회에 대한 개요	
2) Analysis of Worship.....	83
예배 분석	
3) Characteristic and Evaluation.....	92
특징 및 평가	
6. Sub-conclusion.....	92
소결론	
CHAPTER 4: Analysis of Questionnaire Survey.....	94
제 4 장: 설문 조사 분석	
1. Contents of Questionnaire.....	94
설문지의 내용	
1) Purpose of Questionnaire Survey.....	94
설문의 목적	
2) Participants.....	94
참가자	
3) Survey Procedures and Methods.....	94
설문 절차와 방법	
4) Structure of Questionnaire.....	94
설문 구성	
2. Survey Results.....	95
설문 결과	
3. Analysis and Evaluation.....	118
분석과 평가	
1) Pastor's Age, the Use of Multimedia, and the Desire for Education.....	118
목회자의 나이와 멀티미디어 사용 및 교육 희망	
2) Ministry with Priority in Pastor's View and the Use of Multimedia.....	119
목회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역과 멀티미디어 사용	
3) Installation of Multimedia Equipment, the Effects of Its Use, and the Desire for Education.....	120
멀티미디어 장비 설치유무와 사용효과 및 교육 희망	

4) Layperson's Years in Faith and the Effects of Multimedia Use	121
평신도의 신앙 연수와 멀티미디어 사용효과	
4. Sub-conclusion.....	121
소결론	
CHAPTER 5: Proposal for the Revitalization of Worship by Using Multimedia.....	123
제 5 장: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예배 활성화에 대한 제안	
1. Use of Multimedia in Church Ministries	123
교회 사역에서의 멀티미디어 활용	
1) Ground Work.....	123
기초작업	
2) Preparatory Work.....	125
준비작업	
3) Proposals for Using Multimedia	131
멀티미디어 활용에 대한 제안	
2. Operation of Pastoral Multimedia Ministry Sharing Center.....	143
멀티미디어 목회사역 공유센터 운영	
1) Name, Purpose, and Goal.....	143
명칭, 목적, 목표	
2) People to be Educated	143
교육 대상	
3) Length of Education	144
교육 기간	
4) Contents of Education	144
교육 내용	
5) Sharing and Exchange of Pastoral Materials.....	148
목회자료 공유, 교환 작업	
3. Sub-conclusion.....	148
소결론	
CHAPTER 6: Conclusion	150
제 6 장: 결론	
1. Summary and Conclusion of the Study	150
연구요약 및 결론	

2. Proposal for Further Study	151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	
Appendix A.....	153
부록 A	
Bibliography	157
참고자료	
IRB Approval.....	160
IRB 승인	

TABLES
표

표 1. 목회자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144

표 2. 평신도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147

PICTURES

그림

그림 1. 분당우리교회 예배 순서.....	63
그림 2. 울산감리교회 예배 순서.....	68
그림 3. 칠산침례교회 예배 순서.....	74
그림 4. 용안침례교회 예배 순서.....	79
그림 5. 가신침례교회 예배 순서.....	84
그림 6. 가신교회 비전 선언문	85
그림 7. 찬송가 593장 찬양 PPT.....	86
그림 8. 교독문 105번 PPT 화면.....	87
그림 9. PPT 를 통해 보여준 맥추절을 지키라는 동영상 화면	88
그림 10. 데살로니가 전서 5:18절 성경구절 PPT 화면	89
그림 11. 감사찬양 PPT	90
그림 12. 축도 순서를 알리는 PPT.....	90
그림 13. 예배 광고 PPT	91
그림 14. 축복과 격려의 시간 PPT.....	92
그림 15. 성별.....	95
그림 16. 나이.....	96
그림 17. 교회내 직분.....	96
그림 18. 사역 기간	97
그림 19. 교회 다닌 연수.....	98
그림 20. 출석교회 위치한 지역	98
그림 21. 응답자 출석 교단.....	99
그림 22. 응답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역	100

그림 23. 멀티미디어 사용 여부	100
그림 24. 멀티미디어 장비 설치 여부.....	101
그림 25. 멀티미디어 영상 장비 사용 횟수.....	102
그림 26-1. 설교자의 얼굴이 나오는 영상 사용 여부	102
그림 26-2. 설교 관련 동영상 사용 여부.....	103
그림 26-3. 설교관련 도표나 사진 사용 여부.....	103
그림 26-4. 예배 중 악보나 가사가 나오는 PPT 사용 여부.....	104
그림 26-5. 예배중 찬양반주기 화면 사용 여부	104
그림 27. 멀티미디어 영상 사용 효과.....	105
그림 28. 멀티미디어 사용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영역.....	106
그림 29. 예배의 집중도의 변화 여부.....	107
그림 30. 멀티미디어 활용을 위한 교육, 훈련 유무.....	108
그림 31. 활용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의 종류	108
그림 32. 멀티미디어 활용 교육 의향.....	109
그림 33. 교육받고 싶은 멀티미디어 종류.....	110
그림 34. 하루에 보는 TV 시간.....	111
그림 35. 하루에 사용하는 컴퓨터, 스마트 폰 시간.....	111
그림 36. 멀티미디어 활용 예배와 기존예배와 느끼는 차이점	112
그림 37. 22번의 질문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이유	113
그림 38. 설교 전후에 영상을 보는 것에 대한 의견.....	114
그림 39. 영상을 통해 설교 제목이 나올 때 설교 이해에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	115
그림 40. 예배 중 PPT 사용이 예배를 드리는데 도움이 되는가?.....	116
그림 41. 멀티미디어(영상)를 활용한 예배가 신앙성장 도움이 되는가?.....	117
그림 42. 교회를 옮긴다면 어느 교회를 선택할 것인가?.....	117

그림 43. 예배 전에 나오는 찬양 영상 한 장면.....	133
그림 44. 예배 시 사용하는 찬송가 악보 PPT	134
그림 45. 예배 시 사용하는 성경 말씀 PPT.....	135
그림 46. 주일 저녁 예배 시 사용하는 복음성가 PPT	137
그림 47. 수요일예배 시 사용하는 성경공부 PPT.....	139
그림 48. 맥추감사절에 사용한 영상	140
그림 49. 설 명절에 사용한 영상	140
그림 50. 2016년 송구영신 예배 때 사용한 영상	141
그림 51. 2017년 부활절 새벽 성만찬 때 사용한 영상	142

SUMMARY

CHAPTER 1

INTRODU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bring life to today's worship. This can be accomplished by using multimedia; particularly visual media. More than ever, people today are experiencing many difficulties such as economic recession, political chaos, and immorality. These situations not only apply to the urban areas, but also to churches located in rural areas. In reality, churches in rural areas are experiencing greater difficulties.

There are three major ministries that God wants here on earth: nurture, witness, and worship. Out of these major ministries of God, the researcher has come to the conclusion that worship ministry is the key. By bringing life to worship ministry, a pro forma worship should be changed into true worship that is acceptable to God. Restoration of true worship will eventually change peoples' lives through the work of the Holy Spirit.

The researcher urges that churches in small rural areas that have fewer than 100 members should use multimedia. Most of the rural churches in Korea have long histories in which they experienced both revival and prosperity. Yet, now, they are just holding out their circumstances under hard conditions such as aging and economic difficulties. Many of these aged church members adhere to a conventional form of worship. Considering these circumstances, this study intends to bring life to worship in rural churches by using multimedia.

CHAPTER 2

THEORETICAL FOUNDATION FOR WORSHIP AND UNDERSTANDING OF MULTIMEDIA

Worship (church service) refers to the act of a human, having been saved with the help of God the Father in the Trinity, showing reverence and praise on the basis of the Bible. There is no doubt that worship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ministries in the church.

When looking through the Bible, he or she can see how people in different eras worshiped God in various ways. In the Bible, God first reveals Himself, and people of faith respond to the revelation in various ways. It is notable that some of God's methods for revealing Himself included diverse elements of multimedia. These elements wer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dence of God to show His will more clearly. For example, God showed His will to Noah through the rainbow; Abraham, the stars; the Israelite people who came out of Egypt, the pillar of fire and the pillar of cloud; and prophets, various visions. Jesus, in the New Testament, also explained the kingdom of God with various parables and examples. Likewise, God revealed Himself in a variety of ways, and people also responded and worshiped God by use of various musical instruments and tools.

Though not on par with special revelation, multimedia has become a necessity in churches these days. It has become a must-have, not just a nice-to-have, in people's lives. Now, multimedia is a tool of communication that integrates and creates diverse media (e.g., text, graphic, audio, image, animation, and video) using the computer as a tool. With this multimedia, church has become to be able to hold a richer and more inspiring service. Many churches currently use multimedia, but churches in rural areas where a connection to multimedia is rarer

or harder to undertake are more desperate to use it. It is a good method to use multimedia so that church members who are aging and tired from hard work may pay better attention to the worship service. Not all church services using multimedia are successful, yet the use of multimedia is obviously helpful in the inspiring worship that is acceptable by God. The use of multimedia should not show up just in once in a while, but the pastor should make thorough preparations in his constant use of it, just as he prepares for sermons. The pastor should invest time continuously in learning skills and finding new ideas to use them in the pastoral scene.

CHAPTER 3

CASE STUDIES OF CHURCHES USING MULTIMEDIA IN WORSHIP

The case studies of churches that use multimedia will investigate the examples of some Korean Churches as following. Bundang Woori Church and Ulsan Methodist Church are midsize to large churches making good use of multimedia and receiving favorable evaluation for the use of it in their worship services. Chilsan Baptist Church, Yongan Baptist Church, and Gashin Baptist Church are located in rural areas and hold their worship services using multimedia.

Bundang Woori Church uses appropriate images at every stage of a worship service to help the smooth progression of the service. The multimedia of Bundang Woori Church is characterized by the orderly and refined pictures on the screen and the well-organized, effortless progress of a worship service. In particular, media relevant to sermon messages are well-used.

Ulsan Methodist Church had already held the position of a pioneer of multimedia ministry among Korean churches for more than 20 years. The church contributes its know-how and skills to Korean churches through various seminars and books. This church frequently uses multimedia, particularly images in the church service, and has made a lot of attempts at incorporating newer use of media, such as the use of film summaries that have connections with sermons.

Another church, Chilsan Baptist Church, is a traditional rural church located in Buyeo, Chungcheongnam-do, and is 121 years old. The church has used the beam projector and computers in its worship services since 15 years ago and increases the convenience of relying on multimedia in a worship service chiefly by using a PowerPoint slide deck or showing pictures

displayed by a hymn accompaniment player.

Yongan Baptist Church is a traditional rural church located in Yongan-myeon, Iksan-si, Jeollabuk-do. When constructing its new building two years ago, the church got all the necessary multimedia equipment which had been used in its church services. For the most part, the order of worship is displayed using PowerPoint slides or videos related to sermons.

The last case is Gashin Baptist Church, in which the researcher serves. It is a 60-year-old church and for the past 17 years has used (the combination of) a large TV and laptop computer in worship services. Images are used in all its worship services except for early morning services. The whole order of worship services, the text, and summary of sermons are displayed. Images are also used in seasonal church feast services and special worship services.

CHAPTER 4

ANALYSIS OF QUESTIONNAIRE SURVEY

The purpose of this questionnaire survey is to figure out whether or not multimedia is being used in church services and to find the direction of the effective use of multimedia if used. Participants in the survey were 30 people in total. Among them were 16 pastors (53%) who were all senior pastors. In addition, 14 laypeople (47%) participated in the survey. With regard to denominations, the pastors and the laypeople belonged to the Baptist, the Holiness Church, and Presbyterian denominations.

The analysis of the results of this questionnaire survey can be divided into a section about pastors and a section about laypeople. In the case of the pastors, while they showed largely positive responses to their perception on the use of multimedia, only 50% of them responded that they used multimedia in all their worship services, and thus the frequency of using multimedia was low compared with their perception. Most of the pastors replied that they had the ability to use multimedia, but mostly at an elementary level, such as PowerPoint slides. In total, 93.7% replied that they had the intention to receive education about more expert knowledge on multimedia, which shows clearly the necessity for education. It was found that they were particularly interested in education about video editing.

In the case of the laypeople as well, most showed a positive response to the use of multimedia in ministries within the church. They replied that multimedia has good effects on worship or training, even allowing for enhanced concentration during worship services. Not all worship services using multimedia become inspiring ones in which God is glorified and church

members find grace. However, there will be significant favorable effects if multimedia is used for a church service in which God is glorified and church members find grace.

CHAPTER 5

PROPOSAL FOR THE REVITALIZATION OF WORSHIP BY USING MULTIMEDIA

Because of the questionnaire survey, it was found that the use of multimedia is helpful and necessary for the ministry of worship in church. It will be very commendable if rural churches come to have a dynamic yet concentrated worship through the use of multimedia in services, thereby experiencing a revitalization of worship.

One cannot emphasize too much the importance of multimedia in the 21st century. Multimedia is now indispensable in our daily lives. Engrafting the multimedia, which is all too familiar to us, on ministries within churches, can bring about far more effective ministries. There are definitely essential ministries that pastors need to be focused on such as worship, evangelism, outreach and alms. Through multimedia ministries, however, other church ministries are enhanced, and worship becomes more effective. For this purpose, in particular, a multimedia ministry team should be established in advance within churches. It is proposed that the team should consist of a worship, acoustics, and intercession groups who can collaborate with one another in ministry. Additionally, various methods and talents which can be used characteristically in every worship service were proposed.

As a result of the questionnaire survey, it was found that 94% of the pastors expressed their intention to receive education about multimedia and that their most preferred content of education was a slide presentation, followed by graphics, image and sound, and video editing. In the case of the rural pastors, the necessity for specific training due to the lack of systematic education was revealed. Hence, there are plans to operate a “Multimedia Pastoral Ministry

Sharing Center” so that 188 churches located in Buyeo-gun can share multimedia materials in regular meetings and get help through education. It is expected that pastors educated or laypeople trained in the Sharing Center will be able to take charge of this type of ministry in their churches and make good use of multimedia in their worship services.

CHAPTER 6

CONCLUSION

This study began with the question about how to help church members concentrate on worship services and experience God's grace in worship services based on a 16-year pastoral experience at Gashin Baptist Church located in rural area. As for multimedia equipment, most churches in rural areas are equipped with needed devices and facilities. The reality, however, is that their efficient and effective use is comparatively unsatisfactory. Thus, the pastors of rural churches showed considerably positive responses to the use of multimedia in worship services and felt the necessity for multimedia education; most of them wanted to take time to learn diverse multimedia skills. In response to their demand, pastors and laypeople from 188 churches in Buyeo-gun, who are interested in worship and want to receive education particularly about the use of multimedia, plan to try together to develop multimedia training programs, thereby contributing to the revitalization of worship in rural churches. It is hoped that this proposal may help churches in rural areas to regain excitement in their worship.

제 1 장 서론

1. 연구목적과 문제 제기

이 연구는 멀티미디어, 특히 영상을 예배에 활용하여 침체해가는 농촌교회의 예배를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성장하던 한국교회는 지금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최근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2017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발표하였는데,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20.2%로 나타났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 51.2%, 보통이라는 28.6%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 5명 중 1명만 한국교회를 신뢰하고, 4명은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리고 신뢰하는 종교 순으로는 가톨릭(32.9%), 불교(21.3%)에 이어 기독교가 18.9%로 가장 낮게 나왔다. 이어서 한국교회의 개선점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재정사용’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 타 종교에 대한 태도, 교회 지도자들의 삶, 교인들의 삶들의 순을 보였다.¹ 또한 이해정은 그의 논문에서 인구주택 총조사에 나타난 3대 종단의 인구변화를 보여주는데, 종교인구 중에서 가장 많은 종교인구를 가진 불교의 경우는 1985년 47%이던 것이 2005년 43%로 줄었고, 개신교의 경우는 20년간 1985년 38%이던 것이 35%로 감소하였다. 줄었으며, 가톨릭의 경우는 1985년 11%이던 것이 2005년 21%로 성장한 것을 보여준다.²

조흥식은 그의 글에서 평신도를 포함한 일반인들이 한국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로 지적하는 것을 10가지로 정리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기독교가 세상과 문화에 의한 기복신앙과 물신숭배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둘째,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교리적인 독선과 배타성 안에 갇혀 있다. 셋째,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역사성을 결여하여 대회적인 영향력을 상실했다. 넷째, 이웃의 문제에 대해 무관심하고 사랑의 실천에 인색하다고 지적한다. 다섯째,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가부장적 권위주의에 젖어 있다. 여섯째, 모두는 아니어도 일부 교회가 사조직처럼 되어 행정과

1) “2017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발표보고,” 「선교타임즈」, 2017년 4월, 18-9.

2) 이해정, “통계를 통해서 본 종교인구와 개신교단의 변화” 「신학과 목회」, 2015년 11월, 376-80.

재정이 투명하지 못하며 세습구조가 강하다고 지적한다. 일곱째, 한국 기독교가 비인간 신학대학, 불법 기도원, 위험지역 선교활동 등 알게 모르게 국법을 준수하지 않았다. 여덟째, 신학대학의 난립에 의한 자격 미달의 목회자 양산과 교역자 과잉 등 신학교육의 문제가 많다. 아홉째 교회의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 현상에 대한 교단의 미혼적 대처를 지적한다.³

신성중은 한국교회 개혁의 시급함을 말하면서 한국교회 교인들이 내몰린 상황이 IMF 때보다 훨씬 어려운 경제적 상황이고, 특히 최근 생긴 ‘노인지옥’이란 말처럼 고령화된 인구가 많아지고, 4차 산업의 영향으로 점차 일자리를 감소하는 악순환을 언급하고 있다.⁴ 최윤식은 그의 책 ‘한국교회 미래지도’에서 한국교회의 성장은 멈췄으며 이미 쇠퇴기에 접어들었음을 말한다. 만약에 교회가 뼈를 깎는 노력으로 갱신하지 않을 때 이대로 가면 2050~2060년경 400만, 아니 300만의 교인 수로 줄어들 수 있다고 한다.⁵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일자리의 감소로 인해 젊은이들의 취업문제와 퇴직자들의 노후문제들로 인해 교인들의 삶이 위축되고, 그로 인해 교회에도 타격이 있을 것을 말한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들어선 우리의 상황에서 젊은이들과 노인세대 간의 대결 양상이 점점 정점에 이를 것이고, 교회에서도 이런 현상으로 인해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젊은이들이 떠난 교회는 점점 더 역동성과 사역의 질이 저하되고 장기적으로 보면 교회가 노쇠하여 헌금이 줄어들면 재정의 건전성이 망가지게 된다고 말한다. 또한 많은 은퇴자들의 노후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오는 경제적인 염려로 교회에서의 헌신도도 점점 약해질 것이다. 부동산의 붕괴, 퇴직 연금 등의 붕괴 위험 등으로 항상 불안한 삶은 교인들의 삶은 점점 더 힘들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⁶

이런 사회적인 불안한 현실과 더불어 교회 내의 문제도 교회의 세속화로 복음 중심적인 신앙이 변질되고, 교육과 훈련의 약화로 일군의 부재와 대형교회 중심의 수평 이동으로

3) 조홍식, “한국사회의 반기독교 문제의 원인과 대책” 「교회와 신학」, 2008년 가을, 14-5

4) 신성중, “한국교회 본질을 찾아야 한다.” 「월간목회」, 2017년 4월, 58-60.

5) 최윤식, 「2020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4), 39-40.

6) Ibid., 133-61.

중소교회는 약해지게 되는 양적 불균형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교회 밖으로도 마스크 등 사회 매체에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와 문제 제기로 인한 대사회적인 영향력의 약화. 이로 인한 전도의 어려움, 이단들의 도전, 돈과 권력과 쾌락을 중시하는 이 시대 사람들의 의식 등으로 교회는 점점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상황이다. 특히 농촌 지역의 교회들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여기서 ‘농촌’이라 함은 1차산업인 농업을 주생업으로 하는 지역을 의미하고, 행정구역상 읍,면 단위 이하의 지역을 말한다. 이 농촌 지역에 위치한 교회를 가리켜 흔히 ‘농촌교회’라고 한다. 현재 한국의 농촌교회는 교인들의 고령화, 높은 문맹률, 열악한 교육환경, 청년들의 부재, 농촌 지역에 대한 목회자들의 회피, 농촌 경제의 어려움 등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시대적인 어려움을 극복을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예배의 회복이다. 또한, 농촌교회의 회복에 필요한 것도 예배를 통한 치유와 회복이다. 어려움이 많은 농촌교회지만 예배를 통해 영적으로 회복하고 치유된다면 농촌교회에도 소망이 있다.

조기연은 “만일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과 영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예배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성령의 영감이 없는 설교자의 주관적인 설교, 성경 본문의 임의적 선택으로 인한 말씀의 균형상실, 지나치게 긴 설교, 주어진 기도문이나 가이드라인 없이 진행되는 기도 등으로 이뤄진 예배는 성도들의 신앙이 사사(私事)화되고, 세속화되는 것을 제어할 수 없다.”⁷고 주장한다. 그리고 한국교회 예배의 내용과 신학적 문제점을 지적하길 한국교회 예배는 부활의 기쁨보다 참회 같은 어둡고 칙칙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 인간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경향이 많다고 지적한다.⁸

지금 한국사회는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급격한 변화가운데 있고 이런 변화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기에 한국교회는 쇠퇴하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변화의 시대에 교회도

7) 조기연, “예배 전통의 회복에서 시작되는 신앙 회복.” 「목회와 신학」 (서울: 두란노, 2014. 9월호), 55.

8) 조기연, 「한국교회와 예배 갱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22-31.

삶이 변화되는 영적인 예배로 드러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켜야 할 것이다.⁹ 그리고 이 문제는 농촌교회도 예외가 아니다. 농촌도 1970년대 산업화 이후 점점 젊은이들이 도시로 나가고 농촌은 점점 고령화되어 갔다. 그로 인해 빨리 변화하는 세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도시의 교회들이 현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와 변화를 추구하지만 대부분의 농촌교회들은 전통적인 예배만을 고집하면서 이런 변화의 시대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전통적인 예배로 오랜시간 100여 년 이상 같은 형태를 고집하다 보니 먼저는 예배자의 예배의식 결여되 오랜 타성에 젖어 정성껏 준비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다. 평신도들의 경우 능동적이지 못하고 그저 수동적인 입장에 있다 보니 예배의 적극성이 떨어지고 예배를 단순히 설교를 듣는 것이 예배라는 그릇된 태도들이 있다. 또한, 획일화된 예배 순서와 고착화된 틀로 인해 인도하는 목회자나 참여하는 성도들이나 타성에 젖은 예배자를 만들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농촌교회도 전통적인 예배만을 고집할 것이 아닌 예배의 새로운 변화와 시도가 필요하다.¹⁰

그 변화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본 연구자는 농촌교회에서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예배의 활성화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일방적인 예배가 아닌 멀티미디어를 사용하여 설교자나 회중이 서로 소통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멀티미디어를 활용한다고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참된 예배에 멀티미디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활용을 해야 할 것이다.

인류는 그간 구전 시대, 문자시대, 즉 필사본 시대, 인쇄시대를 거쳐 멀티미디어로 대변되는 오늘날의 전자시대에 이르렀다. 과거에 말과 글로 통하던 것이 이제 영상과 이미지를 통틀어 잘 표현하는 것을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다.¹¹ 그래서 21세기를 멀티미디어의 시대라고 한다.

9) 윤두태, 「새 시대 예배갱신과 교회 성장」 (성남: 21C목회연구소, 2002), 34-5.

10) Ibid., 80-1.

11) 주승중 편, 「영상 세대를 향해 이렇게 설교하라」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4), 78-9.

멀티미디어는 이제까지 인류가 사용해 온 여러 가지 정보표현 방법 중 가장 발전된 형태이다.¹²

여기서 멀티미디어의 사전적인 뜻은 ‘여러 가지 매체’, 또는 ‘다중매체’이다.

멀티미디어(Multi-media)란 multi(복합, 다양함)와 media(매체, medium의 복수)의 합성어로서, 다중매체, 혹은 복합매체란 뜻이다. 멀티미디어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 인간의 의사소통의 여러 수단들, 즉 음성, 영상, 그림, 문자등을 통합시켜 주는 시스템이다. 즉 음성이나 영상, 그림, 문자 등의 여러 가지 미디어를 모아서 하나로 통합해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좁은 의미로서 멀티미디어란 음성, 영상, 문자 등의 다양한 미디어를 컴퓨터라는 하나의 매체로 통합하여 상호 작용성 즉 대화성 등의 총체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컴퓨터시스템으로 정의한다.¹³

지금껏 역사를 보면 시대마다 예배의 모습과 형식은 많이 변화해 왔다. 그것은 회중의 관심과 요청이 예배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현대 예배에서 멀티미디어의 사용을 통한 예배의 변화 이유를 김세광은 첫째, 현대사회가 새로운 문화적 형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자신에게 맞는 문화적 행동을 하기를 원하는 인간의 속성 때문인데, 특히 신세대 회중들에게 멀티미디어는 필수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며 이런 매체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창조하고 싶어하는 점 때문이라고 말한다.¹⁴

이런 시대의 요구와 필요에 의해 현대 교회에서는 멀티미디어를 예배에 활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 지역에서는 장비와 기술, 인력의 부재 등으로 멀티미디어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멀티미디어가 필요한 것이 바로 농촌교회이다. 고령의 교인들이 많아 성경과 찬송가를 찾기조차 쉽지 않고, 고된 노동으로 지칠 대로 지친 몸으로 참석한 예배에서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면 예배에 집중하기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농촌교회에서 멀티미디어 활용은 선택이 아닌 꼭 필요한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멀티미디어를

12) 이만제, 이상선, 「멀티미디어 교과서」 (서울: 안그래픽스, 2005), 2.

13) 김진년, 「크리스찬 인터넷, 멀티미디어」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6), 173-4.

14) 김세광, 「예배와 현대문화」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17-20.

활용한 예배의 성경적, 사회학적, 문화적인 연구와 더불어 농촌교회의 예배에서의 멀티미디어를 활용 방안을 통한 예배의 활성화를 제시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다.

2. 범위와 한계

이 논문의 연구 범위는 기본적인 멀티미디어 장비를 활용하여 예배의 진행을 돕는 데 있다. 특히 멀티미디어 장비가 확보되어 있는 100명 이하의 작은 농촌교회가 대상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멀티미디어에 대한 깊고 전문적인 활용 방법을 다루는 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환경과 상황이 열악한 농촌교회에서 가장 간단한 장비와 기술로도 충분히 예배에 활용 가능한 것들을 중심으로 연구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농촌교회가 예배를 통한 교인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연구의 신뢰성을 보장하려면 한국에 있는 모든 농촌교회들을 조사하고 자료들을 수집해야 하지만, 시간과 인력의 한계가 있었다. 연구자가 사역하고 있는 충남 부여군을 중심으로 인근 농촌 지역에 교회들의 사례를 설문을 통해 분석하여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예배에서 멀티미디어 활용에 따른 교인들의 만족도와 예배의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설문 분석을 근거로 농촌교회에 쉽게 적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을 제안할 것이다.

3. 이론적 근거

1) 성경적 근거

하나님은 각 시대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신앙의 회복을 원하셨고, 그 신앙회복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예배를 통한 회복이었다. 구약성경에 종살이로 고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 출애굽 시키고 광야 40년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것은 이스라엘 예배 공동체였다. 사사기의 암흑시대에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는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적

회복뿐이었다. 사무엘의 위대함이란 엘리시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예배 공동체를 회복한 것이다. 사울의 실패와 다윗의 성공의 차이는 바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분열과 멸망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고 이들의 회복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적 회복뿐이었다. 신약에서도 400년 암흑기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례 요한이 외쳤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이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와의 관계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 존재의 목적이기에 예배의 회복, 신앙의 회복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예배를 통한 교회의 회복에 중점을 둘 것이다. 특히 도시교회가 아닌 연구자가 속해 있는 농촌교회가 중심이 될 것이다. 도시교회보다 농촌교회의 상황은 훨씬 더 열악한 상황이다. 이런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농촌교회 교인들의 삶에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닌 예배를 통한 감격과 치유와 축복의 경험이다. 그간 참여하는 것에 만족하던 일방적인 예배가 아닌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여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예배,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닌 예배를 통해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며, 주일 낮에 받은 감동과 능력으로 일주일을 살아갈 만한 힘과 능력을 받는 예배, 이런 예배로 인한 신앙회복으로 무너져가는 농촌교회를 다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그리고 그 예배 회복의 도구로서 멀티미디어를 활용에 대한 연구를 할 것이다. 물론 성경에서는 멀티미디어의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 그러나 멀티미디어를 사용하듯이 시각적으로 표현한 부분들이 있다. 예를 들어본다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불러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약속을 하신 일(창 15:5)이나,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신 일(출 3:2),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일(겔 37:1-10), 요나를 깨닫게 하시고자 박넙쿨을 통해 교훈하신 일(욘 4:7-11)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신 예가 있다. 이것은 예배를 위한 다양한 도구나 방법의 사용하는 멀티미디어 사용에 대한 좋은 선례이다. 이 외에 좀더 구체적인 실례들을 2장에서 다룰 것이다.

2) 신학적 근거

예배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라는 정의가 말해주듯이 하나님이 보여 주심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는 감정적이고 맹목적인 행위로 끝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신학적 배경이 중요하다. 먼저는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할 것이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육신의 사건과 구속 사건, 그리고 부활 사건 속에서 보여주신 구원의 은총을 행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은총으로 우리의 임할 은혜를 알고 나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응답 받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¹⁵

그리고 예배의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히 10:14)는 말씀처럼 한 번의 제사로 하나님과 우리들의 온전한 중보가 되셨다.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가 드려야 할 모든 희생의 제사를 대신 한 것이기에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한 관계가 된 것이다. 구약에서처럼 가려진 예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막힘없는 예배가 된 것이다.¹⁶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온전한 예배의 완성자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현하셨다면, 오순절 이후 주님 재림까지는 성령님을 통해 완성시키고 계시다.¹⁷ 성령은 하나님이 영이신데 우리 안에 임하셔서 지금도 예배드리는 자에게 감동과 변화와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지속적으로 역사를 하신다. 그런데 한국사회에서 이 성령에 대한 그릇된 이해로 말미암아 예배가 많이 혼탁해진 경험들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는 바른 예배를 가능케 할 것이다.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없기에 성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세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예배를 통하여

15) 정장복, 「예배학 개론」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3), 24-5.

16) Ibid., 25-6.

17) Ibid., 26-7.

주님을 직접 섬기며, 양육을 통하여 성도를 섬기고, 증거를 통하여 세상을 섬긴다.¹⁸ 오늘날의 교회는 예배를 위하여 모인 공동체이다.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다.¹⁹ 그런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머리의 지체는 성도들이다. 이 성도들은 각자가 받은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성취해야 하는데, 예배의 사역은 그 은혜를 결합시키는 총체적인 사역이 예배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예배를 통한 교회의 회복이라는 커다란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멀티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론보다는 실제적인 사례와 방법 등을 통하여, 교회 내에서 멀티미디어를 활용을 통해 예배를 새롭게 하고자 고민하는 이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

4. 연구 방법에 대한 진술

이 연구는 그 동안 연구자가 농촌교회에서 16년간 사역을 하며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제적인 부분을 다룰 것이다. 1장에서는 서론으로 한국의 농촌교회의 상황과 예배 활성화의 필요성. 그 방법으로서의 멀티미디어 활용에 대한 입장을 기술한 것이다. 2장에서는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예배의 정의와 성경적, 역사적 배경으로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와 예배 활성화를 위한 멀티미디어 활용의 성경적인 근거를 찾고, 역사적으로 예배의 변화속에서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예도 연구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한국적 상황속에서 농촌교회의 예배 활성화를 위해 멀티미디어가 필요한 것을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그 실제적인 예로서 멀티미디어를 활용하는 분당우리교회, 울산감리교회, 칠산침례교회, 용안침례교회, 가신침례교회를 샘플로 연구할 것이다. 5교회의 선정 조건은 첫째, 활용성이다. 멀티미디어를 예배속에서 잘 활용하고 있는 교회인가를 말한다. 둘째, 자료 수집의 용이성이다. 논문을 위한

18) Edmund P. Clowney, 「IVP조직신학 시리즈 교회」, 황영철 역 (서울: IVP, 1998), 133.

19) Robert E. Webber, 「예배의 역사와 신학」, 정장복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5), 113.

예배 자료라는 특성으로 자료를 구하는 문제는 쉽지 않다. 이에 연구자와 관련이 있는 교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구하기 용이한 5교회를 선정하게 되었다. 셋째, 대표성이다. 멀티미디어를 활용하는 교회에 멀티미디어 사용의 대표성이 있는가의 조건에 따라 선정했다. 이런 5교회의 구체적인 사용 실례들을 살펴 평가하고자 한다. 4장에서는 교회에서 예배에 멀티미디어를 활용하는 문제에 대하여 교인들과 목회자들의 입장에서의 설문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들의 입장에서 멀티미디어 활용을 위하여 교육받는 문제에 대한 의식의 알아보고, 농촌교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설문도 조사할 것이다. 5장은 위의 모든 과정과 실례들을 근거로 해서 농촌교회에서 멀티미디어를 활용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논하고, 예배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볼 것이다. 또한, 예배 활성화를 위한 멀티미디어를 통한 좋은 아이디어를 논하겠다. 그리고 멀티미디어 활용 시 주의할 사항들에 대하여도 논하도록 하겠다. 6장은 결론으로 논문의 전체적인 결론과 제안이 들어가도록 하겠다.

5. 문헌 검토

1) 한국교회의 상황과 농촌 상황에 관련된 책

최윤식의 「한국교회 미래지도 1」에서는 앞으로 10여 년 내 한국의 상황이 어려워질 것이고 한국교회와 교인들의 삶 또한 어려워질 것을 말한다.²⁰ 그러면서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흉년을 준비한 요셉 같은 지혜가 필요하며 교회가 새롭게 갱신한다면 성장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또한 「한국교회 미래지도 2」에서는 이런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한 처방을 말하고 있다. 위기는 기회이며 준비만 된다면 오히려 성장하고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중에 지금껏 20~30년이 도시로의 인구이동의 시기였다면, 앞으로의 50년은 은퇴한 사람들이 중소도시와 시골로 이동을 하는 시기이기에 농촌교회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좋은 기회가 될

20) 최윤식, 「2020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3), 39-64.

것을 말한다.²¹ 시대적인 안목을 가지고 준비된 교회에는 여전히 희망이 있다.

김일우의 「농어촌교회여! 다시금 한국교회에 부흥의 주춧돌을 놓자」는 농촌교회 목회자의 자녀인 저자가 농어촌 선교사역을 감당하면서 느낀 한국의 농어촌교회의 현실과 당면한 문제등을 심도 깊게 다루고 제2의 농어촌 계몽운동을 통해 한국교회의 주춧돌이 되기를 소망하는 다양한 제시들을 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에 대한 다양한 통계자료는 논문을 쓰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²²

2) 예배와 관련된 책

이명희는 「현대 예배론」에서는 실천신학 교수로서 오랜 기간의 연구를 통해 얻은 교회의 사역 속에서의 예배에 대한 다양한 것들을 다루고 있다. 예배의 본질, 예배의 이유, 예배의 성경적, 역사적 배경 그리고 예배의 성경적인 모델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기획하고 실천하는데 좋은 안내서와 같은 역할을 했다. 특히 예배의 역사적, 성경적인 부분은 아주 정확하면서도 간략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며 모든 인간과 교회의 영원하고도 최우선적인 과업이고, 기독교 신앙의 씨앗이며 열매이다. 그리고 이 현대 예배론에서 성경적-신학적-역사적 교훈의 기초 위에 문화적 토양을 접목시켜 가장 바람직한 예배의 원리와 방안을 추구하겠다고 서두에 말하고 있다.

정장복의 「예배학 개론」은 1985년 초판이 나온 이후 예배학을 공부하는 이들에게 베스트셀러처럼 많이 읽혀지고 사용된 책이다. 저자가 연구하고 강의한 내용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재개정한 책이다. 저자는 기독교의 예배가 의식을 거부하고 너무 말씀 중심의 예배로 가다 보니 예배의 균형 감각을 잃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20세기 초 칼빈과 루터 같은

21) Ibid., 73-103.

22) 김일우, 「농어촌교회여! 다시금 한국교회에 부흥의 주춧돌을 놓자」(서울: 좋은땅, 2009), 12-8.

개혁자들이 잃어던 예배의 내용을 찾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그런 움직임으로 “예배 회복 운동”으로 그동안 기독교가 잃었던 예전의 회복을 가져오게 했고 많은 성도들에게 기쁨과 감격을 가져오게 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이 책을 크게 4부분으로 구분해서 설명하는데, 첫째 부분은 예배의 기본적인 이해를 다루며 예배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다루고 있다. 둘째 부분은 예배의 맥락을 찾는 작업으로 종교개혁 이후의 예배 역사를 다루고 있다. 셋째 부분은 오늘의 개신교 예배에서 갖는 예배의 내용과 그 순서의 의미를 설명한다. 넷째 부분은 개혁교회의 예배 중심인 성례전과 말씀에 대해 다루고, 예배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교회력과 성서 일과를 다루고 있다.²³ 특히 본 연구를 함에 있어 3장에 예배의 역사적 발전의 내용은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정현은 「개혁주의 예배학」에서 이 시대에 맞는 예배학에 대한 고민으로 책을 저술했다고 서론에 말했듯이, 예배의 실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된 책이다. 단순히 예배의 역사적인 배경뿐만이 아니라 예배의 요소들, 특히 찬송, 기도, 그리고 성례는 그 내용을 상세히 다루고 있고, 각각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예들을 소상히 취급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 책은 예배에 관한 이론과 실재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책이다.²⁴ 특히 본 연구자에게는 예배의 정의와 역사적인 부분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A.W. 토저(Aiden Wilson Tozer)는 「이것이 예배이다」에서는 오늘날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며 예배자에게 감동과 감격, 기쁨이 충만한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렸다²⁵고 말하며 예배의 회복이 기독교의 회복이며, 예배의 활성화가 기독교의 활성화를 말하고 있다.

워렌 위어스비(Warren, W. Wiersbe)의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에서는 “예배의 목적이 우리의 축복이나 평안 등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자

23) 정장복, 「예배학 개론」(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3), 6-7.

24) 이정현, 「개혁주의 예배학」(서울: 도서출판 샘터, 2005), 5.

25) A. W. Tozer, 「이것이 예배이다」(서울: 규장, 2006), 145-74

하는 순수한 목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²⁶고 말한다. 개인적인 축복, 유익을 위해 예배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음을 말한다. 참된 예배자는 참된 하나님 앞에 가장 순수한 동기와 목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헌신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리고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란 결코 예배와 동떨어져서는 안 되며, 이런 예배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개인이든 가정이든 공동체가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될 수 있음을 말한다.

윤두태의 「새 시대 예배 갱신과 교회 성장」이란 책은 의정부에 위치한 가성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저자가 21C 목회연구서 김두현 소장의 지도를 통해 예배 갱신을 통한 교회 성장의 사례를 논문으로 냈고, 이것을 21C 목회연구소에서 책으로 낸 것이다. 시대적인 변화의 요구 등에 대해 말하고 있고, 이런 변화의 요구에 교회의 예배의 갱신을 통해서 교회 성장의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다. 단순히 예배에 대한 개론적 이야기가 아닌 실제 교회에서 한 예배 갱신의 내용을 기술함으로 예배의 갱신에 고민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이었다.

3) 멀티미디어와 관련된 책

멀티미디어에 대한 일반적인 책은 많지만, 기독교에서 활용 가능한 멀티미디어에 대한 자료나 책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것이 반증해 주는 것은 그간은 기독교가 세상의 문화나 문명에 끌고 갔지만 이젠 더 이상 기독교가 세상을 이끌고 갈 만한 힘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임태종의 「예배의 개혁, 멀티미디어 예배」는 저자는 전통적인 교회에 부임하여 전통적인 교회와 예배의 분위기를 변화시키는데 멀티미디어라는 이 시대의 훌륭하고 친숙한 도구를 활용한 구체적인 내용과 과정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울산감리교회 교회를 멀티미디어를 통하여 전통적인 교회에서 새롭게 부흥하는 교회로 세우는 모든 과정을 설명하고 있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데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예배자의 전인격(이성, 감정, 의지)이 온전히

26) Warren, W. Wiersbe,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2), 24-5.

드러지도록 오감(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다 열어놓게 하는 매체이고 이 매체를 통하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고자 노력한 과정을 언급하고 있다.²⁷ 더 이상 과거의 수동적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교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이며 교인들의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예배로의 변화의 매개체로서 멀티미디어 활용의 좋은 샘플을 제시하고 있다.

조기연의 「한국교회와 예배 갱신」에서는 먼저 한국교회 예배의 기원과 형성과정을 말하며 현재 한국교회에서 잘못 이용되고 있는 예배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 그리고 올바른 예배의 회복을 말하고 있다. 예배의 목적은 오직 한가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만 그 방법 등은 나라별로 상황별로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음을 말하며 특히 5장에서 멀티미디어 예배의 정의와 실제, 가능성과 한계성 등을 다뤄주고 있다.

임삼규의 「멀티미디어 시대의 예배, 멀티미디어 시대의 설교」에서는 이 시대에 다양하게 사용되는 멀티미디어에 대한 정의와 활용²⁸ 등을 다루고 있고, 이것을 활용하여 많은 이들에게 쉽게 설교를 듣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있듯이 멀티미디어의 활용만이 이 시대의 예배에 완벽한 대안은 아니기에 우려되는 역기능 또한 다뤄주고 있다.

퀸틴 슐츠(Quentin J. Schultze) 「하이테크 예배」에서는 21세기를 사는 현대교회의 예배속에그간 무분별하게 사용한 하이테크 기술등으로 가장 중요한 예배의 요소등에 대해 경종을 울린다. 슐츠는 먼저 기독교 예배의 예전적 요소를 이해하고 보다 의미있고 성경적인 예배를 위한 하이테크 기술을 지혜롭게 사용할 것을 말하고 있다. 기술이 주도하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예배를 기술이 뒤받침해주어야 한다고 말한다.²⁹

27) 임태중, 「예배의 개혁, 멀티미디어 예배」 (서울: 국민일보, 2000), 6-7

28) 임삼규, 「멀티미디어 시대의 예배, 멀티미디어 시대의 설교」 (서울: 도서출판 정금, 2004), 17-54

29) Quentin J. Schultze,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하이테크 예배」, 박성창 역 (서울: IVP, 2006), 32.

4) 관련 논문 등 전문 자료

원종홍의 「그리스도교 예배의 멀티미디어 활용연구」는 한신대학원 목회학박사 학위 논문으로 멀티미디어의 이해에 대하여, 기독교 예배에 대하여,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의 멀티미디어 활용의 현실 비판에 대하여, 그리고 멀티미디어의 창조적인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시스템까지 다루고 있다.

박찬원의 「설교에서 영상을 활용한 농촌교회 활성화 방안」(동광교회를 중심으로)은 충북 충주시 동량면 소재 동광교회라는 농촌교회를 설교. 특히 영상을 이용한 설교를 통해 예배의 변화를 도모하고자 아주 자세히 연구한 논문이다. 지역적 상황, 성경적 근거, 신학적 이론, 교회사적 근거에 구체적인 대안제시까지 다루고 있다.

박한수의 「현대교회를 위한 멀티미디어 영상예배에 관한 연구」는 호서대 연합신학전문대학원 실천신학 목회학박사 학위논문으로 현대교회에 멀티미디어를 통한 효과적인 활용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멀티미디어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현대교회에서의 영상 활용을 사례로 분석하여 설명을 하고 있고, 앞으로의 활용방향에 대해서도 논하고 있다.

김명찬의 「멀티미디어 시대의 설교에 있어서 영상 활용에 대한 연구」(번동제일교회를 중심으로)는 장신대 목회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서 영상 예배와 영상설교를 활용함으로써 변화를 추구하였고, 이에 뒷받침되는 이론과 세밀한 과정 그리고 평가까지 다루고 있다.

5) 논문 관련 성경구절

(1) 예배에 관련된 성경구절.

i) 시편 5편 7절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ii) 시편 29편 2절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이다.’

iii) 시편 96편 9절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iv) 시편 99편 9절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v) 시편 132편 7절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vi) 시편 138편 2절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vii)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viii) 이사야 55장 6절-8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ix)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x) 빌립보서 2장 9절-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2) 시청각적인 요소를 활용하신 성경구절

i) 창세기 9장 12절-1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ii) 창세기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못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iii) 출애굽기 3장 2절 ‘여호와와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iv) 출애굽기 13장 21절-22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v) 출애굽기 25장 8절-9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vi) 예레미야 1장 11절-12절 ‘여호와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vii) 에스겔 37장 1절-14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viii) 요나 4장 6절-11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녕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들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던라 요나가 박녕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녕쿨을 잡아먹게 하시매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녕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 버린 이 박녕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십이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ix) 마태복음 6장 25절-30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나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x) 마태복음 13장 3절-9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 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xi) 마태복음 26장 26절-28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제 2 장

예배의 이론적 근거와 멀티미디어의 이해

1. 예배에 대한 정의

예배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하려고 할 때 유용한 방법 중 한가지는 예배에 대해 사용되는 용어들 살펴보는 것이다. 이 단어들이 서로 보충,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기에 예배를 정의함에 있어 유용하다.

1) 예배에 대한 사전적 정의

예배에 대해서 「기독교 교육학사전」에서는 “하나님의 존귀함을 표현하는 행위”³⁰라고 정의하며, 「성경문화배경사전」에서는 예배를 “하나님께 최상의, 존경심과 경외심으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신앙행위”라고 정의한다.³¹

한문의 예배(禮拜)는 ‘예도 예’, ‘절 배’를 써서 ‘예의를 갖추어 절하다’라는 뜻이다. 예배를 달리 ‘경배(敬拜)’라는 말로도 쓰는데, ‘공경 경’, ‘절 배’를 써서 ‘공경하고 절한다’는 뜻이다. 동양의 사고에서 보면 존경과 애정이 있는 이에게 허리를 깊숙이 굽혀 절함으로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표현한다.³²

영어에서 예배에 대한 여러 표현들이 있다. 그 중에 하나는 ‘Worship’이다. 이 말에 대해 정장복은 그의 저서 ‘예배학 개론’에서 “원래 Worship이라는 말은 앵글로색슨어인 ‘Weorthscipe’에서 나온 것으로 가치(Worth)라는 말과 신분(Ship)이라는 말의 합성어이다. 이 말의 뜻은 ‘존경과 존귀를 받을 가치가 있는 자’이다. 이 말을 좀 더 구체화시킨다면 “예배는

30) “예배,” 「기독교 교육학사전」

31) “예배,” 「성경문화 배경사전」

32) 이정현, 「개혁주의 예배학」 (서울: 도서출판 샘터, 2005), 22.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리는 것”이라는 뜻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³³

정장복은 예배의 우리 말의 뜻은 “신을 신앙하고 숭배하면서 그 대상을 경외하는 행위 및 그 양식이라고 정의되어 왔다”고 말한다.³⁴ 그리고 이정현은 폴 훈(Paul W. Hoon) 교수의 말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훈 교수는 계속해서 “기독교 예배란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God’s revelation)와 그에 대한 인간의 응답(Man’s response)”, 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의 영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응답하는 인간의 행위”라고 주장한다. 훈교수에 의하면 기독교 예배에 대한 중심개념은 하나님의 계시(Revelation)와 인간의 응답(Response)인 것 같다.³⁵

라마 보쉬맨(LaMar Boschman)은 “예배는 하나님을 숭배하고, 높이고, 경모하고, 찬미하는 태도를 가리킨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흠모하고, 찬양하는 것이 곧 예배이다. 예배는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덕성을 찬양하는 데 전적으로 초점을 맞춘다.”라고 말하고 있다.³⁶

툼 라이트(N. T. Wright)는 “예배는 겸손과 기쁨입니다. 예배는 모든 것을 잊고 하나님께 몰두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자신의 진리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 열려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한다.³⁷

(2) 예배에 대한 성경적 정의

정장복은 예배에 대하여 그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33) 정장복, 「예배학 개론」(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3), 20.

34) Ibid., 18.

35) 이정현, 「개혁주의 예배학」, 24.

36) LaMar Boschman, 「위십 리바이벌」, 조계광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8), 30-1.

37) N. T. Wright, 「툼 라이트 예배를 말하다」, 최현만역 (서울: 에클레시아북, 2010), 21.

구약에서의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하(πῆσ)라는 말로 ‘엎드려 절하다’, ‘구부리다’, ‘굴복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사하 외에 아보다(ἁπῶ)라는 말은 봉사, 또는 수고의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인데, 예배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신약에서는 예배라는 말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프로스쿠네오’(προσκυνεω)라는 말은 ‘누군가의 입에 손을 맞추는 것’ 또는 ‘존경의 표시로 다른 사람 앞에 엎드리는 것’이란 의미를 갖고 있다. 또 다른 표현으로 ‘레이투르기아’(λειτουργια)라는 말은 노동을 의미하는 엘곤(εργον)과 백성을 의미하는 라오스(λαος)의 합성어로 섬김, 봉사, 의식이란 개념이 포함되어 사용 되어져왔다.³⁸

위어스비도 예배에 대하여 다음 같이 기술하고 있다:

흠정역(KJV)을 보면 서로 다른 네 개의 히브리어 단어가 “예배”로 번역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인 단어는 ‘사하’이다. 이 용어는 “엎드려 존경을 표하다”라는 의미로 창세기 18:2에 처음 나타난다. 그 곳을 보면 아브라함이 세 사람의 방문객 앞에 몸을 굽혔다는 내용이 나온다. 아브라함은 그 세 방문객 가운데 한 분이 하늘에서 오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예배를 뜻하는 핵심 되는 헬라어는 ‘프로스쿠네오’이다. 이 용어는 “~를 향해 입을 맞추다”라는 의미로,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구약과 신약에 사용된 이상의 용어들이 지닌 의미를 모두 종합해보면, 예배에는 존경, 경외, 존중과 같은 내적 태도와 엎드림, 찬양, 섬김과 같은 외적 행위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다시 말해 예배는 주관적 경험과 객관적 행위를 포함한다.³⁹

이유정은 예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성경에서 예배로 번역된 네 단어. ‘사하’(엎드려 존경을 표하자), ‘프로스쿠네오’(-에 입맞추다), ‘라트류오’(섬기다, 사역하다), ‘레이투르고스(제사장의 사역)의 의미를 종합해보면 예배는 ‘경외, 존중, 존경’과 같은 내적 태도와 ‘엎드림, 찬양, 섬김’같은 외적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이처럼 예배에는 객관적인 행위와 주관적인 경험이 공존한다. 따라서 감정 표현이 결여된 공허한 의식은 결코 진정한 예배라 할 수 없다. 결국 예배는 이땅에서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연주와 공연, 행동과 태도, 마음과 영이 결집된 만남의 사건이다. 그래서 나는 예배를 이렇게 정의한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와 성령의 내재하시는 은혜로 담대히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계시에 대한 반응으로 올려지는 가장 순도 높은 사랑이요, 가장 지고한 사귄의 사건이다.⁴⁰

예배를 의미하는 ‘사하’(πῆσ)나 ‘프로스쿠네오’(προσκυνεω), ‘레이투르기아’(λειτουργια),

38) 정장복, 「예배학 개론」, 20-2.

39) Warren Wiersbe,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 조계광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2), 30-1.

40) 이유정, 「잠자는 예배를 깨워라」 (서울: 예수전도대, 2012), 45.

‘Worship’ 한문의 ‘禮拜’, 자기 부인 등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통해 예배를 본 연구자의 말로 정의해 본다면, ‘예배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최고의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배자인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존경과 사랑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진실된 경외와 경배, 헌신을 드리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말씀에 순복하고 온전히 변화하는 모든 과정이요 결과다’라고 정의해 본다.

2. 예배의 성경적, 역사적, 신학적 배경

1) 예배의 성경적 배경

성경에는 멀티미디어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없다. 그러나 계시된 말씀속에는 분명히 시청각적인 요소를 많이 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예배를 살펴보고 그 예배의 모습속에서 찾을 수 있는 다양한 멀티미디어적인 요소도 함께 언급하고자 한다.

(1) 족장 시대의 예배

성경에서 최초로 예배에 대하여 언급된 부분은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이다. 가인은 곡물로 제물을 삼아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오직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다. 이 부분에 대해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증언하고 있다. 또한 창세기 6장에서 당대 사람들이 죄악이 극에 달해 하나님은 심판을 작정하셨다. 물론 세상을 심판할 때 의로운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만은 노아가 예비한 방주를 통해 구원받았다. 7장에서 구원받은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을 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음성과 무지개라는 영상을 보여주시어 보호하심의 약속을 받게 된다. 범죄한 인간에 대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은 의로운 노아를 통해 구원의 계획을 유지하시고, 여기에 노아는 거룩한 삶과 희생의 제사로 답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예배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 우상숭배하는 갈대아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며 주권적으로 부르시고 거기에 응답한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행해 순종의 길을 나선다. 이 아브라함의 예배에 대하여 이명희는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아브라함에게도 간과하기 어려운 실수와 흠결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믿음-순종-예배”, 이 세 가지가 그의 생애를 든든히 받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러한 신앙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제단을 쌓았고(창 12:7), 장막을 옮길 때마다 단을 쌓았으며(창 12:8), 전쟁에서 승리할 때에도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예물을 바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고(창 14:17-20),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할 때도 쫓겨난 제물을 두고 예배하였다(창 15:6-11). 아브라함은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드리며 상쾌하게 헤드리기 원했고(창 18:1-5),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며 예배 하였다.(창 21:3) 아브라함의 예배의 절정은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예배였다(창 22장). 아브라함의 생애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표시인 예배, 이 세 가지는 신앙의 3요소라고 할 수 있겠다.⁴¹

사실 구약 초기에 어떠한 예배가 드러졌고, 어떤 형식과 순서로 예배를 드렸는지를 알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한가지 중요한 것은 제물을 불태워 드리는 번제 형식으로 행해졌고, 그런 예배에 통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⁴² 그리고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시정각적 요소는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무지개를 통해 약속하신 사건과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별을 보여주시면 축복을 약속하신 과정(창 15:5)등은 시정각을 활용하신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2) 출애굽 시대의 예배

“출애굽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시작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의 시기를 말한다.”⁴³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으며, 그 율법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 공동체로 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성막이다.

41) 이명희, 「현대 예배론」 (대전: 침례신학대학교 출판부, 2016), 82.

42) 이정현, 「개혁주의 예배학」, 46.

43) 이명희, 「현대 예배론」, 86.

전응교는 “성막은 출애굽의 역사와 관계가 있다. 출애굽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출애굽기 전체 내용 중에 13장(전체 40장)이 성막을 다룬 내용입니다.”⁴⁴라고 말한다. 이 성막의 중요성에 대해서 홍찬환은 “성막은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역을 배우게 되며, 성령님의 사역과 신앙생활의 총체적인 점검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⁴⁵

이 성막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식양대로 지어졌다(출 25:9). 또한 하나님이 지시하신 사람들(출 35:31-32, 35, 34, 36:2)에 의해 백성의 자원하는 물질(출 35:21, 29)로 지어졌다. 또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에 성막을 다루고 있는 성경도 출애굽기에서 13장, 레위기에서 18장, 민수기에서 13장, 신명기에서 2장, 히브리서에서 4장. 성경 전체에서 50장에 걸쳐 다루고 있다.

성막의 주요 구조는 성소 밖에는 총 60개의 돛으로 만들어진 높이 2.3m의 울타리(출 27:9-19)가 밖에서 보인다. 이것은 세상과의 구별을 의미한다.⁴⁶ 성막로 들어가는 출입문(출 27:13-16)은 오직 하나인데 동쪽 25m의 벽중에 10m의 큰 문으로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⁴⁷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번제단(출 27:1-8)이 첫번째로 놓여있는데 싯딤나무로 돛을 싸서 만든 가로 세로 각각 5규빗(2.5m)의 정사각형이고, 높이가 3규빗(1.5m)인 네 모퉁이에 돛으로 된 뿔로 되어 있으며 이 번제단의 불은 항상 꺼지지 않아야 했다. 제단에 있는 기구들은 재를 담는 통과 대야, 부삽, 고기 갈고리와 불 읊기는 그릇등이 있다.⁴⁸ 제단을 지나면 돛으로 된 물두멍(출 30:18-21)이 있어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씻는 정결의식을 하는 곳이다.

44) 전응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막이다」 (서울: 도서출판 소망, 2009), 20.

45) 홍찬환, 「성막과 교회」 (서울: 기독교연합신문사, 2002), 28-32.

46) 엄승용, 「성막강해」 (서울: 예찬사, 1994), 40.

47) Ibid., 50

48) Ibid., 68

성소안으로 들어가면 왼쪽엔 금 한달란트로 만들어진 등대(출 25:31-40)가 있어 항상 불이 꺼지지 않도록 감람유로 불을 켜다. 이 불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오른쪽에 떡상(출 25:25-30)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고운가루와 기름으로 만든 진설병을 항상 두도록 하였는데 이 떡은 생명이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분의 말씀을 상징한다.⁴⁹ 중앙에는 조각목으로 정금으로 싸서 만든 분향단(출 30:1-10)이 있어 아침 저녁으로 향을 태웠는데 이 분향단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향은 기도를 의미한다.⁵⁰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출 26:31-33)을 지나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출 25:10-22)가 있다. 법궤는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물건으로 조각목으로 만들어졌고, 정금으로 싸여 그 안에 십계명과 만나 향아리,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들어 있다(출 37:1-9).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이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였다.⁵¹ 광야 생활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성막은 이 성막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시청각적인 장소였고, 하나님이 인도와 보호를 경험할 수 있는 약속의 장소였으며, 그 하나님을 제사하는 예배의 중심이었다.

이명희는 이 성막에 대하여 말하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지파별로 진을 치면서 성막의 이동을 따라 행진해 나갔다. 성막은 예배뿐만 아니라 생활의 중심지이기도 했다. 성막은 제사를 드리는 곳(출 25:8-9)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곳(출 25:22)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출 25:22)이었다”라고 한다.⁵²

홍찬환은 성막의 중요성을 예수그리스도의 구속사와 연결하여 말하길;

“성경에는 성막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 성막 기사들은 모두 예수 그릇도의 구속사와 관계가 있고,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출 25:22), 그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성막은 단순히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49) Ibid., 128-30

50) Ibid., 142-4

51) Ibid., 165-7

52) 이명희, 「현대 예배론」, 87.

받아들여지고 용서를 받는 곳입니다. 레위기 1장 4절에는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열납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것이다”라고 했고,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⁵³

이 성막을 통하여 그동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겨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성막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영광을 직접 보면서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이 성막에서 드리는 5대 제사법을 레위기 1장에서부터 7장까지 설명하고 있는데, 마틴 골든스미스(Martin Goldsmith) 는 이렇게 정리했다:

첫째 번제(레1장, 6:8-13)의 성격은 개인적인 예배로는 제사장이 정해진 범위에서 흠이 없는 수컷으로 제물을 삼아 드리거나, 공동체적인 예배로는 매일 두번 어린양 두마리를 제물로 삼아 드린다. 이때 짐승을 잡아 제단에 피를 뿌리고 제물을 제단에 놓고 단번에 불에 태워 드린다. 이 번제의 의미는 속죄의 의미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주사상과 예배자의 헌신을 반영한다. 둘째 소제(레2장; 6:14-23, 민15:1-12)는 밀가루를 불에 구웠거나, 번철에 부친 것. 기름, 유향, 소금을 섞어 드린다. 그리고 예물의 일부는 단위에서 불사르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취한다. 이 소제의 의미는 감사의 의미로 생황의 기본 일용품을 드린다. 셋째, 감사, 자원, 서원예물을 드리는 화목제(레3장; 7:11-18)는 짐승의 수컷이나 암컷을 드릴 수 있고, 이때 짐승을 잡사 단 사면에 피를 뿌리고, 제물의 특정부위를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취하기도 한다. 이 화목제의 의미는 친교의 의미로 하나님과의 친교를 의미한다. 넷째, 속죄제(레 4:1-5:13, 6:24-30)는 제사장이 정해진 범위 내 형편껏 드린다. 소제물을 드리기도 한다. 이때 짐승을 잡아 제단 뿔에 피를 발랐고, 제물을 불살랐고, 나머지는 제사장이나 회중이 취하기도 한다. 이 속죄제의 의미는 정화의 의미를 가진다. 개인이나 회중이 무심코 지은 죄에 대한 속죄를 의미한다. 다섯째, 속건제(레 5:14-19, 7:1-10)는 적당한 가격의 흠 없는 숫양을 드리는데 속죄제와 같은 방법으로 제물을 드린다. 이 속건제의 의미는 보상의 의미가 있어 속죄제와 비슷하나 피해를 본 상대방에게 보상을 해야 함을 요구한다.⁵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절기이다. 하나님은 3대 절기를 명하셔서 절기마다 의미를 가지고 지키라고 하시는데, 골든스미스는 세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유월절(출 12, 13장, 신 16:1-8, 민 28:16-25, 고전 5:7, 레 23:4-8)은 니산월 14일(3/4월)로 출애굽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로 7일동안 무교병을 먹는다. 그 의미는

53) 홍찬환, 「성막과 교회」, 29-30.

54) Martin Goldsmith, 「성경본문의 맥을 밝혀주는 레위기-신명기」, 성서유니온선교회 역 (서울: 성서유니온, 2000), 12-3

구약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지만, 신약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의 최종 성취자로 죄의 속박에서 구속함을 의미한다. 둘째, 칠칠절/초실절 다른 말로 맥추절, 오순절(출 23:16, 민 28:26-31, 신 16:9-12, 레 23:15-22)은 시완월 6일(5/6월) 유월절 후 50일간을 지키는데 보리추수 마지막 때에 수확물 거두게 됨을 감사하는 절기이다. 그 의미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축하하는 의미이고, 신약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재한다. 셋째, 초막절/수장절(출 23:16, 레 23:33-43, 민 29:12-40)은 다스리월 15일(9/10월)에 지키는 절기로 추수 마지막 때에 수확물을 얻게 됨을 감사하는 절기이다. 이때 초막에서 7일간을 지내는데 그 의미는 광야시절을 기억하자는 의미이다.⁵⁵

출애굽시대 예배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율법을 지니게 됨으로 예전이 가능하게 되었고, 성막이나 구체적인 제사의 방법들로 보다 가시적인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 또한 이전의 예배는 개인적인 의미가 강했지만, 출애굽시대는 성막을 중심으로 한 3대 절기, 5대 제사법을 통해서 개인뿐 아닌 공동체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다. 이과정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성막이라는 하나님이 임재의 공간을 보여주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 다양한 제사법등으로 하나님께 제사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오감을 통하여 경험하였다.

(3) 왕국시대의 예배

“왕국시대는 사무엘의 활동에서부터 유다 왕국의 멸망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⁵⁶ 특히 중요한 것은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끝으로 사울왕을 통한 왕정으로 가게 된다. 사울의 폐위후 왕에 된 다윗은 그토록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다. 대신 그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 성전이 완성이 된다.

이 시기에 주요한 변화에 대해 이정현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 십계명이 담긴 법궤를 성전에 모신 일, 둘째, 기구들로 성전을 화려하게 장식한 점, 셋째, 찬송과 함께 수금, 나팔 같은 악기를 사용한 점, 넷째, 예배 참여자들이 십일조를 비롯하여 각종 예물을 드린 것. 그리고 그들의 예배 행위는 음악, 찬송, 춤, 기도, 행렬, 강화, 선조들에 대한 회상, 고백 등으로 다양화되었으며 함께 거룩한 식사를

55) Ibid., 36-7.

56) 이명희, 「현대 예배론」, 89.

나누는 순서를 가졌다.⁵⁷

또한 이 시기는 그간 성막 중심의 예배에서 성전예배로 가는 영적인 과도기이기도 하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이 지어지고 성전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중심지가 된다. 왕국시대의 예배 실천을 살펴볼 때 성전중심을 예배 제도가 확립되었으나 회중예배와 의식예배의 발전과 함께 개인 예배와 예배자의 윤리적인 삶이 소홀히 여겨질 수 있다는 양면을 보여주었다. 또 지도자의 타락은 공동체의 큰 위기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다.⁵⁸ 성막과는 다르게 훨씬 더 화려해진 성전을 통하여 드러지는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절기와 다양한 제사의 실행으로 예배 공동체로서의 삶을 지속적으로 행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으로 인해 예배 공동체는 위기를 맞게 된다. 이때 하나님은 아모스, 요엘, 아사야, 미가, 나훔, 스바냐, 하박국등 선지자들을 통하여 심판의 말씀을 다양한 환상(영상)과 계시(음성)를 통하여 경고를 하신다.

(4) 포로기 시대의 예배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우상 숭배하고 영적을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였으나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함에 소홀하고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신명기 8:19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처럼 북이스라엘은 앗수르에 의해 B.C 722년경 멸망하고, 남유다는 B.C 586년경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다.

그 후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안식일에 성전에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 회당예배로 본다. 이명희는 이렇게 주장한다:

회당예배는 유대교에 입교한 남자 장년 10명 이상이 있으면 개최할 수 있었는데,

57) 이정현, 「개혁주의 예배학」, 51.

58) Ibid., 92.

성전예배에 비하여 덜 형식적이었고, 제사장의 기능이 없고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이 중심적이었으며 평신도의 참여가 더욱 증진되고 예배 중심의 내용은 찬양과 기도 그리고 성경읽기와 해석 등이었다. 회당은 예배와 함께 율법교육과 생활교육을 위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을 때 성전예배가 회복되지만 회당예배는 계속되었고, 회당 모임은 디아스포라⁵⁹로 흩어진 유대인 사회의 큰 유산이 되었다.⁶⁰

이처럼 회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적으로 회중들이 가까이 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기도가 강조되었으며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성행하기도 했다.⁶¹ 이러한 회당 예배의 개인적, 말씀중심적, 예배자 직접 참여적인 모습은 나중에 기독교가 출발하여 성장해가는데 중요한 요람과도 같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때도 하나님은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오바댜, 학개, 스가랴, 말라기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회복, 성전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다양한 환상(영상)과 계시(음성)을 통해 말씀하셨다.

(5) 예수님 시대의 예배

예수님은 절기마다 전통적인 성전예배에 참석하시고, 시간이 될 때 회당에 들러 설교를 하시곤 하며 회당예배를 실천(눅 4:16)하신 것을 보면 당시 성전예배와 회당예배 모두를 인정하셨다. 그러면서도 때론 산이나 들판, 한적한 곳에 가서 개인적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예배의 장소와 시간에 구속받지 않으셨다. 그분의 가르침의 힘은 다양한 시정각을 활용하시고, 갖가지 비유와 은유를 통하여 생동감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셨다는데 엄청난 힘이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배가 전통과 의식에 고착화되어 형식화되는 것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가졌다. 수가성에서의 여인과의 대화에서 메시아를 만난 여인은 예수님에게 예배 장소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59) 흩어진 유대인을 총칭하는 말

60) 이명희, 「현대 예배론」, 93.

61) 이정현, 「개혁주의 예배학」, 58.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요 4:20) 이에 대해 예수님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요 4:21-24)라고 말씀하신다. 장소보다 예배하는 자의 심령과 태도가 중요함을 강조하신 것이다.

이명희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유월절 만찬, 즉 최후의 만찬은 기독교 예배의 진정한 출발이라고 하겠다. 희생 제물이 있던 성전예배의 즐기와 말씀 강론이 있는 회당예배의 즐기가 하나로 합쳐져 하나의 즐기가 된 것이 최후의 만찬 때 다락방 예배이다”라고 말한다.⁶² 이 다락방 예배는 시청각을 활용한 예배의 좋은 모델이 된다.

예수님께서 온전한 예배자로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고, 오랜 기간 동안 흘러와 예배의 정신은 사라지고 형식과 의식만이 남아있던 당시에 진정한 예배의 본을 보여주신 예배의 개혁자라고 할 수 있다.

(6) 초대교회시대의 예배

초대교회 시기는 편의상 신약성경에 기록된 교회들로부터 시작하여 주후 313년 로마제국에서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⁶³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은 승천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 받아 사역을 시작하였다. 그 출발점이 되는 것이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성령강림사건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진정한 교회가 출발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들의 모임의 장소는 성전과 회당, 그리고 가정에서 모였다. 모이는 날도 더 이상 창조를 기념하는 안식일이 아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안식 후 첫날인 주일에 모였다.

62) 이명희, 「현대 예배론」, 93.

63) Ibid., 97.

이정현은 “예배의 내용도 좀더 구체적이 되었고 다른 요소들도 가미되었다. 성경봉독, 설교, 찬송, 기도가 회당 예배의 내용이었던 반면, 사도시대의 예배에는 여기에 응답(감사와 아멘), 방언과 통역, 교제, 성례, 권징, 축도 등이 추가되었다.”라고 기록한다.⁶⁴

초대교회의 예배속에서 사용된 중요한 두가지의 상징이 있는데, 침례와 성만찬이었다. 상징이 예배에서 중요한 이유를 주승중은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시간과 장소이며, 살아있는 상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속하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재현하는 순간이기에 상징은 예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주장한다.⁶⁵

초대교회 예배의 특징에 대해 이명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예배장소가 성전과 회당에서 점점 가정 혹은 공공장소로 바뀌고, 모이는 날은 주일로 정착되었다. 둘째, 예배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초점이 맞춰지고, 복음에 대한 묵상과 선포가 이루어지고, 믿는 자에게 침례를 베풀었다. 셋째, 죄를 고백하는 순서가 있었다. 디다케 14장 1절에 보면 초대 교인들은 주의 만찬을 먹기 전에 먼저 죄를 고백했다고 한다. 넷째, 주의 만찬이 애찬과 함께 매주 행해졌으나 점점 애찬은 사라지고 주의 만찬만이 남았다. 다섯째, 방언도 행해졌는데, 방언이란 것이 정상적으로 이해력으로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없기에 바울은 한층 더 주의를 기울여 통역이 있을 때나 해도 질서있게 해야 함을 강조한다(고전 14:27-28). 그러나 예배가 혼란스러워질 경우 방언을 하지 말라고 한다. 점점 예배에서 방언을 사라지게 되었다. 여섯째, 설교의 내용은 구약의 이야기를 그리스도와 연관지어 선포를 하였고, 그 하나님이지금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일곱째, 예배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 여러 악기를 사용하고, 성시와 성가를 유대교에서 전수받아 사용하였는데, 경우에 따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만들어 사용하기도 했다. 여덟째, “예수는 주님이시다”같은 신앙고백, “마라타나”, “아멘, “할렐루야” 같은 신앙적 경탄구, 축복선언들이 사용되었다. 아홉째, 봉헌이 드러졌고, 예배 순서는 유동적이었다. 열째, 예배자들은 능동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 인도도 소수에게 한정짓지 않고 다수가 참여하여 역할을 분담했다.⁶⁶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승한 초대교회는 모이기에 힘쓰고 교제와 주의 만찬등을 실행함으로 이전에 비해 구체적이고 개인적이며 체험적인 예배를 드리게 된다. 인해 능력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힘든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다. 이

64) 이정현, 「개혁주의 예배학」, 69.

65) 주승중, “예배에서 상징의 의미.” 「교육교회」(서울: 장신대 기독교교육연구원, 2004. 3월 통권 322호), 4.

66) 이명희, 「현대 예배론」, 99-100.

초대교회에서 사용한 상징의 대표적인 것이 이처럼 침례와 성만찬이었다.

2) 예배의 역사적 배경

(1) 중세교회의 예배

여기서 중세라 함은 313년 로마에 의해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 종교개혁전까지의 기간으로 본다. 그간 로마의 핍박속에서 카타콤 같은 곳에서 은밀하게 숨어서 예배를 드리던 기독교인들이 드디어 햇볕을 보게 되었다. 로마의 기독교 공인으로 인해 기독교는 대형화되었고, 조직화되었다. 380년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시작된 부작용에 대해서 정장복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선적으로 예배 현장에 신비적 요소와 미신적 형태들이 발생되었다. 그리고 인위적인 종교한 형식들의 수많은 기도문을 비롯하여 교창을 양산하게 되었다. 특히 주님의 만찬은 미사에 있어 극적인 신비의 현상으로 그릇 이해되는 결과를 가져와 구약의 제사 제도로 되돌아가는 느낌마저 갖게 한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마리아 숭배를 비롯하여 수 많은 성자 및 유물 숭배 사상이 나타나 초대교회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었던 상태로까지 비약해 버렸다고 말한다.⁶⁷

이런 잘못된 신학과 예배의식으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1054년 분열하였다. 동방교회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존속하였고, 서방교회는 로마황제의 지배하에 있게 되었다. 특히 서방교회는 16세기경에 극도로 변질되어 성찬에 화채설을 주장하고, 성경과 예전을 모두 라틴어로 기록되고 진행하여 예배자를 예배의 방관자로 만들고, 나중엔 면죄부까지 파는 타락으로 새로운 개혁이 생겨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이시대에 등장한 멀티미디어적 요소로 글을 모르는 회중들에게 스테인드글라스의 그림을 통해 성경의 내용을 전해주거나 도덕적 교훈이 담긴 연극과 여타 시각적인 기술을 포함한 시각 매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⁶⁸

67) 정장복. 「예배학 개론」, 61-2.

68) Quentin J. Schultze,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하이테크예배」, 박성창 역 (서울: IVP, 2006), 26.

(2) 종교개혁시대의 예배

중세를 거치면서 회중들은 이해되지 않는 언어로 드리는 예배를 인한 하나님 말씀의 부재, 미신적인 신비를 강조한 성찬예전,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자리에 교황이라는 한 인간이 앉아서 행하는 그릇된 행동들로 인해 개혁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이 종교개혁은 3 부류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루터(Martin Luther)는 카톨릭교회의 개혁이 목적이었지 가톨릭교회에서 분열할 생각은 없었다. 정장복의 책에 보면 그 입장을 알 수 있는 1530년경 찰스 5세에게 바치기 위해 준비하였던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 24장은 “우리들이 미사를 폐지한 것으로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솔직히 미사는 우리 가운데 보다 더 경건과 열정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미사의 공적인 집행에는 아무런 변동은 없었습니다. 다만 라틴어로 된 응답송에 우리의 독일어 찬송을 첨가하여 불렀을 뿐입니다. 이것은 오직 교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킬 목적이었을 뿐입니다”⁶⁹

이런 예배의식에 대한 보수적인 생각이 바로 루터의 생각이었고, 실제로 이런 루터의 사상을 알 수 있는 것이 현재 루터교나 성공회의 예배의 모습은 로마 가톨릭의 예전과 그리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둘째, 쾰링글리(Huldrych Zwingli), 칼빈(John Calvin), 낙스(John Knox) 같은 개혁자들은 오늘날 장로교회를 이루게 한 개혁교회의 탄생을 가져오게 했다. 이들은 로마카톨릭의 미신과도 같은 예배가 아닌 성경에 입각한 초기 기독교예배의 복귀를 강하게 부르짖었다.⁷⁰ 쾰링글리 같은 경우는 스위스 취리히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로마 가톨릭의 미사를 개혁하여 새로운 예배를 만들었다. 그는 설교중심의 예배와 성찬은 일년에 4회만 하게하고, 주의 만찬의 의미가 화채설이 아닌 기념설로 보며, 당시 로마카톨릭이 사용하던 장엄한 음악이나 오르간 같은

69) Ibid., 63.

70) Ibid., 64.

약기나 성가대등도 세우지 않았다. 칼빈은 제네바를 중심으로 활동했고, 그는 교회의 개혁을 위해 새로운 교회법과 신앙고백 그리고 신앙문답서를 제정하였고, 예배 모범서를 만들어 교회의 예배를 위한 새로운 형식과 순서를 제시했다.⁷¹ 그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여 성경말씀을 중심으로 설교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고 초대교회 예배를 공적 예배의 기준으로 삼았다. 주의 만찬에 대해서도 쾰빙글리의 기념설에 동조했지만, 성찬시 성령이 임재한다는 영적 임재설을 주장했다.

셋째, 재침례교도와 같은 급진적인 개혁자들은 루터, 쾰빙글리, 칼빈처럼 국가와 관련된 개혁을 거부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강조하는 교회를 추구했다. 전통적인 예배의 형식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이 중시되는 설교와 성경공부에 집중하였다. 특히 유아세례와 같은 것은 부정하고 믿는 자의 침례를 주장했다.

여기 개혁자들은 각자가 생각하는 것과 추구하는 것은 차이가 있었지만, 당시 로마 카톨릭의 타락한 교회에 대한 반기를 든 것과 성경을 회중들 가까이 가게 하였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추구하며 설교중심의 예배를 추구의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개혁을 이루었다.

(3) 청교도와 그 이후의 예배

새로운 예배의 개혁을 부르짖었지만, 영국을 비롯한 유럽 여러 나라들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다. 이에 청교도란 말은 전통교회가 중시하는 제반 예배 의식과 교회의 법령보다도 성경의 가르침과 진정한 예배의 실천이 사람들을 회개와 교화로 이끄는 데 더욱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호칭이다.⁷² 이들은 세속을 경시했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며 금욕적인 영성을 추구했다. 이들은 특히 성경을 강조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생활에 실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주일을 철저히 지키며, 틀에 짜져 있는 예배가 아닌 자유로운 예배를 추구했다.

71) 이명희, 「현대 예배론」, 106.

72) Ibid., 110.

영국에서 1560년에서 1660년 사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다가, 영국 국교회의 핍박으로 17세기초반 미국으로 이주하며 미국이라는 새로운 신대륙에서 정착하며 진정한 개혁의 삶을 살게 되었다.

특별히 1800년대 대각성 운동으로 말미암아 복음주의적 시학의 태동과 함께 탈의식적 예배가 각광을 받게 되었다. 웨슬리의 영향하에 있던 감리교는 복음적인 열심과 영적 능력으로 예배 형식에 구애됨 없는 발전을 이루었다. 미국의 루터교도 전통적인 예배의식을 강조하며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설교의 중요성을 잊지 않았다. 미국의 장로교 역시 탈의식적인 예배와 복음주의적인 말씀 위주의 예배에 집중했다. 특히 회중교회나 침례교회는 성직자의 문제를 비롯하여 교리의 문제, 그리고 의식의 문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형태 속에 머물며 말씀 위주의 선포에만 관심을 갖었다.⁷³

이처럼 청교도 이후 기독교 예배는 탈의식적이고, 말씀 중심이라는 복음적인 특성을 갖게 되었다. 또한 부흥기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 부흥운동이 강조하다 보니 예배의 기본 요소 등에 대해 주의를 덜 기울이게 되었다.

(4) 현대 예배

19세기 후반 미국 내 교회들에서 예배에 대한 새로운 운동이 일어난다. 예배의 예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종교개혁자들이 사용하던 예식서가 발간되는 등 예배 회복운동이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독일 교회에서도 의식 회복운동을 가져왔고, 미국 내 교회에서도 거의 모든 교단에서 예식서를 개정하며, 개혁자들이 실행하려 했던 의식과 초대교회들이 갖고 있던 예배의 기본 질서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가톨릭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는데, 제2 바티칸 공의회에서 지금껏 사용하던 미사에서의 라틴어 사용을 과감히 버리고 자국어로 미사를 드리도록 했다. 이로 인해 미사에 새로운 바람이 일어났고, 개신교에서도 이런 영향으로

73) 정장복, 「예배학 개론」, 66.

예배의 참 의미를 발견하는데 촉진제의 역할을 하였다.⁷⁴ 이로 인해 예배당 안에 구조의 변화를 가져와 성찬상과 십자가가 단 위에 설치되는 등 그 동안 잊고 있던 신앙의 상징들이 교회에 등장하게 된다. 예배의 순서도 개혁자들의 주장대로 부름, 죄의 고백, 용서의 선언과 같은 순서가 들어가 더욱 다양한 의식을 갖게 되었고, 목회자의 역할도 단순히 설교자만이 아닌 의식 집례자의 역할이 강조되게 되었다. 목회자의 복장도 변화가 있어 성직자 셔츠를 입기도 하였고, 강단에서는 가운 또는 교회력에 맞는 스톨을 착용하기도 하였다.

예배의 예전을 되찾으려는 현대교회들의 경향은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존엄성을 인식시켜 주었으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행하는 예배의 의미 속에 구체화된 예배 회복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현대교회의 예배의 변화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개혁 교회 속에 확산되어 가면서 단순히 듣는 예배가 아닌 드리는 예배도 겸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함께 이를 힘써 추구하였다.⁷⁵

그리고 현대 예배에서 중요한 변화는 찬양과 기도가 강해지고, 말씀을 선포로 끝나지 않고 적용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이다. 특히 기술적인 것을 예배에 도입하여 찬양에 밴드나 오케스트라등 다양한 악기를 동원하고, 다양한 영상 도구를 사용하여 그동안 듣기만 하던 예배에서 보고 더불어 함께 소통하는 예배가 가능하게 되었다.

임태중은 그중에 특히 현대 기독교의 현실에서 멀티미디어의 등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말했다:

오늘날 교회와 종교 일반에서 생각하고 있듯이, 이는 목회와 선교활동을 확장하는 데 효과적인 충성스러운 시너이기 전에, 기존의 일방적인 스타일의 제반 사고와 행위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전령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왜냐하면 멀티미디어는 쌍방향적 의사전달을 가능케 하는 실질적인 기술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멀티미디어가 현대 교회에 주는 중요한 메세지이다. 인류는 바로 이와 같은 환경이 실현될 날을 기다려 왔다고 보아야 한다.⁷⁶

74) Ibid., 67-8.

75) 정장복. 「예배학 개론」, 69.

76) 임태중. 「예배의 개혁, 멀티미디어 예배」, 175.

교회는 그동안 지나치게 문자에 의존해 오던 것이 사실이다. 성경 자체도 교회사의 예배의 변천 과정속에서도 시청각적인 면을 많이 활용하던 것에 비해 너무 문자나 글에 지나치게 의존해 왔었다. 그러던 교회 예배속에 차트를 통해 복음성가를 활용하거나 1980년대 미디어 시대를 맞아 O.H.P나 슬라이더를 활용하는 것은 엄청난 변화였다. 장호준은 다음과 같이 교회 안의 멀티미디어 사용에 대해 말했다:

언제부턴가 예배당 내부에 프로젝터와 스크린이 자리잡기 시작했다. 한국교회의 지난 날을 생각해보면 80년대부터 찬양예배때 사용했었던 오버헤드프로젝터(OHP)가 그 출발점이다. 찬송가에 안 실려있는 예배 찬양곡들이 교회 내에서 사용되게 되면서, 나름 복음성가라는 이름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투명필름에 유성펜으로 쓰거나 복사해서 사용하게 된 것이 소위 교회 미디어 장비의 시작이었다. 20년이 지난 후에도 대부분의 교회에서 같은 방식으로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다. 단지 컴퓨터를 사용하고 프로젝터에서 풀컬러의 화면과 큰 글자들, 그리고 필요한 그림과 도표까지 나오면서 목회를 돕고 있다.⁷⁷

임태중은 멀티미디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이해한다:

현대는 영상매체의 멀티미디어 시대이다. 영상문화의 시대에 회중은 생각이나 개념을 이미지나 영상을 통해 이해하는데 익숙해져 있다. 즉 메시지가 ‘보는 형상’을 통하여 전달될 때 쉽게 이해한다. 또한 영상시대의 회중은 정보를 연속적으로 받지 않고 ‘충격과 감각’에 의해 즉 메시지를 시각적 또는 청각적인 감성의 이미지에 의하여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합리적이며 논리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잘 조작된 설교보다는 충격과 깊은 인상을 남겨주는 이미지가 있는 설교가 더 감동을 주고 가슴을 울린다.⁷⁸

퀸틴 쉘츠(Quentin J. Schultze)는 예배가 항상 멀티미디어적인데 이는 인간이 만들어 낸 이러저러한 발명품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다감각적인 피조물이기때문이라고 했다.⁷⁹ 그리고 밥

77) 장호준, 「테크니컬 미니스트리 핸드북」 (서울: 미디어북스, 2012), 32.

78) 임태중, 「예배의 개혁, 멀티미디어 예배」, 148-9

79) Quentin J. Schultze,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하이테크예배」, 40.

로글리엔(Bob Rognlien)은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예배에서 좀 더 많은 시각적 이미지들을 활용할수록 회중은 예배를 더 깊이 체험할 것이다. 예화나 인용구를 찾는 시간에 좀 더 강력한 시각 자료를 인터넷 등에서 찾는다면 설교의 효과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에서 찬양 가사나 설교 주제를 보여주기 위해 비디어 프로젝션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말씀 전달을 넘어서서 예술사진이나 특정 주제를 담은 미디어 영상등을 창조적으로 활용한다면 예배를 더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⁸⁰

성경의 역사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다양한 방법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다양하게 예배할 수 있다. 예배의 변화를 위해 여러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최신것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로글리엔의 지적처럼 “진정한 가치는 최신 유행에 얼마나 민감한가에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성경적 예배를 드리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에 따라 가치가 결정된다.”⁸¹

앞에서 보았듯이 실제로 하나님은 시대마다 상황마다 그리고 개인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예배를 요구하셨다. 그건 예배자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다 온전한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였다. 때론 자연 만물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때론 단순히 말이 아닌 여러가지 환상과 표적과 기사등을 활용하신 것은 인간과의 명확한 소통을 위한 것이었다.

3) 예배의 신학적 배경

예배자는 예배를 이해하기 위해 신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신학이 없으면 예배는 자칫 감상주의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으며, 예배가 없는 신학 또한 화석 같이 무미건조하고 굳어버릴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와 신학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⁸² 실제로 예배는 하나님과

80) Bob Rognlien, 「예배는 체험이다」, 김동규 역 (서울: 예수전도단, 2007), 85.

81) Ibid., 98.

82) 이명희, 「현대 예배론」, 416.

의식적으로 사귀는 경험이고 신학은 그 경험의 뜻을 설명하려는 노력이다.⁸³

(1)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다. 족장들의 제사를 통한 예배가 그러했고, 특히 모세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계명과 각종 제사의 규례를 통하여 보여준 예배가 그러하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예배의 역사이다. 그리고 이 예배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역사이다.⁸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범죄하여 실패한 예배자가 되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호 6:6)고 하시면서 가증한 재물과 제사를 원치않고 진실된 예배를 원하심을 말씀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자기와 더불어 교제할 사람을 창조하셨기에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은 창조하신 인간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인격적이며 영적인 하나님 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의 모든 속성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초월적이고 높으신 분 이시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사 55:8) 또한 그 하나님은 편재하신 분이시다. 항상 사람에게 임재하시는 것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분은 사랑을 드러내 보이시며 인간을 향한 관심을 보이신다. 바울은 말하길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행 17:27-28)고 한다. 그리고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은 사람의 예배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신다.

83) Franklin M. Segler, 「예배학 원론」, 정진환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79), 74.

84) 정일웅, 「기독교 예배학 개론」, (서울: 범지출판사, 2005), 144.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롬 8:30-31)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용기와 힘이 나온다.

신앙의 중요한 핵심은 인간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이다. 우리가 그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것이다.⁸⁵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으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 받은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를 기다리신다. 그렇기에 우리의 예배의 근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2)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교회 예배는 그리스도 중심적 예배가 되어야 한다. 구약의 제사를 통한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와 죄악으로 인해 실패하였다. 예배의 형식은 있었으나 정신이 사라진 예배는 더 이상 의미 없는 종교행위에 불과하였다. 이런 실패한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제물이 되어 완전한 제사, 완벽한 예배를 완성하는 일이었다.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그분은 하나님이기에 죄가 없으시다. 그런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들을 위해 친히 성육신 하셨다는 놀라운 사실(빌 2:7)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 친해 제물이 되셔서 죽으시고 삼 일만에 부활하셔서 인간과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주셨다는 것(고후 5:17), 그리고 승천하셔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신 일(행 1:4-5)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희생이고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였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처럼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어 죽었을 뿐 아니라 자신을 예배하는

85) Franklin M. Segler, 「예배학 원론」, 74-7.

교회에 구주로서, 교회의 머리로서 역사하고 계신다. 바울은 말하길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빌 2:9-11)고 말하고 있다. 예수님의 이런 사역을 정장복은 “예수님의 사역은 간단히 말해서 용서의 복음이요, 대속의 메세지요, 세상의 희망이다. 우리가 아들의 사역 안에서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성령에 의해서 구속사역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아버지를 예배한다는 점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이다.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사역은 기독교 예배의 핵심을 이룬다.”라고 하였다.

(3) 예배의 원동력인 성령

하나님께서서는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시키시고, 오순절 이후 주님의 재림까지 성령님을 통하여 완성시키고 계신다. 이 성령님의 역사는 이 천 년의 교회 역사가운데 계속적으로 동참해주시고 주관적으로 이끌어 오셨다. 정장복은 빌헬름 한(Wilhelm Hahn)의 말을 인용해서 “예배 가운데서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사역을 깨닫게 하고, 그 인간들로 현재적인 응답을 하도록 역사하는 것이 성령님이다”⁸⁶라고 말한다. 이 성령은 인격이시다.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사모할 때 가장 가까이 계신 성령은 언제나 활동하셔서 예배하는 자를 변화를 주시고, 각자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신다. 그리하여 주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영원히 우리를 도우신다.

한국적인 상황속에서 특히 건전한 성령론은 중요하다. 성령의 감동이라는 이름 밑에 무질서함과 신학적인 의미의 결여를 노출시킨 모습을 한국교회가 무수히 경험하였다.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의 질서를 형성시켜주는 동시에 예배 안에서 자유로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합당한

86) Wilhelm Hahn, *Worship and Congregation*, trans., Geoffrey Buswell (Richmond: John Knox Press, 1963), 58, 정장복. 「예배학 개론」, 26에서 재인용.

시간에 응답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초대 교회의 예배 역시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며 말씀을 전파하고 특별한 은사를 함께 나누었음을 알 수 있다.⁸⁷

(4) 영원한 말씀인 성경

성경은 예배를 위한 객관적인 내용을 제공해주고, 진리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그분의 깊은 뜻을 성령님을 통해 성경으로 사람들에게 보이신다. 이 성경으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인간의 타락, 구원의 계획, 그리고 실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 등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진다. 이 성경은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그 근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증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야기와 그 구원을 통해 이루어진 교회의 모든 예배, 복음 전도, 모든 사역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성경은 성령님의 역할이 커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딤후 3:16-17).

(5) 교회의 중요 사역으로의 예배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옥한흠은 “지상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한 세상으로 보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했다.⁸⁸ 이 천년 전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임받아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예배, 교육, 훈련으로 참된 제자를 만들어서 세상으로 보내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논한 것이다. 바울은 이런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한다(고전 12:27). 머리인 그리스도와 서로 연락되어 있는 다양한 몸의 지체들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예배인데, 이 예배를 통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생명력을 얻게 된다. 그래서

87) Ibid., 27.

88) 옥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두란노, 1998), 78.

지글리는 “끊임없이 예배하며 그에게 가까이 감으로서만이 생명이 머물 수 있다”고 말하고⁸⁹, 교회의 모든 활동 중에서 먼저 예배가 가장 중요함을 말한다.

3. 멀티미디어에 대한 이해

21세기를 가리켜 멀티미디어의 시대라고 한다.⁹⁰ 이젠 우리의 삶에 쉽게 접하게 되는 멀티미디어를 예배에 활용하여 교인들로 감성적이고 더 집중도 있는 예배를 드리게 함으로 예배의 갱신에 일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멀티미디어의 개념정리를 하고, 멀티미디어 활용의 역사적인 배경과 예배에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1) 멀티미디어의 개념

멀티미디어의 개념은 다양해서 한가지로 정의하기가 어려운 문제이다. 미디어의 사전적 의미는 “여러 가지 매체”, 또는 “다중 매체”이다. 멀티미디어(Multimedia)란 멀티(Multi)와 미디어(Media)의 합성어로 다중매체 혹은 복합매체란 뜻이다.⁹¹

또 학자들마다 말하는 것이 다양해서 에그뉴(Agnew)는 ‘멀티미디어’는 여러 매체를 단순히 통합하여 활용하는 의미이며, ‘멀티미디어’는 컴퓨터에 의해 여러 가지 매체를 포함하는 발전된 단계의 개념이라고 했다.⁹² 가예스키(Gayeski)는 “멀티미디어란 시각(Textual, Graphic)과 청각적인 정보망(Information Network)을 만들고, 저장하고, 발송하고, 재생해내는, 컴퓨터로 유도되는 상호 작용적인 통신체계”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⁹³

멀티미디어라는 말이 처음 사용된 것은 1986년 마이크로 소프트(Microsoft)의

89) Franklin M. Segler, 「예배학 원론」, 91.

90) 이만재, 이상선, 「멀티미디어 교과서」 (서울: 안그래픽스, 2005), 2.

91) 임삼규, 「멀티미디어 시대의 예배, 멀티미디어 시대의 설교」 (서울: 도서출판 정금, 2004), 17.

92) 권성호, 「교육공학의 탐구」 (서울: 양서원, 2002), 246.

93) Ibid., 246.

세미나에서였다. 여기서 ‘멀티’의 의미는 상호작용적(Interactive)이라는 뜻으로 쓰였는데, 멀티미디어의 핵심적 특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단어에 들어있다. 즉 멀티미디어의 출현은 양방향의 대화형 전달방식을 실현시킴으로써 정보는 받는 쪽이 정보는 보내는 것까지 하게 된 변화를 불러왔고, 이로써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형태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⁹⁴

이전에 데이터나 음성 같은 단일 미디어만을 사용하였는데, 이젠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자, 기호, 음성, 음향, 동영상, 정지영상 등 다중 매체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다. 어원상 멀티(Multi)는 다중이라는 의미이고 미디어(Media)는 매체라는 뜻이다. 즉 멀티미디어란 기술적으로 보면 종래의 단일 미디어에서 처리하고 사용하였던 문자, 기호 또는 음성의 세계에 정지영상, 동영상을 도입하여 이를 기존의 미디어와 동시에 혼합하여 사용토록 하는 기술을 말한다.⁹⁵

이근수는 그의 글에서 멀티미디어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서로 다른 형식의 매체들이 컴퓨터(Computer)를 통해 하나의 방식으로 통합된 것을 멀티미디어(Multimedia)라고 부른다. 즉 두 가지 이상의 매체가 하나의 시스템(System)에서 동시에 사용되는 환경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매체의 기술적 결합은 표현의 다양성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제는 컴퓨터에 의한 결합된 매체들을 통해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없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표현할 수 있다. 의사전달에 어려움이 있었던 의미와 상징, 그리고 개념과 상상 등을 전달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졌다. 그리고 문자와 음향처럼 구체적인 내용들도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목회에 있어서도 중요한 발전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⁹⁶

멀티미디어란 텍스트(Text), 그래픽(Graphic), 오디오(Audio), 이미지(Image), 애니메이션(Animation), 비디오(Video)등의 다양한 표현매체를 단일의 컴퓨터 플랫폼 상에서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 사용자와 다양하게 상호작용하는 면을 지니고 있으며, 멀티미디어는

94) 임태중, 「예배의 개혁, 멀티미디어 예배」, 171.

95) Ibid., 71.

96) 이근수, 「현대목회와 멀티미디어」 「기독교 교육연구」 (서울: 총신대부설기독교교육연구소, 1997, 8권 1집) 143-4

창조하고 저장하고 전달하며 문자검색, 그래픽, 그리고 정보의 청각적 네트워크를 하는 컴퓨터에 의한 상호작용적 의사소통체계라고 임삼규는 말하고 있다.

김진년은 넓은 의미에서 멀티미디어란 인간의 의사소통의 여러 수단들, 즉 음성, 영상, 그림, 문자 등을 통합시켜주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고, 좁은 의미에서 멀티미디어는 음성, 영상, 문자 등의 다양한 미디어들을 컴퓨터라는 하나의 매체로 통합하여 상호작용성 즉 대화성 등의 총체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한다.⁹⁷

그리고 이 멀티미디어는 특징은 다음의 4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첫째, 디지털화(Digitalization)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처리하는 정보는 아날로그(Analog) 정보이다. 아날로그 정보는 자연상태의 정보이다. 이것은 가공이 쉽지 않다. 허나 이것을 컴퓨터에서 정보를 처리하면서 '1', '0'으로 표현되는 디지털 정보로 변환하면 정보의 전달뿐 아니라 가공, 처리, 축적등 자유롭게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행동을 지원하게 된다. 둘째, 통합성(Integration)이다. 종래에는 문자, 음성, 그림, 영상이 각기 다른 전용장치로만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멀티미디어는 하나의 소프트웨어에 다양한 프로그램, 하나의 기계로 네가지 종류의 정보를 동시에 기억하고 조작할 수 있다. 그래서 각 미디어간의 구분이 허물어져 결국은 하나로 융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가 된다. 셋째, 쌍방향성(Interactivity)이다. 쌍방향성은 화면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날로그 방식의 과거에는 방송국에서 일방적으로 보내주는 전파는 통해서만 정보를 받아볼 수 있었다. 허나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영화를 보는 도중에 주연배우의 프로필을 본다든지 하는 작업이 가능해졌다. 이처럼 멀티미디어란 기존 미디어와는 달리 디지털화된 다양한 정보를 표시, 전송할 때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성을 특징으로 한다. 넷째, 네트워크(Network)화이다. 컴퓨터 화면을 보고 서로 대화하거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의 연결이 필요하다. 단순히 전화선을 통한 망이 아니라 대용량의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통신망을 통해 서로 연결이 가능하다.⁹⁸

박한수는 보다 포괄적인 입장에서 멀티미디어를 볼 때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하였다:

첫째, 하드웨어로서의 멀티미디어이다. 이는 멀티미디어 시스템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즉, 멀티미디어 형태를 가능하게 만드는 물리적장치를 의미한다. 둘째, 정보의 표현 형태로서의 멀티미디어가 있다. 즉 소프트웨어로서의 멀티미디어를 의미한다. 셋째로 정보의 전송으로서의 멀티미디어가 있다. 다양한 정보를 실어 나르는 전송망 등의 통합된 형태를 말한다.⁹⁹

97) 김진년, 「크리스찬, 인터넷, 멀티미디어」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6), 174

98) Ibid., 174-6.

99) 박한수, "현대에배를 위한 멀티미디어 영상에배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연합신학대학원, 2007), 13-4

멀티미디어의 특성을 종합해 볼 때 멀티미디어란 컴퓨터, 통신, 가전제품의 기능 등이 하나의 기기로 통합되는 특징을 갖는다. 그리고 이 기기를 통하여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디지털 신호로 가공, 저장, 편집하여 전송하는 체계를 가진 종합적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¹⁰⁰

중요한 것은 이 멀티미디어가 하나의 기술적인 도구가 아닌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교회에서도 이런 의미에서 멀티미디어를 예배에 활용하여 기독교 진리를 더욱 다양하게 표현함으로써 문자와 언어만의 한계를 극복하여 매우 효과적인 사역의 도구로 써야 할 것이다.

2) 멀티미디어의 활용의 역사적 배경

미디어란 말은 우리에게 이미 익숙해져 있다. 영화, 텔레비전, 책, 신문, 라디오 등의 매체이다. 이 미디어를 시대별로 구분할 김진년은 자신의 글에서 주장하기를 “1960년대 이전의 활자미디어시대에 신문이나 잡지, 서적 등에 활자로 정보를 기록하고 저장하였다.

1970년대까지는 전파미디어를 통하여 음성정보를 시간과 거리의 개념을 초월하여 전달하는 전파미디어 시대였다. 그리고 1980년대는 텔레비전이나 영화 같이 음성정보와 영상정보를 함께 전달하는 영상미디어 시대였다. 80년대 후반부터는 기존의 미디어 형태를 개조하거나 복합하여 새로운 기능을 하는 뉴미디어가 등장하였다. 그리고 멀티미디어는 이 모든 것을 통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미디어였다.”¹⁰¹

주승중은 이런 시대를 가리켜 시각적인 시대라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950년대 라디오에 이어 TV가 등장한 이후, TV는 지난 40년 동안 대중의 커뮤니케이션의 지배적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오늘 현대인들은 모두 TV라는 영상매체에 길들여져 있다. 즉 현대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독서하고, 신문보고, 잡지를 읽은 시간보다 TV와 같은 영상 매체 앞에서 지내는 시간이 훨씬 많다. 그 결과 TV등의 영상매체는 현대인의 커뮤니케이션을 아주 다른 상황에 놓이게 만들었다. TV등의 영상매체는 Seeing과 Hearing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매체이다. 그러므로 오늘

100) Ibid., 13-4

101) 김진년, 「크리스찬, 인터넷, 멀티미디어」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6), 171-2.

현대인들은 인쇄된 지면을 통하여 읽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보를 얻기보다는 스크린에 보여지는 그림(image)을 보고 소리를 들음으로써 즉각적인 의미를 받아들이고 있다. 즉 현대인들은 직관과 감성, 그리고 이미지와 그림, 이야기 등보다 많은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문자 시대 이후의 회중을 한마디로 특징하여 주는 말이 있는데 바로 이세대가 ‘시각적인 세대’(Visual Generation)라는 것이다.¹⁰²

임삼규는 이것을 5가지 세대로 구분하였다:

첫째는 활자미디어시대로 1960년대 이전을 말한다. 그 내용은 신문, 잡지, 서적 등의 활자 정보이다. 이때는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선택할 수 있다. 둘째는 전파미디어시대로 1960~1970년대를 말한다. 그 내용은 전화, 라디오 등 시간과 거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시작한 음성 정보시대이다. 이때의 특징은 정보의 빠른 전달과 보급의 필요성에 따른 요구로서의 발전이다. 셋째는 영상미디어시대로 1980년대를 말한다. 그 내용은 영화, TV 등 음성과 영상을 통합되는 시대이다. 이때 TV는 많은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지만, 그 영향력은 대단했다. 넷째는 뉴 미디어시대로 1980년대 이후를 말한다. 그 내용은 기존 미디어들에 몇 가지 기능을 첨가한 시대로 멀티미디어와 같은 시대 태동하게 된다. 특히 새로운 통신기술을 결합시킴으로 정보의 수집, 처리, 분배, 이용이 가능케 되었다. 다섯째는 멀티미디어시대로 뉴미디어시대 이후를 말한다. 기존의 미디어와의 근본적인 차이는 대화성이다. 이시대 특징은 디지털압축기술, 고속전송매체를 통한 사실감 있는 전송매체이다.¹⁰³

이처럼 단순 구두와 활자로 시작하여 음성, 영상등 미디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합하는 멀티미디어까지의 발전은 가히 놀랄만한 변화였다. 이런 변화의 내면에는 더 많은 것을 알고, 나누고,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구와 거기에 발맞춰 과학의 발전이 더해졌기에 가능하였다. 과거 단순히 몇몇 전문가만의 전유물이던 컴퓨터가 이제 모든 사람의 삶에 깊숙이 파고들었고, 만화영화에서만 보던 로봇과 인공지능의 수준도 엄청나게 발전해서 곧 우리가 상상만 하던 일들이 현실로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개인적 삶에서도 이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 폰은 가히 혁명적이어서 다양한 정보를 쉽게 얻고, 또 다양한 사람과 SNS를 통한 소통이 가능한 세상이 되어 버렸다.

102) 주승중, 「영상세대를 향해 이렇게 설교하라」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4), 14-5.

103) 임삼규, 「멀티미디어 시대의 예배, 멀티미디어 시대의 설교」 (서울: 도서출판 정금, 2004), 19-20.

3) 멀티미디어 활용의 신학적 고찰

앞에서 논하였듯이 멀티미디어를 예배에 활용하기 시작한 것은 20~30년이 채 되지 않는다. 특히 한국교회에서 멀티미디어를 활용하기 시작한 것은 90년대가 들어서이다. 너나 없이 멀티미디어 장비를 구입하고, 아무런 고민없이 멀티미디어를 예배속에 활용하다 보니, 당장은 편안함이라는 장점은 있지만, 그로 인해 파상되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퀸틴 슐츠(Quentin J. Schultze)는 교회들이 예배에서 기술을 도입하는 문제 즉, 예배에서 기술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하여 네가지의 선택안을 소개하는데;

첫째, 기술을 거부하는 것이다. 교회들이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먼저 많은 비용이 드는 문제와 프리젠테이션 기술이 예배를 오락으로 변질시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여 거부한다. 둘째, 기술을 예배에 도입, 채택을 하는 것이다. 사회에서 기술을 사용하는 것처럼 새로운 기술을 무비판적, 무반성적으로 사용하여 프리젠테이션을 사용하다보니 '정보전달'같은 강의중심의 가르침을 점점 강조하는 예배 스타일로 이끌 수 있다. 셋째는 새로운 기술을 예배의 목적에 맞도록 현명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예전적 목적을 위해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잘 사용하기를 위해 고민하면서 사용하는 것이다. 넷째는 자율성을 부여하여 창조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¹⁰⁴

그리고 미국 교회가 예배에서 미디어를 활용하는 이유에 대한 설문결과 “교인들에게 더 잘 다가가기 위해(84%), 청소년들에게 더 잘 다가가기 위해(77%), 불신자들의 감수성에 부합하려고(66%), 기술적으로 은사가 있는 교인이 있기 때문에(59%), 책을 안보아도 되므로(61%), 예배에 예술을 도입하기 위해(59%),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38%), 다른 교회들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33%)”란 통계를 말하고 있다.¹⁰⁵ 그리고 구체적으로 교회들이 예배에서 프리젠테이션 사용을 정당화할 때 주로 드는 이유 8가지를 말하고 있다;

첫째, 우리는 젊은이들이 예배에 계속 흥미를 가지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둘째, 회중 찬양의 질을 끌어올리려 할 때라는 것이다. 셋째, 문화에 발맞추어 변화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인들을 다른 교회에 빼앗긴다는 것이다. 넷째, 좀 더 강력하게 예배 경험을 창출해야 한다. 다섯째, 우리는 방문객들과 교인들에게 우리 교회가 일류 교회라는 것을 알려주려 한다. 여섯째,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교회의 양적 성장을 이룰 수

104) Quentin J. Schultze,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하이테크예배」.박성창 역 (서울: IVP, 2006), 59-62.

105) Ibid., 23.

없다는 것이다. 일곱째, 프리젠테이션 기술을 이용해 예배 공간을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덟째, 새로운 기술들은 청각 및 시각 장애가 있는 교인들을 섬기는 수단을 제공한다¹⁰⁶.

이 다양한 이유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지극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물론 미국과 한국의 상황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의 경우도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더 기쁘게 예배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더 드러나야 한다. 허나 이런 고민 없이 단순히 사람의 편의를 위한 멀티미디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다보면 실체는 사라져버리고 산만하고 어수선한 분위기속에 예배의 핵심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나오게 된다.

자끄 엘뤼(Jacques Ellul)은 “기술은 자율적이다란 과격적인 주장을 한다. 기술의 자율성을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기술 발전의 속도와 규모가 너무 커져서 사람이 주체적인 결정이 별로 의미가 없어졌다는 뜻이다.”¹⁰⁷ 엘뤼는 인간이 기술을 통제하는 것이 아닌, 나중에 가면 기술에 의해 인간이 통제되는 주객전도의 극단적인 상황을 우려한 것이다. 그런데 만약 예배속에 멀티미디어의 활용할 때 멀티미디어 기술이 예배를 돕는 단순한 도구가 되어야 하는데, 좀 더 다양하고 자극적인 영상이나 음악, 음향등을 가감없이 사용하여 나중에는 더 강력한 것만을 원하게 되고 공허한 화려함만 남고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된다면 이것도 멀티미디어라는 기술이 주는 폐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숄츠(Quentin J. Schultze)도 이러한 폐해를 우려하면서도 “나는 예배에서 모든 프리젠테이션 기술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예배는 대단한 기술이 아닐지라도 항상 인간의 기술과 테크닉에 어느 정도 의존한다. 예배자들은 오랫동안 원자재를 가지고 성배, 스테인드글라스, 초, 향, 십자가와 같은 예배 용품들을 만들어 왔다. 예배는

106) Ibid., 71-82.

107) 손화철, 「토플러 & 엘뤼 현대 기술의 빛과 그림자」 (서울: 김영사, 2006), 86.

반드시 예전적이며 동시에 기술적인 것이다.”고 주장한다.¹⁰⁸ 그러면서 예배 예전속에 기술사용에 대해 특히 지혜를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오늘날 예배를 기획하기 위해서는 프리젠테이션 기술을 거룩한 찬양에 현명하게 적용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 과정에서 전통과 성경을 존중해야 하며, 창의성과 자질, 그리고 진실한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는 예배에서 새로운 기술의 가치를 과대 평가해서는 안되지만, 그 기술의 잠재력을 과고 평가해서도 안된다. 기술적으로, 예술적으로, 예전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예전을 기획하고 시행할 때 모두 함께 연합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상상력과 호기심, 능력 그리고 우리의 전 존재를 예배에 드러야 한다. 그때 비로서 예배는 영화로운 하이테크 제사가 될 수 있다.¹⁰⁹

교인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멀티미디어들을 쉽게 접할 수 있고, 다양하고 새로운 멀티미디어를 접하게 되는 환경이 되어 있다. 이런 세상속에서 멀티미디어는 예배에 사용하고 안하고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모든 기술조차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만든 선물일 수 있다. 이제는 어떻게 이 기술을 지혜롭게 사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예수님은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마 10:16)고 하셨다. 앞서 2장에서 정의했듯이 예배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최고의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배자인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존경과 사랑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진실된 경외와 경배, 헌신을 드리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말씀에 순복하고 온전히 변화하는 모든 과정이요 결과다”라고 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범위에서 멀티미디어 기술을 과하거나 무질서하지 않게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4) 멀티미디어의 예배 활용

성경에 보면 멀티미디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의

108) Quentin J. Schultze,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하이테크예배」, 22.

109) Ibid., 140-1.

제사, 신약의 예배, 그리고 교회사 속에 나오는 예배의 모습속에서 멀티미디어 사용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바로 표적과 상징이 그것이다. R. C, 스프롤(R.C.Sproul)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로 말씀으로 의사를 전달하셨다. 그분의 말씀은 신앙의 역사와 교회의 삶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사를 전달하시는 수단인 말씀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것이 개신교 교회가 성경의 역할과 지위를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이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으로 일컫는다. 역사적으로 개신교 교회는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간을 예배당의 중심으로 여길 정도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듣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한편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말씀 외에 상징과 의식, 이미지, 구체적인 실물, 극적인 사건등과 같은 비언어적 수단으로도 의사를 전달하셨다. 이러한 비언어적 수단들은 말씀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 이외의 것을 직접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자기 백성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이유를 짐작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표적과 상징은 의사소통의 고유한 방식 중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 외에도 다양한 표적과 상징, 그리고 외적인 표현과 각종 의식을 허락하셨다. 인간이 의사를 소통할 때처럼 말의 의미를 강화하기 위해서 말이다.¹¹⁰

대홍수 후 두려움에 쌓여있던 노아에게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게 하신다(창 9:13). 출애굽 후 광야에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성막을 짓게 하시고(출 26장-27장), 각종 제사법(레 1-5장)과 절기(출12-13장, 23장) 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다. 성막에 임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한 시각적으로 하나님을 느끼게 하셨다(출 13:21-22). 하나님은 불평하는 요나에게 박넝쿨을 통한 시청각 자료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셨다(욘 4장). 예수님도 따르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실 때 갖가지 비유를 통해 상상하게 하시고 보이는 꽃, 새 등을 언급하여 생동감 있게 느끼게 하셨다.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도 직접 발을 씻겨주며 음식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더욱 선명하게 설명하셨다(마 26장, 막 14장, 눅 22장).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받은 교회들도 갖가지 성물, 상징등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 교회의 경건성을 나타내려 하였다. 이런 여러 행위들은 귀로만 듣는 일차원적인 복음이 아닌 보고 듣고 느끼게 하는 멀티미디어적 요소들로 복음을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들이었다.

110) R. C. Sproul , 「성경적 예배」. 조계광역. (서울: 지평서원, 2015), 88-91.

단 셀리어스(Don E. Saliers)는 아래와 같이 말한다.

상징이 가지는 이러한 특징적인 세 가지 요소는 실제 예배 상황에서 함께 사용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떡, 포도주, 물, 기름과 같은 기독교 예배의 중심적인 기호는 먹고 마시고 침례를 베풀고 안수하는 공동의 행위를 통해 구체화되어 공동체에 의해 제정된 실제 예배 현장에서 특정 영역의 의미를 표현하고 드러낸다. 각 예배 의식은 채택된 상징 안에 내재된 다양한 차원의 의미 가운데 특별히 선정된 영역만을 형성하고 표현한다. 또한 상징을 통해 나타내려는 감각적인 차원과 신인 상호 작용을 표현하는 성경적 언어를 통해 나타내려는 신비를 하나의 통일된 경험으로 가져오게 된다. 한편 상징은 사물, 몸동작, 말, 혹은 복합적 행동을 통해 표현된다.¹¹¹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분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양한 것을 사용하셨고, 특히 예배의 의식속에서도 다양한 상징이나 도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데 사용하였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과 도구는 다양하게 변화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예배한다는 본질이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한가지 사실 위에 다양한 멀티미디어적 요소가 있다. 이러한 다양한 것들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선명하게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멀티미디어의 예배 사용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박한수는 이런 질문과 답을 말한다:

그렇다면 왜 교회는 멀티미디어를 예배에 활용하려고 할까? 그것은 단순히 예배의 실황을 전송함으로써 예배공간을 확대하거나 보완하기 위함이 아니다. 기존의 예배가 주로 ‘설교를 듣는 것’을 중심한 청각 의존적 배라면, 멀티미디어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시각적 차원을 확보하고 심지어는 촉각, 후각, 미각의 차원까지도 예배에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이것은 정보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시대적 변화에 민감하게 발맞추려는 시도라고 보여진다.¹¹²

멀티미디어의 예배 활용은 기존의 예배보다 분명히 장점이 많다. 스크린을 통해 예배의 순서에 의해 찬송가 가사를 띄워주고, 교독문을 보여주며, 설교의 대지를 말해주고, 설교에 맞는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큰 장점임이 사실이다. 그

111) Don E. Saliers, 「거룩한 예배」. 김운용역. (서울: WPA, 2010), 248-9.

112) 박한수, “현대예배를 위한 멀티미디어 영상예배에 관한 연구.”, 100.

동안은 듣기만 하던 복음이었다면 멀티미디어를 활용함으로 보여주는 예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오정현은 기존의 전통적인 예배에서 현대예배로의 변화된 모습을 다음과 같이 대조하여 말하고 있다:

기존 전통교회 예배의 특징은 찬송가를 중심으로 오르간과 피아노중심의 반주로 느린 템포의 음악을 책이나 인쇄물 중심으로 사용한다. 이때 예배나 예배당의 분위기가 무겁고 어두우며, 음악도 부드러운 음악이 주종을 이룬다. 예배시간은 상당히 길고 신학적인 메시지가 선포된다. 고정된 틀에 의해 예배가 진행되며 주보를 중요시한다. 예배당의 분위기가 은은한 조명과 조금 어두운 실내 분위기를 유지하고, 예배는 주로 지시형태로 드러진다. 찬양대가 음악을 주도하고 지성에 호소하는 예배이다. 주로 음향을 통해 듣는 예배형태이고 다양한 재능이 사용된 예배라고 할 수 있다. 거기에 비해 변화하고 있는 현대예배는 복음성가나 새로 작곡된 현대 음악풍의 찬양곡을 주로 쓰고, 작은 밴드나 작은 오케스트라의 반주를 지원한다. 프로젝트, 슬라이드, 비디오 등 영상을 사용하고 음악도 주로 빠르면서 경쾌한 템포의 음악이 주를 이룬다. 예배나 예배당의 분위기는 가볍고 발랄하고 대화중심적으로 화기에애한 분위기이다. 크고 시끄럽다고 할 수 있는 음악이 연주되고, 예배 시간도 간단하고 짧으며 축제적 집회의 성격이 강하다. 메시지의 내용은 주로 삶에 필요한 적용이 강한 메시지이고 예배를 위한 파일이나 바인더가 사용된다. 예배당은 밝고 환한 실내조명과 현대식 감각의 센스 있는 분위기이고 찬양팀이 있어 팀별로 음악을 다양하게 주도한다. 주로 영성이나 감성을 터치하는 예배이다. 이때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듣는 예배를 넘어 보고 느끼는 형태의 예배를 추구한다. 수준은 최고의 방송국에 버금갈 정도의 각종 기술이 가미된 예배 형태를 띤다.¹¹³

박한수는 그의 논문에서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예배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멀티미디어 예배가 지닌 장점들은 기본적으로 기존 현대 교회의 예배가 대부분 ‘앉아서 듣기만 하는’ 예배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존 현대 교회의 예배는 예배 시간의 절반 이상이 설교이고, 그 설교는 듣기만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회중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수동적인 참여를 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매우 지루하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물론 설교 이외의 요소를 살펴보아도 회중 대표의 긴 기도, 성가대의 긴 특별찬송 등의 순서에서 회중이 할 일이란 단지 듣기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회중의 능동적 참여가 지극히 절실한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멀티미디어예배는 회중에게 감각의 다차원성을 확보해 준다는 장점을 지닌다. 앉아서 듣기만 하던 회중들이 멀티미디어를 통해서 나오는 음향과 변하는 화면을 보면서 매우 신기해하고 무엇보다도 예배를 지루하지 않게 느낀다는 점이 멀티미디어 예배가 지닌 최대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멀티미디어 예배는 기존의 예배형식을 고수하면서 설교자와 회중을 중계 카메라를 통하여 대형 화면으로 중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방법은 중계예배일 뿐이다. 멀티미디어(복합매체)예배란 메시지를 전하는 매체를 기존의 음성미디어로만 하던 전달 방법에서 음성, 음향, 그림, 문자, 영상, 미디, 조명 등의

113) 오정현, 「새천년 사역의 패스 파인더」, (서울: 두란노, 2000) 289.

미디어들이 복합적으로 사용되어져서 메시지가 멀티미디어로 표현되고 전달되는 예배이다. 이러한 표현은 성도들로 하여금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등 전 감각기관으로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하는 효과를 나타냄으로 메시지 전달의 효과를 극대화한다.¹¹⁴

임태중은 “멀티미디어는 단지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예배자의 전 인격(이성, 감정, 의지)이 온전히 드러지도록 예배자의 오감(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다 영여 놓게 하는 매체일 뿐이다. 이러한 매체를 통하여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고자 노력해 왔다”¹¹⁵고 말한다.

이런 멀티미디어를 예배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의 시간과 정성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번의 예배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한다는 것은 단점이 아닌 장점이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한 예배가 초신자나 교회에 처음 온 사람도 쉽게 집중할 수 있고 더 생동감을 느껴 예배가운데 함께 동화될 수 있기에 큰 장점이 있다. 멀티미디어의 예배 사용은 사용 유무의 문제가 아닌 사용하는 얼마나 양질의 예배를 위해 준비하느냐 못하느냐가 문제가 될 것이다.

4. 한국 농촌교회에서의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예배의 필요성

1) 한국 농촌교회의 현실

한국의 농촌교회의 현실을 말할 때 교회가 속해있는 한국 농촌의 문제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 농촌문제 첫 번째는 ‘노인인구의 고령화’이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고도경제성장기에 진입하면서 급격한 도시화를 이루었다. 이 과정에서 도시로의 인구 집중현상이 계속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인구는 전체 인구의 3/4을 이미 넘어섰다. 1945년 13%, 그리고 1960년의 경우 약 28%의 인구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114) 박한수, “현대예배를 위한 멀티미디어 영상예배에 관한 연구”, 120.

115) 임태중, 「예배의 개혁, 멀티미디어 예배」, 2.

비추어보면 우리나라의 도시화는 엄청난 속도로 이루어진 것이다.¹¹⁶ 바꾸어 말하면 농촌지역에 있던 많은 인적자원들이 도시로 빠져나가고 농촌의 공동화 그리고 고령화라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김일우는 이런 농촌의 상황을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현재 급격한 농촌사회의 변화로 대다수 농어촌 교회들은 생존권에 위협을 실감하고 있다.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 하기보다 먹고 살아야 할 생존에 전전긍긍할 수 밖에 없으며 그러한 가운데 교회로서의 좌표마저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아기 울음소리가 그치지 오래고, 노령화, 부녀화, 거기에 농산물 개방정책으로 영농의욕마저 상실한 농어촌 교인들을 붙들지도 놓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것이 오늘 농어촌 선교현장이다.¹¹⁷

본 연구자가 사역을 하고 있는 충남 부여는 이런 현실을 더욱 실감하게 한다. 부여군청에서 펴낸 통계연보를 보면, 1975년 30,094세대 174,132명이 거주하던 주민이, 2013년까지 세대수는 조금 늘어 32,288가정이다. 그런데 인구수는 72,547명으로 1975년에 비해 41%로 급감하는 모습을 보인다.¹¹⁸ 특히 세대수는 일부 늘었지만 인구가 급감한다는 것은 독거노인의 가정이 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시의 면적과 맞먹는 면적의 부여군에서 산부인과는 하나도 없이 다 사라지고, 오직 노인 요양병원만 많이 생겨났다.

이런 상황은 농촌교회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2016년 부여군 기독교 연합회 요람을 보면, 목회자와 장로의 주소록이 나오는데, 장로의 경우는 원로나 명예장로가 절반을 넘는 모습을 보인다. 그만큼 농촌교회의 교인들의 나이가 많아졌고, 노인층 교인들의 “내가 죽고 나면 우리교회 한자리가 줄텐데”하면서 교회의 존립 자체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둘째로 젊은이의 부재라는 문제다. 부여군 통계연보를 보면 2008년 76개였던 초, 중, 고등학교수가 2014년엔 70개로 6개가 줄었다. 그런데 학생수는 2008년 10,636명이던 것이

116) “노인인구고령화,” 「인구대사전」 2016년판, 127.

117) 김일우, 「농어촌교회여 다시금 한국교회에 부흥의 주춧돌을 놓자」 (서울: 좋은땅, 2009), 16-7.

118) 「부여군 2013년 통계연보」 2013년판, 64.

2014년엔 8,424명으로 1,600명이나 줄어들었다.¹¹⁹ 72,547명의 군지역에서 6년만에 1,600명이 줄었다는 것은 엄청난 숫자가 준 것이다. 그 이유는 먼저 열악한 교육환경 문제가 있을 것이다.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이 판을 치는 현실속에 변변한 학원 하나 없는 농촌지역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커다란 결단이 아니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기에 학생을 있는 젊은 가정들이 아이들의 교육 때문에 인근 도시로 옮기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인구유입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도시지역에 눈만 뜨면 생기는 아파트 단지엔 학교가 함께 들어서 항상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고 끊이지 않는데, 농촌지역엔 이런 대규모 주거공간도 없고, 또한 공장 같은 대규모 시설이 없어 젊은 가정이 들어오기 힘든 환경이다. 물론 요즘 귀농인구가 늘었다고 하지만, 대개는 젊어야 40-50대가 대부분이다. 그만큼 농촌지역에 젊은 가정이 없다는게 현실이다. 교회의 상황도 여타 다르지 않다. 본 연구자가 속해있는 기독교 한국침례회 충남지방회 소속 29개 교회에서 부여지역에 있는 교회는 19개가 된다. 그 중에 주일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는 교회는 6~7개 정도에 불과하다. 10여년 전만해도 거의 모든 교회에 주일학교가 운영이 되었지만, 더 이상의 인구 유입이 없고, 있던 젊은 교인들은 도시로 나가고, 아이들도 커서 교육문제로 도시로 나가고 교회에서 일할 젊은 일꾼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현실이다.

셋째로 농촌경제의 어려움이다. 부여군 통계연보를 보면 1995년 15,404가구 농가가 2013년엔 9,978가구로 줄어들었다. 전업농의 경우 2000년 10,777가구이던 것이 2013년 5,554가구로 거의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다.¹²⁰ 그러다 보니 당장 나타나는 것이 경제적인 수입의 감소이다. 교회의 재정상태도 다를 바 없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헌금의 양도 줄어들어 이제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농촌교회들이 생기는 것이 현실이 되어 버렸다.

넷째로 한국 농촌교회의 현실적인 문제인데, 목회자들이 농촌지역에서의 사역을

119) Ibid., 542.

120) Ibid., 158.

회피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농촌지역에서 사역을 한다고 해도 기회만 된다면 도시지역으로 옮기기를 희망하고 시도하는 목회자가 많다는 것이다. 이유는 충분히 있어 일단은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 교육의 문제, 오래된 교회들의 전통과 관습에 의해 변화가 되지 않는 목회적 한계등 현실적인 문제는 농촌지역을 멀리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이 외에도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산적해 있는 것이 한국 농촌지역이고, 그 한가운데 교회들이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마지막 긍정적인 요인인데, 앞으로 ‘베이비붐세대’가 은퇴를 하는 2-3년 내에 은퇴한 이들이 농촌으로 귀농을 많이 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최윤식은 이들을 가리켜 ‘신중년’이란 표현을 한다. 과거보다 의학의 발달로 수명이 길어졌고, 은퇴를 하였지만 100세 인생을 살아간다면 은퇴한 이들이 새로운 삶을 준비해야 하고, 한국교회에 이들이야 말로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한다.¹²¹ 이 ‘신중년’ 중에 자녀를 다 키웠고, 노후에 대한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이들이 자신이 살았던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젊은이들은 떠났지만, 돌아온 중년으로 인해 이들은 앞으로 한국 농촌에 희망이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도 농촌교회도 도시에서 귀농한 이들에 대한 관심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활동들이 필요할 것이다.

2) 한국 농촌교회의 예배 갱신의 필요성

이런 한국 농촌의 문제,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한국농촌교회의 문제속에서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대책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은 농촌에서 목회하는 모든 목회자들의 공통적인 고민이다. 그래서 일부는 자립자생하는 목회를 위해 목회자가 농사를 짓고, 특수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본 연구자의 교단에서도 농어촌선교회를 구성해서 자립하고 자생하는 농촌교회들이 되고자 함께 나누고 지원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다. 이런 자립을 위한 시도들이 나쁘다는 말은 아니다. 충분히 현실적으로 타당한 대안이라고 본다. 그러나 본 연구자가 언급하고자 하는 부분은 현실의 문제를 현실적 대안이 아닌 영적인 대안으로 접근해

121) 최윤식, 최현식, 「한국교회 미래지도 2」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5), 239-240

보자는 것이다. 그 영적인 대안이 바로 예배이다. 2장 서두에서 예배를 정의하면서 “예배란 가장 가치 있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인간이 거기에 맞는 존경과 사랑을 가지고 진실된 경외와 경배, 헌신을 드리며 그분 앞에 완전히 순복하는 것”이라고 본 연구자가 정리를 했다. 성경과 교회가 말하고 있듯이 항상 어려운 시절을 살아왔던 믿음의 선배들은 어려울수록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어려운 난관을 잘 극복해 왔다. 일제 36년의 통치 속에 기독교는 든든히 서갔고, 6.25 한국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한국교회는 든든히 서서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왔다. 그리고 1997년 한국에 IMF구제금융을 받는 난관에 봉착하며 한국사회에 짙은 암흑이 물러왔을 때 한국의 교회들은 실의에 빠진 국민들의 위로와 힘이 돼주었고, 이기간 교회는 영적으로 수적으로 부흥을 경험하기도 했었다. 그렇기에 현재 농촌교회의 어려운 현실의 문제를 본 연구자는 ‘예배의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의 접근을 하려 한다.

에드윈 다간(Edwin C. Dargan)은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교회의 위대한 부흥은 언제나 강단에서 외쳐지는 힘있는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었으며, 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암흑기를 경험한 것도 역시 생명력 없고, 형식적이며, 열매 없는 설교로부터 나왔다”고 주장한다.¹²² 그의 주장처럼 ‘설교를 통한 예배의 회복’이 어쩔 가장 원초적이지만 가장 확실한 처방전이 아닐까 생각을 한다. 그리고 그 설교의 전달을 돕는 도구로서의 멀티미디어 활용, 예배의 생명력 회복을 돕는 의미에서의 멀티미디어라는 도구의 사용이 필요하다.

3) 한국 농촌교회의 멀티미디어 활용의 필요성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한국 농촌교회들의 열악한 환경속에서 예배의 회복의 도구로서의 멀티미디어 활용은 이젠 보편적인 상황이다. 4장에서 다룬 설문을 통한 통계를 보면, 응답자 30명중 멀티미디어 장비가 설치된 곳이 15곳이나 되었다. 보편화된 멀티미디어 장비를

122) 임태종, 「예배의 개혁, 멀티미디어 예배」, 249에서 재인용.

농촌교회의 예배 활성화를 위해 잘 활용해야 한다. 박영근은 그의 책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멀티미디어 예배의 핵심은 말로만 듣던 복음을 보여준다는데 있다. 보는 것이 듣는 것보다 훨씬 실감을 더함으로써 확신에 이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¹²³

임태중은 멀티미디어의 예배 활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제 멀티미디어 설교는 그 목적부터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간혹 목회자들 중 ‘멀티미디어 예배를 드리면 교회가 성장한다지요?’ ‘멀티미디어를 사용하면 설교 효과가 크지요?’라는 분들이 있다. 그럴 때마다 확신하며 대답하는 것은 “No”이다. 미디어 기기들이나 전자매체를 활용한다고 해서 예배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아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때에만 진정 살아 있는 예배가 된다. 또 교회 부흥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이다. 매체는 다만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러나 멀티미디어 예배를 위하여 멀티미디어 설교를 하게 되면 문어적으로만 설교할 때보다 훨씬 더 풍부하게, 또 깊게, 다양하게 전달할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성경을 해석하는 눈도 2차원에서 입체적으로 변화된다. 이와 같이 메시지가 입체적이기 때문에 역동적이 되고, 예배가 살아난다. 성도들의 오감이 살아나는 예배가 드러지는 것이다.¹²⁴

멀티미디어를 활용해서 드리는 예배는 젊은이들을 위한 것만도 아니고, 도시교회만을 위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농촌교회 상황에서 이런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예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멀티미디어 사용만이 예배의 회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예배 회복을 위해 멀티미디어가 조금의 도움이라도 된다면 철저히 준비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소결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존재의 의미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질 때 예배와 설교를 통해 얻는 삶의 적용으로 세상에

123) 김진년, 「영상예배와 멀티미디어 교회교육」 (서울: 성지출판사, 2000), 104.

124) 임태중, 「예배의 개혁, 멀티미디어 예배」, 255.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부흥을 경험했다. 시대는 변하였지만 이런 예배를 통한 회복의 원리는 바뀌지 않는다. 한국의 상황이 어렵고, 특히 한국의 농촌교회의 상황이 어렵다고 하지만, 이것을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시도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시도의 도구로서의 멀티미디어 활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예배의 능력의 원천은 준비이다. 물론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예배의 생명력이지만, 성령은 준비되지 않은 예배자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준비된 예배자가 되었을 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다 철저하고 체계적인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영적 예배를 통해서 한국 농촌교회가 회복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제 3 장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예배하는 교회 사례 연구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예배를 드리는 5교회에 대한 사례연구이다. 이중에서 2곳(분당우리교회, 울산감리교회)은 도시에 있는 중대형교회이지만 멀티미디어를 예배에 잘 활용하여 좋은 평가를 듣고 있기에 멀티미디어의 예배 활용이라는 이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기에 선정하였고, 농촌 지역에 있는 3곳(칠산침례교회, 용안침례교회, 가신침례교회)은 현재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기에 선정하였다. 이 5교회의 사례 분석은 연구 주제의 특성상 예배 모든 영역에의 분석은 하지 않았다. 다만 예배에서 사용되는 멀티미디어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멀티미디어 활용으로 예배에는 어떤 긍정적인 모습이 있는지 등에 대해 제한된 분석을 했다.

1. 분당우리교회

1) 분당우리교회에 대한 개요

사랑의 교회에서 청소년사역을 성공적으로 한 이찬수 목사가 2002년 5월에 분당우리교회를 개척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송림중. 고등학교내 예배당을 같이 쓰면서 건물에 투자하지 않고 사람에게 투자하고 있다.¹²⁵ 예배의 감격이 있는 교회, 가정을 회복시키는 교회, 젊은이를 깨우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라는 목표를 가지고 교회가 생긴 지 15년 만에 3만 명의 교인으로 성장한 대형교회이다. 현재 1만 명의 성도 파송 운동으로 한국사회에 대형교회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

분당우리교회는 열정 있는 찬양팀, 전문화된 멀티미디어 사역팀의 도움으로 감동적인 예배를

125) 송림중고등학교는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에 위치한 운속학원으로 고등학교는 1970년에 개교하였고, 중학교는 1983년에 개교하였고, 학교내 교회가 있는 미션스쿨이다.

더욱 가능케 한다. 그중에 멀티미디어 사역팀은 예배중에 모습은 드러나지는 않지만, 예배 전반적인 진행 사항을 과하지 않은 세련된 화면을 통해 잘 보여주고, 설교를 돕는 보조 영상은 기존에 나와 있는 영상보다는 직접 제작을 통한 생동감 있고 신선함을 보여주고 있다.

2) 예배 분석

분당우리교회는 주일 낮에 총 5부의 예배(1부 7시, 2부 9시, 3부 11시, 4부 1시, 5부 3시)를 드린다, 그리고 수요일예배(수요일 저녁 7시 30분), 금요일기도회(금요일 저녁 8시 30분), 새벽기도회(매일 새벽 5시 20분)의 공적 예배가 있다. 이 중에 주일 낮 1부 예배를 중심으로 예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 분당우리교회 7월 9일 예배 순서

주 일 예 배		
[예배시작 15분 전부터 찬양이 시작됩니다]		
1부 7:00 2부 9:00 3부 11:00 4부 13:00 5부 15:00		
인 도		1부, 2부 조 훈 목사 3부 이완수 목사, 4부 김성진 목사
찬 양	_____	찬양팀
*예배로의 부름	_____	인도자
*통 성 기 도	_____	다함께
*대 표 기 도	_____	1부, 2부, 3부 허 인 장로 4부, 5부 이완수 목사
찬 송 가	_____ 찬송가 50장 _____	다함께
찬 양	_____	찬양대
광 고	_____	영 상
설 교	_____ 로마서 9장 30절-10장 13절 _____	이찬수 목사
[마음과 입이 해야 할 일]		
*기 도	_____	다함께
*축 도	_____	설교자
*성도의 교제	_____	다함께
*표는일어서서		
다음주 대표기도 1부, 2부, 3부 홍정석 장로 · 4부, 5부 정진영 목사		

헌금은 들어오시면서 헌금함에 합니다

분당우리교회는 일관성도 파송운동의 일환으로 처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의 등록만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방문자께서는 자신을 더 필요로 하는 교회로 가셔서 섬기실 것을 권합니다.

(1) 찬양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예배당 전면 스크린에 7월 9일 주일예배 “마음과 입이 해야 할 일”(롬 9:30-13:13) 이찬수목사 분당우리교회라는 주일 설교본문과 제목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1부 예배시간이 7시인데, 10분 전부터 찬양 인도하는 목회자와 성가대, 찬양 팀이 강단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한다. 이때 전면 스크린에 찬양 가사가 나와서 예배하는 회중들을 돕는다. 이미 1, 2층 자리는 다 채워졌고, 회중들이 뜨겁게 찬양을 따라 한다. 이때 부르는 찬양은 나중에 설교에서 사용한 찬양이었고, 나중에 결단의 시간에 사용할 찬양을 미리 불러봄으로 어색하지 않게 하였다.

(2) 예배로의 부름

찬양 후에 예배 사회를 보는 목회자(부목사)가 나와 자연스럽게 예배의 시작함을 알리며 회중과 함께 찬양을 한다. 이때 성가대는 사회자 뒤에 서서 함께 찬양한다. 그리고 전면 스크린에 찬양 가사 큰 글씨로 보여준다.

(3) 통성 기도

사회자는 피아노 반주에 맞춰 기도를 독려하는 멘트를 하고, 예배를 위한 합심 기도를 한다. 이때 반주가 나오고 강단의 성가대는 찬양해줌으로 집중하여 기도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사회자는 마이크를 잡고 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전면 스크린에는 합심기도라는 커다란 글씨로 순서를 소개한다.

(4) 대표기도

사회자의 기도가 마무리되면서 자연스럽게 대표기도 준비한 이가 나와 예배를 위하여 목회자를 위하여 대표 기도를 한다. 전면 스크린에는 이날 기도 인도자의 사진과 이름이 나온다. 대표기도자의 기도 시간은 2분 정도가 걸렸다. 기도가 마쳐지자 찬양대의 기도송이

올려 퍼진다.

(5) 찬송가 (봉헌 및 기도)

모든 기도의 시간이 마치고 회중들은 자리에 앉아 찬송가 50장(내게 있는 모든 것을)을 함께 부른다. 전면 스크린에는 찬송가 가사가 글씨로만 보여진다. 헌금위원들 회중들이 교회에 오면서 미리 헌금한 헌금함을 정리하여 들고 강단으로 나온다. 봉헌기도는 사회를 보는 목회자(부목사)가 한다.

(6) 찬양

1부 찬양대의 “내 목자는 사랑의 왕”이란 찬양을 한다. 이때 피아노와 더불어 현악팀이 함께 반주한다. 그리고 스크린에는 찬양대 전체가 화면에 나오고 화면 맨 아랫부분에 찬양대가 부르는 가사가 나와 찬양을 듣는 회중들을 돕는다.

(7) 광고

광고는 영상을 통해 미리 준비한 화면과 녹음한 것을 사용한다. 단순히 담임목사가 주보를 보면서 하는 평이한 광고가 아니라, 영상과 소리가 함께 나오는 광고는 듣는 청중으로 새로움과 집중도를 높이기엔 충분하였다. 이때 찬양대가 성가대석으로 자리를 옮긴다. 그리고 설교를 할 담임목회자가 강단에 등단한다.

(8) 설교

설교는 이찬수 담임목사가 하는데, 먼저 회중들과 아이스브레이크를 위해 서로 인사를 나눈다. 그리고 광고 사항 중 미비했던 부분에 대해 설교자가 재차 광고한다. 이날 설교할 로마서 9장 30절~ 10장 13절의 말씀을 설교자가 낭독하고 화면에는 성경 구절을 보여준다. 설교자는 매 주일마다 하고 있는 로마서 강해를 한다. 설교 도입부 시 적절한 예화를 통해서 설교에 도입한다. 로마서 강해를 하다 보니 성경 구절을 읽을 상황이 생기는데, 이때 미리 방송실에서 미리 준비한 성경구절을 바로 보여줌으로 예배 진행이 막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설교시간은 32분 정도 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예배 전에 불렀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라는 찬양을 함께 부른다. 이때 설교자는 가사를 불러주고, 찬양 팀이 찬양하여 설교자를 돕는다. 찬양이 마무리될 때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날 설교 메시지를 정리하여 도전을 주고 함께 통성을 기도를 하게 한다. 반주 팀의 반주를 계속된다.

(9) 기도

회중이 설교자의 인도를 따라 통성기도를 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자, 찬송가 304장(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한다. 설교자는 다시 설교 메시지를 정리하며 교인들에게 도전을 주고, 회중을 위한 기도를 한다.

(10) 축도

바울의 축도를 하며 예배를 마쳤다. 축도가 마치자 사회를 보던 인도자가 찬양 팀과 함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라는 찬양을 다시 불러준다. 이때 화면에는 찬양 가사가 나온다. 그리고 찬양이 마칠 때 스크린에 아래와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세요”라는 문구가 나오며 모든 예배가 마무리된다.

3) 특징 및 평가

분당우리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느껴지는 것은 예배의 진행이 물 흐르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접이었다. 과하지도 않게 예배에 또한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영상을 사용하였고, 회중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찬양 가사와 성경 구절을 보여줄 때도 화면의 중앙이 아닌 한쪽으로 몰아서 보여주고 배려가 보였다. 그리고 이날은 예배 중에 동영상 사용하지 않았지만, 가끔 자체 영상 팀에서 제작한 동영상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보곤 했다. 직접 제작한 영상이다 보니 교인들의 더욱 친근하게 느끼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많고, 적절한 사용으로 설교에 도움이 많이 됨을 보게 된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찬양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를 4번씩(예배 전,

설교 중, 결단의 시간, 퇴장시간) 불러 회중들로 찬양을 통해서 감동을 받게끔 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분당우리교회에서는 교회 홈페이지는 통하여 인터넷으로 예배 실황을 중계한다. 그럼에도 모든 교인에게 이것을 열어주지 않고, 특별히 환자등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이들에게만 한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예배 자체가 교회라는 장소에서 드려야 하고, 믿는 이들이 수고스러워도 함께 모여 드려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었다.

2. 울산감리교회

1) 울산감리교회에 대한 개요

울산감리교회는 울산광역시 야음동에 위치한 교회로서 멀티미디어 사역을 일찍 시작한 교회이다.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한 임태중 목사는 자신이 사역한 울산감리교회 멀티미디어 예배 이야기를 「예배의 개혁, 멀티미디어 예배」란 책으로 내었다. 그는 1988년 울산감리교회 부목으로 부임하고, 담임목사 은퇴 후 1990년에 담임 목회자가 되었다. 그 후 멀티미디어 예배를 1997년부터 시작하였다.¹²⁶ 「예배의 개혁, 멀티미디어 예배」와 함께 있는 예배 실황 영상을 통해 울산감리교회 예배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예배 분석

예배의 순서는 아래와 같다.

126) 임태중, 「예배의 개혁, 멀티미디어 예배」, (서울: 국민일보, 2000), 22-6.

<그림 2> 울산감리교회 예배 순서

- 찬양: 다 함께
- 함께 기도: 반주와 함께
- 목회 기도: 담임목사
- 교독 찬양: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일어서서)
- 성경 봉독: 일어서서
- 사도신경
- 성가대 특별찬양
- 화답 찬양: 다 함께
- 설 교: 담임목사
- 결단 찬양과 봉헌: 다 함께
- 축 도: 담임목사
- 광고, 친교: 담임목사
- 퇴장찬양

(1) 찬양

예배의 시작은 찬양으로 시작한다. 찬양인도자의 인도에 따라 찬양 팀, 악기 팀, 성가대 등이 함께 나와 30여 분 정도 7~8곡을 힘차게 찬양을 한다. 찬양대는 강단위에 올라서서 회중을 바라보고 있고, 율동팀은 강단과 회중석 중간 중간에 서서 율동을 하며 흥겹고 축제와 같은 분위기를 만든다. 이때 찬송의 역할은 예배를 여는 기능을 담당한다. 찬송의 종류는 그날의 설교와 맞춰진다. 화면에는 PPT를 활용하여 좋은 배경화면속에 찬양 가사가 나와 회중들이 찬양을 따라 부르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2) 함께 기도

찬양 후, 각자가 예배에 앞서 참회하는 기도,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2, 3분정도의 시간을 통성기도로 진행을 하는데, 이때 화면에는 기도 제목이 3-4가지가 올려 보여준다.

(3) 목회기도

보통 교회에겐 대표기도에 해당되는 순서인 듯한데, 울산감리교회에서는 이것을 목회기도라고 한다. 기도의 내용은 예배 개회기도의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교회의 주된 관심사인 전도대회를 위한 중보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때 기도는 담임목사가 한다. 성격은 간구기도의 형식을 띠고 있고, 목회자가 하기에 앞에 화면에 목회기도라고 했다.

(4) 교독찬양

담임목사의 목회 기도가 마치면 성가대가 기도 송을 찬양한다. 흔히 교회들이 하고 있는 교독문을 찬양으로 바꾸었다고 보면 된다. 이때 내용은 교독문으로 주로 사용하는 시편이나 다른 성경이 아닌, 찬송가를 선택해서 부른다. 찬송가를 성가대가 한번 부르고 나면 회중이 다 함께 또 한 번 부르는 식으로 진행되기에 교창의 형식을 띠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런 찬송의 기법은 초대교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권장할 만한 순서이다.

(5) 성경 봉독

성경 봉독 순서에 교인들이 다 일어나서 성경 봉독을 한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 일어나는 모습을 연상케 했다.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15:1-7인데, 스크린을 통해 자막과 영상이 함께 나왔다.

(6) 사도신경

자막을 통해서 사도신경이 나왔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익히 하는 내용이기에 암송으로 할

수있지만, 처음 온 새신자나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못하는 일부 신자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영상을 통해서 사도신경을 보여주고 있었다.

(7) 성가대 찬양

준비된 성가대의 찬양이 울려 퍼진다. 이때 단순히 성가대의 찬양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 가사가 스크린에 나오므로 회중들이 찬양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바람직하게 보였다.

(8) 화답 찬양

성가대의 찬양이 끝나고 회중들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을 함께 부른다. 성가대를 바라보기만 하던 일방적인 모습이 아닌, 화답하듯이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 소통이 되는 분위기였다. 이때 성가대는 성가대석으로 자리를 옮긴다.

(9) 설교

담임목사의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란 제목의 설교가 진행되었다. 스크린으로 설교 대지에 해당되는 문장이 자막을 통해서 대지와 소지까지 올려주어 설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또한 설교에 도움을 주는 영상을 틀어 주었는데, 무작정 영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는 미리 영상에 대한 사전 지식을 전해주어서 회중들이 설교의 내용과 영상에 대한 사전지식을 연결지어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이날 내용은 ‘라스트라다’란 102분짜리 영화를 23분으로 편집을 하였는데, 너무 긴 느낌이었다.

(10) 결단과 찬양과 봉헌, 축도

설교가 끝난 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를 함께 부르면서 헌금위원들이 헌금함을 가지고 강단으로 올라오고 이때 온 회중이 함께 일어나서 찬양한다. 이때 헌금위원들이 미리 준비하고

있던 헌금함을 가지고 강단으로 올라오고, 찬양이 끝나면 목회자는 헌금을 위한 기도를 하고, 예배 마침을 위한 축도한다.

(11) 광고 및 친교

화면으로 광고가 나가면 회중들이 서로 주위를 둘러보면서 인사를 한다. 그리고 인도자는 회중들을 향해 현재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역에 사역이나 행사들에 대해 광고를 한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광고영상을 보여주며 새신자 소개도 이 시간에 한다.

(12) 퇴장 찬양

찬양을 부르면서 퇴장을 하는데, 이때 미리 준비한 찬양 영상을 가사와 함께 스크린에 틀어주었다. 자못 예배 후에 혼잡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잘 잡아준다. 이것도 모두를 위한 배려로 보였다.

3) 특징 및 평가

조기연은 울산감리교회의 예배를 평가하면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

예배순서를 볼 때에 특기할 만한 사항은 우선 예배인도자의 문제이다. 첫번째 순서인 ‘찬양’과 두 번째 순서인 ‘기도’는 찬양인도자가 진행하며, 세 번째 순서인 ‘목회기도’부터는 담임목사가 인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되면 찬양 인도자가 진행한 처음 두 가지의 순서는 과연 정식 예배순서인가 아니면 그저 예배를 준비하는 순서인가 하는 의문이 들게 된다. 관심을 끄는 두 번째 순서는 ‘목회기도’이다. 목회기도란 목회자가 목사로서 책임지고 있는 회중들 개개인과 공동체 전체가 직면하고 있는 특별한 필요들을 매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기도로서 한국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목회기도를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설교 후에 헌금기도와 함께 하는 것이 관례이다. 이에 반해 ‘개회기도’ 혹은 ‘그날의 기도’(Collect)는 그날의 예배를 위해 드리는 짧은 기도로서 예배의 시작 부분에 위치하는 것이 통례이다. 한국교회는 통상 ‘대표기도’라는 이름으로 평신도 대표 즉 장로가 설교 전에 기도하는데, 이는 목회기도와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다. 특이한 점은 울산 감리교회의 예배에서 목사가 설교 전에 하는 기도가 그 위치상의 성격은 ‘예배기도’내지는 ‘그날의 기도’인데 그 이름은 ‘목회기도’이고 그 내용은 통상적인 간구의 기도라는 점이다.”¹²⁷고 말한다.

127) 조기연, 「한국교회와 예배 갱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90-1

울산감리교회의 예배에 대해 평가를 하면서 울산감리교회에서 주관한 제2회 멀티미디어 세미나에 참석한 목회자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모든 예배가 끊임없이 연결되어 드러지니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것 같다. 축제 분위기를 느꼈고, 꿈꾸던 예배를 드러서 참 좋았다. 말씀 중 영상자료와 메커니즘에 도전이 되었다. 성경 말씀이 피부에 와 닿은 예배였다. 설교 마지막, 영상으로 말씀을 느끼고 간접 체험한 부분이 감동적이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설교에 집중할 수 있고, 말로만으로는 전달되지 않던 감동을 얻게 되었다. 신선했고, 영상에 대한 공감각이 되었다. 예배의 구성이 훌륭했다. 예배 시 영상을 매칭시켜 생동감 있는 느낌과 감동을 줄 수 있었던 점이 좋았다. 예배의 틀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미디어를 적합하게 접목으로 예배가 입체감이 있었다. 한국교회 예배의 고정 틀을 깨고 영상을 접목한 예배 형태가 새로웠고, 광고시간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점이 좋았다.¹²⁸

울산감리교회는 멀티미디어 예배를 선도했던 교회로 20여 년 전에 이미 이런 시도들을 했다. 특히 멀티미디어를 사용하여 그동안 듣는 설교에서 보는 설교로, 일방적 예배가 아닌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예배. 탁월한 영상 활용과 구성을 통해 예배의 감동을 더욱 크게 하였다. 예배에 참여한 회중들의 입장에서는 평소 익숙한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청각만이 아닌 시각적으로 자극을 주어서 예배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회중을 향한 배려가 돋보였다. 이런 예배에 참여한 회중의 입장에서 한 장로님의 인터뷰가 예배를 드린 느낌을 잘 설명한다:

목사님이 성경 봉독하시는 말씀이 스크린에 비취고 찬송가도 곡조와 그림까지 누구나다 볼 수 있도록 큰 스크린이 나타나니까 예배 분위기가 부드럽고 예배드리기가 수월하고 부담이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고통스럽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로마 병정들이 때리는 채찍 소리가 온 예배당을 울려 퍼지는데 몸이 움츠러들면서 감정이 복받쳤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시다 피를 흘리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는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지만 실제적으로 본 것은 별로 없었잖습니까? 그런데 화면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내 죄를 담당하셨고, 내가 맞을 때를 예수님이 이렇게 맞으셨구나하는 생각이 들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 예배에 참석한 사람은 모두 다 같은 생각이었을 것입니다.¹²⁹

128) 임태중, 「예배의 개혁, 멀티미디어 예배」 (서울: 국민일보, 2000), 274-5.

129) Ibid., 272-3.

3. 칠산침례교회

1) 칠산침례교회에 대한 개요

칠산침례교회는 올해로 교회가 세워진 지가 121년 되는 침례교에서는 역사가 깊은 교회이다. 1886년경 한국에 들어와서 강경침례교회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던 폴링 선교사가 충남 부여군 임천면 칠산리에서 8월경 칠산교회를 세우고 순회 선교를 하던 것이 칠산교회의 시작이었다.¹³⁰

121년의 역사 속에 지금까지 18명의 목회자가 거쳐 갔고, 현재 사역하고 있는 조용호 목사는 2007년 11월 부임하여 현재까지 사역하고 있다. 오랜 교회 역사 속에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옥고를 치르다가 순교하신 목회자(고 장석천목사)도 나오고, 남한에서 3번째로 세워진 침례교회이고, 부여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이다. 예배당은 현재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건축하였다.¹³¹ 지역의 특성상 먼 소재지에서 벗어난 리 단위 마을이지만, 오랜 역사를 통해 지역의 거의 대다수가 교회에 출석하고 있고, 안정적으로 세워진 교회이다.

2007년부터 사역하고 있는 조용호 목사의 부임 후 교회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 그리는 명절 감사예배, 1년에 한두 가정이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가정 헌신예배, 매월 1일 드리는 월삭기도회, 고난주간의 십자가 대행진, 송구영신 예배 때 하는 세족식 및 촛불 예배, 1월 중 오이 농사를 짓는 교인들을 찾아가 드리는 하우스 축복 심방 예배 등이 있다. 그리고 예배에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동영상을 보여주고, PPT를 활용하고, 피아노에 신시사이저를 곁들이고, 때론 찬양반주기를 활용하여 예배 분위기가 집중력이 있고 생동감이 있다.

2) 예배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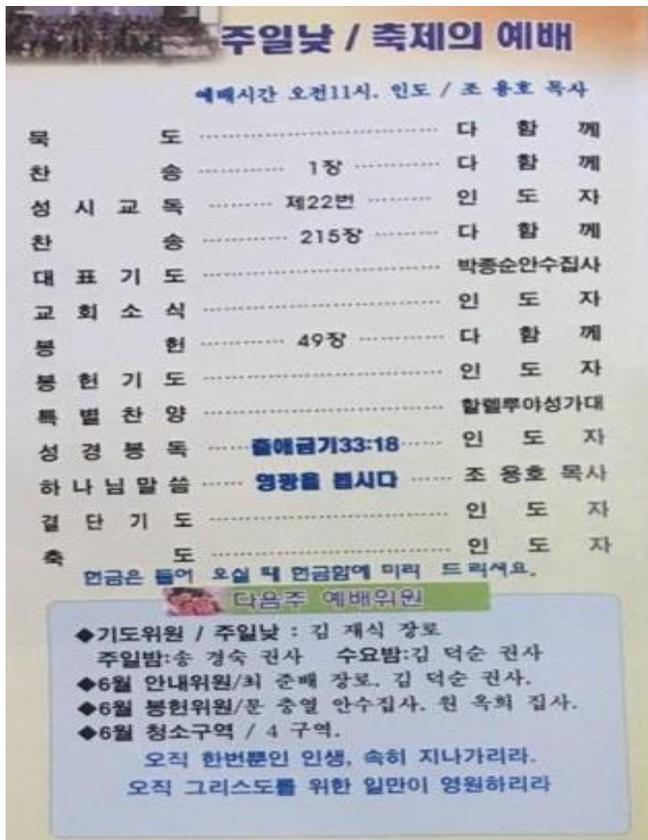
칠산침례교회는 한국의 농촌교회들이 거의 그렇듯이 전통적인 예배의 스타일과 형식으로

130) 오지원, 「칠산교회 120년사」 (충남: 칠산침례교회, 2016), 118-9

131) Ibid., 265-6.

예배를 드린다. 그러나 예배마다 독특한 특성을 살려, 주일 낮 예배는 축제의 예배(오전 11시)로, 주일 저녁예배는 찬양예배(저녁 8시)로, 수요일 밤 예배는 행복의 예배(저녁 8시)로 드리고 있다. 그중에 주일 낮 예배를 중심으로 예배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그림 3> 칠산침례교회 2017년 6월 18일자 주보



(1) 예배 전 찬양

예배 전에 예배인도자(담임목사)가 찬송가를 2곡(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428장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을 찬양한다. 반주기를 사용하고 있고, 스크린에는 찬양 반주기에서 나오는 찬양 가사가 나온다. 이때 신시사이저와 피아노를 함께 치며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한다. 농촌지역에 위치하였고, 젊은이들이 없는 탓에 교회에서 찬양팀은 운영할 수 없다. 그렇기에 찬양인도를 담임목회자가 직접 인도하여 예배의 분위기를 힘찬 찬송으로 이끌고 있다.

(2) 목도

피아노 반주에 맞춰 성가대의 송영이 울려 퍼지고, 전면 스크린에는 목도라는 자막이 올라오고, 예배 인도자가 출애굽기 40장 32~35절 말씀을 낭송 후, 예배를 위한 목회 기도를 한다. 이때 시간은 대략 2분정도로 간단하게 한다. 예배에 참여한 회중들이 거의 장년부이고, 오래된 전통탓에 조용한 가운데 기도예 참여하고 있다.

(3) 찬송

찬송가 1장을 회중 모두가 일어나서 다 함께 찬송한다. 이때 전면 스크린에는 PPT를 활용하여 악보와 함께 가사가 나온다. 고령인 교인들도 여럿이 있지만 모두가 함께 일어나서 찬양에 동참하고 있다.

(4) 성서교독

교독문 22번 시편 32편을 예배 인도자와 회중에 돌아가면서 교독을 한다. 이때 교독문도 PPT를 통하여 화면에 나오나, 많은 성도는 들고 있는 찬송가의 교독문을 보고 교독한다. 예배 인도하는 담임목사는 교독을 할 때 인도자가 할 부분만 읽는 것이 아니라, 회중을 돕는 의미로 회중들이 교독하는 부분도 함께 읽어주어서 마이크소리와 회중의 소리의 발란스를 잘 맞추어 주고 있다.

(5) 찬송

자리에 앉아 찬송가 215장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찬양을 한다. 이때도 찬양 반주기를 틀면서 신디사이저를 함께 연주하여 반주를 풍성하게 하고 있고, 예배 인도자의 우렁찬 소리로 예배 분위기가 한껏 돋우고 있다.

(6) 대표기도

대표기도 순서를 담당자는 예배 시작 전에 담임목사와 함께 등단하고, 정해진 순서에 의해 강대상에 나와서 대표기도를 한다. 기도 인도자는 기도문을 미리 써와서 기도문을 읽었고 시간은 2분 내외의 시간이 걸렸다.

(7) 교회 소식

주보에 나와 있는 광고를 예배 인도하는 담임목사가 친철히 또박또박 교인들에게 광고를 전한다. 이때 위트있는 말솜씨로 지루하지 않게 잘 전달을 하였고, 전면 스크린에는 광고라는 문구만 나와 있었다. 주보에도 물론 나와 있는 광고지만, 화면에 광고의 대략적인 것을 함께 띄워준다면 회중들이 광고에 더 집중할 수 있었을 것이다.

(8) 봉헌

봉헌시간에는 전통적으로 돌리는 현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고, 예배드리러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밖에 비치되어있는 현금함에 넣고 들어오도록 했다. 찬송가 49장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라는 찬송가를 찬양하며 현금위원들이 현금함에 들어있는 현금을 정리하여 예배 인도하는 목회자에게 전달한다.

(9) 봉헌기도

(10) 특별찬양

성가대의 찬양이 있었다. 찬양대원은 농촌지역이란 환경 탓에 젊은이들이 별로 없고 고령의 교인들이 많은 탓에 50-60대 이상으로 보이는 15명 정도의 여성이 중심이 된 성가대였기에 어려운 찬양은 아니지만, 진지하게 부르는 찬양은 감동을 주었다.

(11) 성경 봉독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을 전면 스크린에 나와 있고, 예배 인도하는 담임목사가 성경을 봉독했다. 이때 커다란 소리와 적당한 속도로 말씀을 읽어주어 회중들이 집중하게 성경본문을 볼 수 있었다.

(12) 설교

예배를 인도한 목회자가 ‘영광을 봅시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다. 설교 도입하기 전에 먼저 교인들 서로 간에 인사를 시켜 분위기를 전환했다. 설교도 딱딱하지 않게 대화식으로 도입을 하면서 진행했다. 이때 화면에는 카메라가 강대상을 비추어 설교하는 목회자를 보여주었다. 설교자의 스피치의 속도는 교인들이 고령인 것을 참조한 듯 천천히 진행되었고, 제스처를 많이 하여 교인들로 집중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설교 중간에 설교내용과 연관 있는 428장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찬양을 불러 교인들로 예배에 참여케 하였다. 이때 스크린에는 PPT를 이용하여 가사가 큰 글씨로 나왔다. 설교를 돕는 예화를 할 때 설교자가 젊은 시절 사역하던 주일학교의 여름성경학교 사진과 학생회 사진을 보여주면서 생동감 있는 자신의 이야기로 예화를 사용하였다. 특히 설교 중에 중요한 문장을 함께 따라 하게 하며 예배 분위기에 집중케 하였다. 설교시간은 대략 35분 정도 하였다.

(13) 결단 기도

설교를 정리하면서 바로 이어 결단의 기도를 하도록 했다. 설교와 관련된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춰 멘트를 하고, 교인들로 통성기도 하도록 했다. 이때 반주를 계속함으로 기도의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찬양은 설교 중에 불렀던 428장 찬양을 재차 사용하여 친숙하게 들리게 하였고, 기도를 마무리할 때쯤 담임목사의 선창으로 회중과 함께 찬양을 불러 기도와 결단의 마무리를 자연스럽게 하였다.

(14) 축도

결단 찬양이 끝나고 바로 이어 축도를 진행했다. 이때 축도의 내용은 단순히 바울의 축도가 아닌 전체 마무리 기도와 함께 한주간 살아갈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는 기도를 한후, 마지막에 바울의 축도로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성가대의 송영이 울려 퍼졌다. 이때 화면에는 축도라는 순서를 보여주고 있다.

3) 특징 및 평가

이상으로 칠산침례교회의 예배를 살펴보았다. 먼저 긍정적인 점은 농촌교회 임에도 불구하고 멀티미디어의 활용을 잘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고령인 노인들을 위해 찬송가나 성경 구절을 큰 글씨로 화면에 띄워주었고, 단순히 PPT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의 모습, 성가대의 찬양하는 모습을 함께 보여주어 지루하지 않게 하였다. 특히 눈에 띄이는 것은 설교 중간에 사진자료를 사용할 때 평범한 사진이지만, 사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함으로 회중들이 충분히 공감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설교 주제와의 적절한 연관성이 있는 자료를 사용하였기에 청중에게 좋은 반응을 보일 수 있었다.

멀티미디어 자료를 화려하게만 한다고 해서 잘 사용한다고 할 수 없다. 칠산침례교회는 화려한 영상이나 세련된 화면 같은 것은 많지 않았지만, 예배에 참여한 대다수의 노인층을 고려함이 이들에게 어색하지 않은 편안함과 배려가 돋보였다. 121년 된 전통적인 교회에 드리는 전통적인 예배. 그러나 그 내용은 전통과 현대를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였다.

4. 용안침례교회

1) 용안침례교회에 대한 개요

전라북도 익산시 용안면에 위치한 용안침례교회는 올해로 교회가 설립된 지 118년 되는 역사 깊은 교회이다. 1900년 한국에 복음을 들고 스테그만 선교사는 침례 받은 교인들을 중심으로 23개의 학습반을 세웠고, 뒤를 이어 펙워 선교사가 이중 성공적으로 자라고 있던

12개의 학습반을 택해 독자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였다. 이 중에 용안학습반이 용안침례교회의 시작이 되었다. 118년의 역사 속에 3명의 외국인 선교사(폴링, 스테그만, 펜위)와 신명균, 장석천, 김용해목사를 거쳐 1946년 담임목회가 시행된 후 9명의 목회자가 사역을 했다.¹³² 현재 사역하고 있는 김한식 목사는 2012년 5월에 9대 담임목사로 부임하여, 건축한지 30년이 된 오래된 예배당을 5번째로 건축하였다.¹³³ 용안침례교회의 예배는 주일 낮 예배(오전 10시 30분)와 주일 오후 예배(오후 2시), 수요일 저녁예배(저녁 8시), 그리고 매일 새벽 5시에 새벽예배가 있다. 이 중에 주일 낮 예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예배 분석

<그림 4> 용안침례교회 6월 27일 예배 순서지

주 일 낮 감 사 예 배		
■ 오전: 10시 30분		■ 인도: 김한식목사
경배와 찬양	35장 큰 영광로신 주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다 같이
기원	-----	인도자
♣ 찬송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다 같이
♣ 교독문	교독문44번(시편100편)	다 같이
기도인도	-----	최동현 집사
환영및 교회소식	-----	인도자
성경봉독	이사야43:14-21(구1020)	인도자
찬양대찬양	"나 기도합니다."	호산나찬양대
봉헌기도	-----	담임목사
말씀선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김한식 목사
♣ 찬송	635장 하늘에 계신	다 같이
♣ 축도	-----	담임목사
♣ 표는 일어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132) 조병산, 「용안침례교회 112년사」 (전북: 용안침례교회, 2012), 76-7.

133) 김한식, 「용안침례교회 요람」 (전북: 용안침례교회, 2017), 7.

(1) 경배와 찬양

예배 전에 담당 전도사의 인도로 복음성가로 대략 20분 정도 찬양을 하며 교인들의 마음이 예배에 집중되도록 한다. 찬양의 선곡은 교인들의 연령과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고령층도 쉽게 아는 찬송가 위주로 선곡을 하였고, 찬양 인도하는 전도사와 함께 찬양팀으로 6명의 교인들이 함께 나와서 찬양을 한다. 이때 전면 스크린을 통해 찬양 악보가 나와 성도들의 찬양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돕는다.

(2) 기원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 인도하는 목회자가 자연스럽게 강단으로 등단하여 찬양이 끝나면서 자연스럽게 목도할 것을 알린다. 이때 찬양대의 찬양이 울려 퍼지고, 후에 인도자의 예배 기원하는 기도를 한다. 전면 스크린에는 순서에 대한 알림이 나온다.

(3) 찬송(일어서서)

전 교인이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20장(큰 영광 중에 계신 주)을 함께 찬양한다. 이때 강단 전면에 있는 스크린으로 악보가 나와 있는 찬송가 화면이 나온다. 이때 화면에는 악보와 함께 찬양 가사가 나오는 화면이 보인다.

(4) 교독문

교독문 44번 시편 100편을 인도자와 회중이 함께 교독한다. 전면 스크린에 교독문 영상이 PPT를 통하여 나온다.

(5) 기도 인도

기도순서를 담당하는 성도가 강단으로 나와 대표 기도를 한다. 이때 기도 내용을 종이에 적어와서 기도를 하여 중언부언하지 않고 3분 정도의 시간을 기도하였다. 기도 후 성가대의

기도 송이 이어진다.

(6) 환영 및 교회 소식

(7) 성경 봉독

(8) 찬양대 찬양

호산나 찬양대의 ‘나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이 진행된다. 이때 화면에는 순서에 대한 소개가 나온다. 그리고 찬양대의 찬양하는 모습이 카메라를 통해 화면에 나온다.

(9) 봉헌 기도

찬양대의 찬양 중에 드러진 헌금이 인도자에게 전달해지고, 예배 인도하는 담임목사의 봉헌기도가 이어진다. 기도의 내용은 구체적인 헌금에 대한 기도를 하였고, 바로 다음에 있을 설교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하였다.

(10) 말씀 선포

이날의 말씀의 제목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이다. 용안침례교회는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한 지가 1년이 되었다. 근 1년여 시간을 공사하며 고생한 성도들에 대한 감사의 말로 설교의 도입을 하고, 2017년 7월 3일 교인들과 자체적으로 행한 성전 헌당예배 때 영상을 편집하여 보여주며 그날의 감동을 다시 생각나게 한다. 주로 순서 담당자는 교인들이다. 교인의 기도, 교인의 건축보고, 교인의 축사, 교인의 권면 등 화면이 나올 때 자신들의 이야기이기에 더 집중되는 효과를 보인다.

말씀 선포 시 강단 스크린에 설교자의 상반신 모습이 나오고, 아래에 성경 구절과 제목이 함께 나온다. 교회 뒷자리에 앉아 있는 이들을 위한 배려로 설교자의 모습이 스크린을 통해서

나온다. 그리고 예배 중간마다에 회중석을 비추어주어 하나의 화면으로 지루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잠시 바꾸기도 했다. 총 설교시간은 30여 분 정도가 되었다. 설교 후 설교자의 마무리 기도로 설교를 마쳤다.

(11) 찬송

찬송가 635장(하늘에 계신)을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한다. 이때 화면에는 찬양 악보와 가사가 함께 나온다. 성도들은 대부분 찬송가를 보지 않고 화면을 보면서 찬양을 따라하며 시선을 앞을 향하고 있다.

(12) 축도

인도자의 축도로 예배의 모든 순서가 마쳤다. 축도 후 성가대의 찬양이 나왔고, 교인들이 퇴장하면서 인사를 나눌 때 성가대가 '축복합니다'라는 찬양을 함께 손뼉을 치면서 불러주었다. 이때 화면에는 성가대의 찬양하는 모습이 나온다.

3) 특징 및 평가

용안침례교회는 새로 교회건축을 하면서 영상 장비(대형 스크린, 신형LCD 프로젝터, 비디오 카메라 2대 등), 성능이 좋은 음향 장비를 잘 갖추었다. 이 모든 장비는 담당 전도사가 예배당 오른쪽 방송실에서 운영하고 있었다. 주로 사용되는 것은 PPT였지만, 중간 중간에 카메라로 본당 내부, 성가대, 설교자를 찍는 영상이 나왔다. 그리고 그날 예배를 녹화한 것을 교회 인터넷카페를 올려 교인들이 볼 수 있도록 도왔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설교도입에 사용한 영상이었다. 1년전 현당식 영상을 보여줌으로 다시금 당시의 열정과 감동을 기억나게 하였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본인들의 이야기였기에 설교 도입에 효과적이었다. 용안침례교회는 먼 단위 농촌에 있는 교회지만, 예배당의 분위기나 장비 등은 도시의 있는 교회들에 뒤지지 않는 시설이었다. 좋은 멀티미디어

장비를 가지고 예배에 잘 활용하여 전체적인 예배 분위기도 밝고 힘이 있었다.

5. 가신침례교회

1) 가신침례교회에 대한 개요

본 연구자가 사역하는 가신침례교회는 1958년 4월에 설립된 올해로 60년이 되는 오래된 교회이다. 위치는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가신리에 있는 ‘리’ 단위의 작은 지역의 교회이다. 교인들 대다수는 농업에 종사하고, 고령의 교인들이 80% 정도를 차지하는 전형적인 한국의 농촌교회이다. 본 연구자가 부임한 지는 17년째가 되는데, 처음 부임하였을 때 교회는 재정적으로도 어려웠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 상황이었다. 예배는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찬송은 찬송가만 사용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부임 후 가장 먼저 한 것은 방송 앰프 시설의 교체였다. 수십 년 사용한 앰프로 인해 예배 때 마이크 사용의 어려움이 많았다. 그리고 56인치 프로젝션 TV와 노트북을 구입하여 예배 때마다 PPT를 이용하여 찬송 가사와 성경 구절, 설교 대지 등을 보여주고, 때에 따라 동영상들을 사용하였다.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찬송가와 성경을 찾던 예배에서 모두가 TV를 향해 고개를 들고 설교자를 쳐다보는 변화가 생겼다. 16년 전 당시만 해도 임천면 내 15교회 중 예배 때 영상을 사용하는 교회가 없던 때였는데, 리 단위에 있는 작은 교회지만 영상을 활용하여 예배한다는 것은 새로운 시도였다. 그리고 지금도 새벽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엔 PPT를 활용하여 찬양과 성경 구절, 설교 대지 및 순서 등을 보여주면서 예배를 진행하고 있다. 예배 때 반주는 디지털 피아노를 활용하고, 경우에 따라 첼로를 곁들여 찬양한다. 그리고 스마트 폰의 찬양 앱과 성경 앱을 활용하여 새벽예배에 사용하고 있다.

2) 예배 분석

모든 예배를 분석할 수 없어 7월 2일 맥추 감사주일 낮 예배를 분석해 보겠다.

<그림 5> 가신침례교회 7월2일 주보 2면

주일 낮 예배	
7월 2일	행복을 만드는 한 가지(살전 5:18)
9일	삼의 주인을 바꾸라(롭 14:7-8)
16일	삼에 오랫동안 필요한 한 가지(신 34:1-7)
23일	너를 위로하노라(시편 4:1-8)
30일	사랑받는 자가 되라(골 3:12-14)

(백주감사주일)	
오전 10:30	인도 : 황인준목사
예배로 부름 / 마 28:20	
예 배 기 원 / 인 도 자	
비전 선언문 / 다 같 이	
영 광 찬 송 / 593장(아름다운 하늘과)	
교 독 문 / 105번 감사절(1)	
헌 금 봉 헌 / 다 같 이	
봉 헌 찬 양 / 감사에 대한 영상	
봉헌 및 목회기도 / 담임목사	
성 경 봉 독 / 살전 5:18	
선 포 / 행복을 만드는 한 가지	
확신과 응답과 헌신의 기도 / 다같이	
찬 양 /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축 도 / 담임목사	
교 회 소 식 / 인 도 자	
피송의 노래 / 축 복 송	

설교 요약
<p>행복을 만드는 한 가지 (살전 5:1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나이가 들거나 죽음이 임박하면 마음이 너그러워지며 감사가 커집니다. 2. 지금 살아있음의 경이로움을 느낄 때도 감사가 커집니다. 3. 영광스러운 영생이 하늘나라에서 곧 시작됨을 알 때 감사가 커집니다. <p>범사에 감사합시다!</p> <p>우리교회 예배에는 감동과 치유와 축복이 있습니다.</p>

(1) 예배 전 찬양

가신침례교회는 주일 낮 예배시간이 오전 10시 30분이다. 교인들이 대다수가 교회 인근에 거주하기에 예배시간 30분 전부터 교회로 온다. 예전에는 15분 전부터 예배 인도자가 미리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찬양을 했는데, 항상 똑 같은 형식을 탈피하고자, 2달 전부터 유튜브에 나와있는 찬양 영상을 편집하여 20분 정도(대략 5곡 정도)로 끊기지 않는 찬양 영상을 PPT를 활용하여 강대상 앞에 있는 대형TV를 통해 틀어 놓는다. 미리 온 교인들인 이때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 예배를 준비한다. 그리고 예배 시작 5분 전에 예배 인도 목회자가 강단에 올라 '하나님 한 번도 나를'이라는 복음성가를 2번 힘차게 찬양한다.

(2) 예배로 부름

반주자의 찬양 반주에 맞춰서 교인들이 기도 자세를 취한다. 이때 예배 인도자는 예배 부름에 맞는 구절인 마태복음 28:20을 천천히 낭송한다. 화면에는 마태복음 성경구절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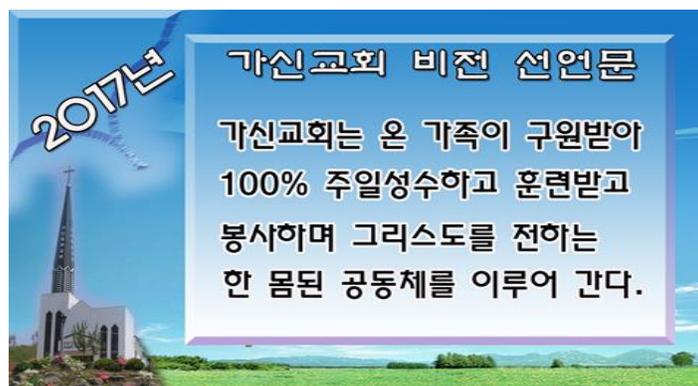
(3) 예배 기원

예배로의 부름 성경 구절을 낭송 후 바로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한다. 이때 시간은 1분 내외로 예배에 대한 부분만을 가지고 인도자가 기도한다. 화면에는 예배 기원이라는 순서를 보여주고 있다.

(4) 비전 선언문

교회의 비전선언문을 만들어서 예배 시작할 때 전 교인이 함께 선언한다. 내용은 “가신 교회는 온 가족이 구원받아 100% 주일성수하고 훈련받고 봉사하며 그리스도를 전하는 한 몸 된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이다. 이때 아래 그림에 있는 비전선언문이 화면을 통해서 함께 나온다. 온 교인들이 화면에 나와 있는 선언문을 함께 보고 읽어 나간다. 처음에 교회에 온 사람도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도록 커다란 글씨로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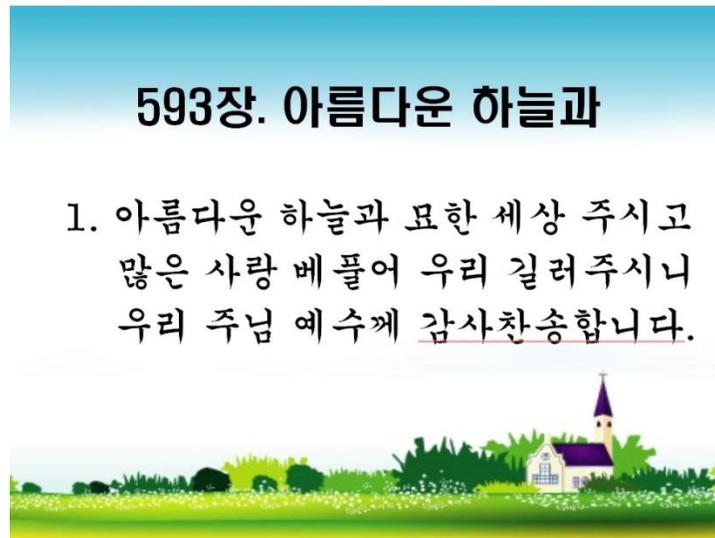
<그림 6> 가신교회 비전 선언문



(5) 영광 찬송

맥추 감사주일이기에 찬송가 593장(아름다운 하늘과)을 다 함께 부른다. 이때 화면에는 찬송가 PPT가 나온다. 디지털피아노의 반주에 맞추어서 찬양 화면을 보면서 온 성도들이 함께 찬양을 한다.

<그림 7> 찬송가 593장 찬양 PPT



(6) 교독문 / 105번 감사절(1)

감사절에 대한 교독문 105번 감사절(1) 말씀을 인도자와 회중이 함께 교독한다. 이때 화면의 글씨가 좀 작은 듯하여 시력이 좋지 않은 이들에겐 좀 불편해 보였다. 글씨를 좀 더 크게 해야 할 필요성이 보인다.

<그림 8> 교독문 105번 PPT 화면



(7) 헌금 봉헌

가신침례교회는 예배 중간에 헌금통을 돌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러 교인들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입구 옆에 있는 헌금함에 헌금한다. 헌금봉헌시간에는 헌금위원이 헌금함에서 드러진 헌금을 잘 정리하여 인도자에게 갖다 준다.

(8) 봉헌 찬양

평소에는 헌금봉헌 시간에 봉헌의 의미를 주는 복음성가 찬양을 주로 한다. 하지만 이때는 맥추 감사주일이기에 감사에 대한 영상을 보면서 감사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다. 유튜브에서 구한 “맥추절을 지켜라”라는 1분 53초짜리 첫 열매를 드리는 짧은 영상을 통해 맥추절의 의미를 생각하게 했다.

<그림 9> PPT를 통해 보여준 맥추절을 지키라는 동영상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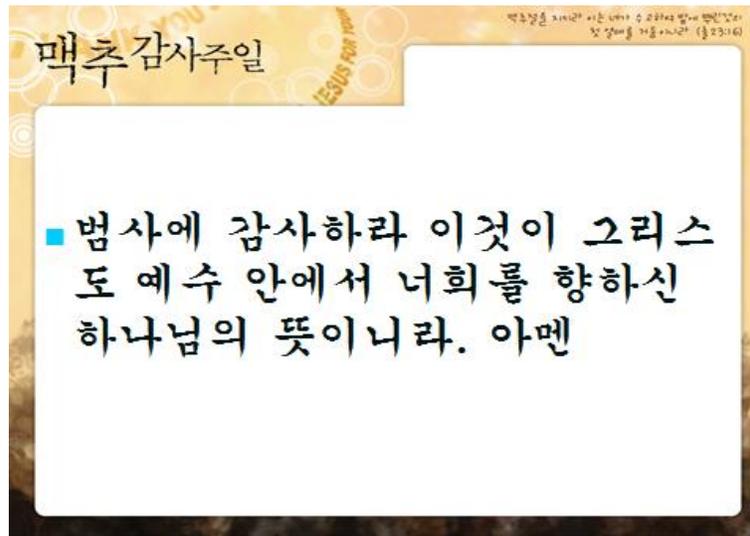
(9) 봉헌 및 목회기도

예배 인도하는 목회자는 헌금위원이 갖고 온 헌금함을 받아 들고, 교인들을 위한 헌금 축복 기도와 더불어 목회 기도를 한다. 이때 헌금한 이들의 이름은 호명하지 않지만, 십일조, 선교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순으로 각 헌금에 대한 기도를 한다. 이때 화면은 헌금기도라는 글씨가 나온다.

(10) 성경 봉독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화면을 통해 보여주면서 인도자가 봉독한다. 이미 화면에 나와 있는 성경구절이기에 성경을 찾는 시간은 따라 주지 않고 봉헌기도후에 바로 화면을 바꾸고 성경봉독을 한다. 이날은 한 구절이었지만, 구절이 많은 경우는 성경봉독 앱을 이용하여 성우가 직접 낭송하는 부분을 틀어주어 새로움과 집중도를 높인다.

<그림 10> 데살로니가 전서 5:18절 성경구절 PPT 화면



(11) 선포

설교자는 본문을 가지고 “행복을 만드는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3대지 설교를 하였다. 서두에 긍정적인 예화를 먼저 언급하면서 행복을 만드는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설교 시간은 대략 25분 내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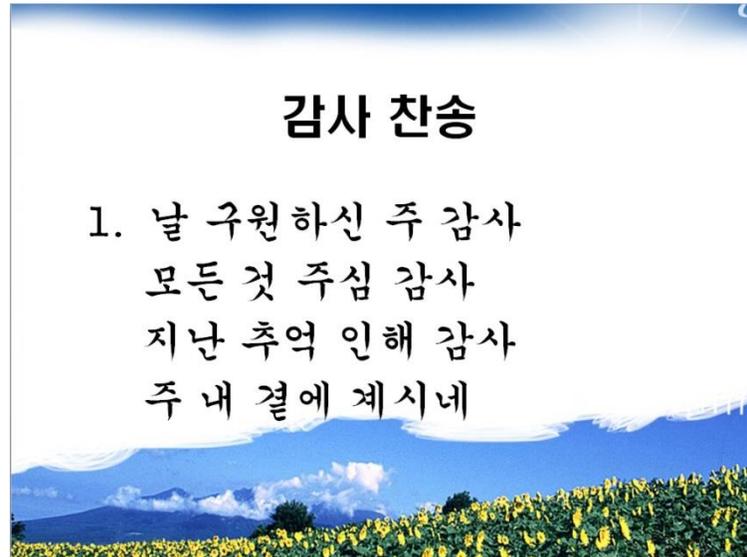
(12) 확신과 응답과 헌신의 기도(통성기도)

설교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합심 기도를 한다. 이때 설교자는 설교의 대략적인 내용의 멘트를 해주고 반주자는 기도 후에 함께 부를 감사찬양을 반주한다. 그리고 뜨겁게 기도를 한다.

(13) 결단 찬양

통성기도가 거의 마무리가 될 때 인도자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을 함께 하도록 인도한다. 기도후의 결단찬양이기에 좀 더 천천히 설교자가 선창을 하면서 부르면 자연스럽게 회중들이 따라서 한다. 이때 미리 준비한 찬양 PPT도 활용한다.

<그림 11> 감사찬양 PPT



(14) 축도

감사찬양을 마무리하며 인도자는 설교 말씀을 정리하는 내용의 확신과 응답을 위한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는 바울의 축도를 하면서 예배를 마무리 한다. 이때 강단 앞 화면에 축도를 알리는 화면을 띄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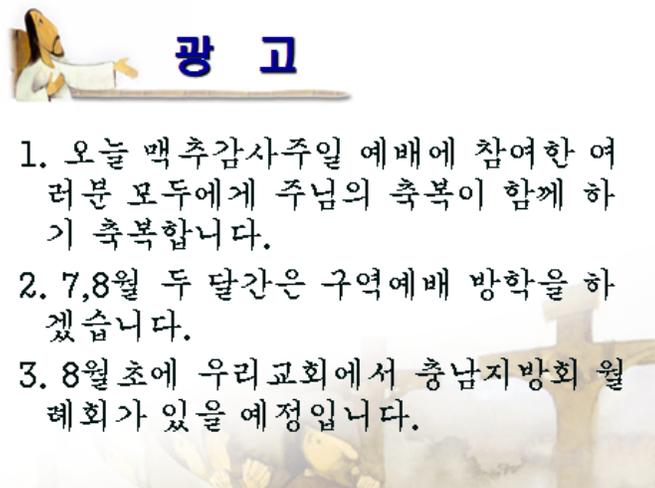
<그림 12> 축도 순서를 알리는 PPT



(15) 교회 소식 / 인도자

교회 소식을 맨 마지막으로 넣은 것은 예배 중간에 광고가 들어가면 예배의 흐름에 방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서 축도를 마치고 파송의 노래를 하기 전에 광고한다. 광고는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PPT를 활용 화면에 보여주면서 인도자가 하나 하나 설명해 준다.

<그림 13> 예배 광고 PPT



(16) 파송의 노래

모든 순서를 마친 후, 파송의 노래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라는 축복송을 함께 찬양을 한다. 매주 마다 부르는 찬양이기에 회중들은 잘 따라 부르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서로를 축복하면서 인사를 한다.

<그림 14> 축복과 격려의 시간 PPT



3) 특징 및 평가

가신침례교회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약자에 대한 배려이다. 교인 중 상당수가 문맹이거나 알더라도 잘 읽을 수 없는 처지의 고령자이기에 이들을 배려하는 의미로 멀티미디어를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예배시간에 모든 PPT 진행은 예배 인도자인 목회자가 한다. 3M에서 나온 무선마우스를 활용하여 정해진 Que-Sheet에 의해 미리 PPT를 준비해 놓고, 정해진 순서대로 무선마우스를 이용하여 진행한다. 인도자가 모든 것을 조작하면 좋은 것이 예배의 흐름에 맞게 타이밍을 조절할 수 있고, 모든 PPT를 작성하였기에 착오 없이 진행하기에 수월하다. 이런 영생매체를 활용하여 변화된 것은 교인들이 예배시간에 고개를 든다는 것이다. 고개를 들어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설교자를 쳐다보고 하니 예배의 분위기가 생동감이 있고, 은혜롭게 진행이 된다.

6. 소결론

이상으로 분당우리교회, 울산감리교회, 칠산침례교회, 용안침례교회, 가신침례교회 5 교회에 대한 예배를 살펴보았다. 분당우리교회 예배는 어렵지 않고 청중의 삶을 터치하는 적용이 강한

설교와 이를 뒷받침하는 세련된 멀티미디어 활용이 예배에 집중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특히 예배순서를 보여주는 화면은 디자인의 통일성으로 인해 청중들의 예배 집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울산감리교회는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더욱 풍성한 예배를 실현한 교회로 청중들이 듣는 설교가 아닌 보고 참여하는 예배를 진행하였고, 감동적인 영상 활용을 통해 예배를 더욱 풍성하게 하였다. 농촌에 위치한 칠산침례교회와 용안침례교회의 경우는 기존의 전통적인 예배 순서를 유지하되 멀티미디어 활용으로 교인들의 예배 참여도를 높였다. 가신침례교회는 도시교회처럼 세련됨은 없지만, 고령인 교인들을 배려하여 화면의 글씨도 대체로 크고 하였고, 모든 예배 순서를 화면에 자세히 알려주어 교인들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5교회의 멀티미디어 영상을 예배에 활용시 고려해야 할 점을 정리해 본다면 첫째, 화면이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조잡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예배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 둘째, 화면의 통일성이 중요하다. 너무 다른 성격의 화면이 나오게 되면 시선을 빼앗기게 되어 예배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 셋째, 화면의 배경이 그날의 예배의 주제와 연관성이 있는 화면을 사용해야 한다. 주제에 맞지 않는 화면은 사용안하는 것이 낫다. 넷째, 지나치게 많은 화면 효과는 오히려 역효과를 주어 예배의 집중도를 방해하게 된다. 간단한 효과 사용이 좋다. 다섯째, 늘 같은 디자인만 고집하면 청중의 입장에서 지루하게 느껴진다. 절기나 시기에 적절한 화면의 변화도 필요하다.

제 4 장

설문 조사 분석

1. 설문지의 내용

1) 설문지 목적

본 설문지 목적은 교회 내에서 예배 때 멀티미디어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멀티미디어 사용의 방향을 찾는 데에 있다. 특히 설문결과를 통해 농촌교회에서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예배를 활성화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찾고 분석하여 논문에 사용하고자 한다.

2) 참가자

본 설문지 참가한 사람은 모두 30명이다. 그 중에 목회자가 16명(53%)인데, 모두 담임목회자이다. 또한 평신도 중에 14명(47%)이 참석하였다. 교단 별로는 침례교와 성결교, 그리고 장로교에 속한 목회자와 평신도들이다.

3) 설문 절차와 방법

본 연구는 리버티 대학교의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를 통해 승인받은 설문 동의서(Consent Form)를 설문지 응해준 분들에게 먼저 E-Mail로 보낸 후, 개인적으로 직접 만나서 불펜을 이용하여 설문지에 쓰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총 설문 시간은 대략 2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4) 설문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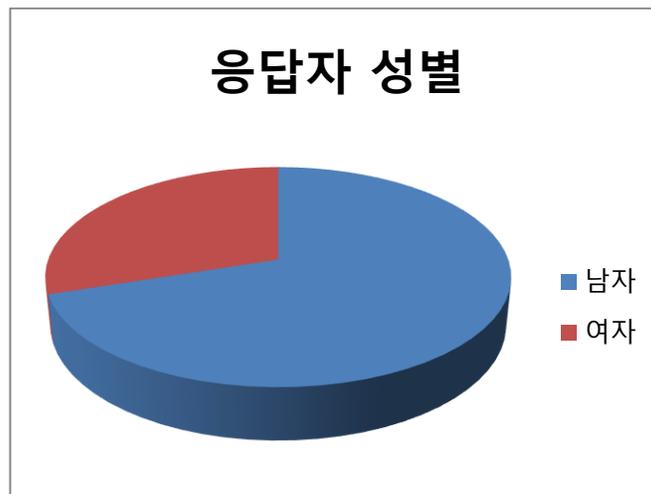
총 질문은 28문항으로 구성되었고, 크게 3분류의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1번 문항에서 7번문항은 개인적인 질문, 8번 문항부터 19번 문항까지는 목회자에게 묻는 질문, 20번부터

28번까지는 평신도들에게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2. 설문 결과

본 연구자는 설문 참가자들이 작성한 설문지를 정리하여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12. Version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나온 데이터 결과를 MS-Word 도표를 통하여 정리하였다. 그래프의 모양은 원형이고, 단위는 퍼센트(%)를 썼다.

<그림 15>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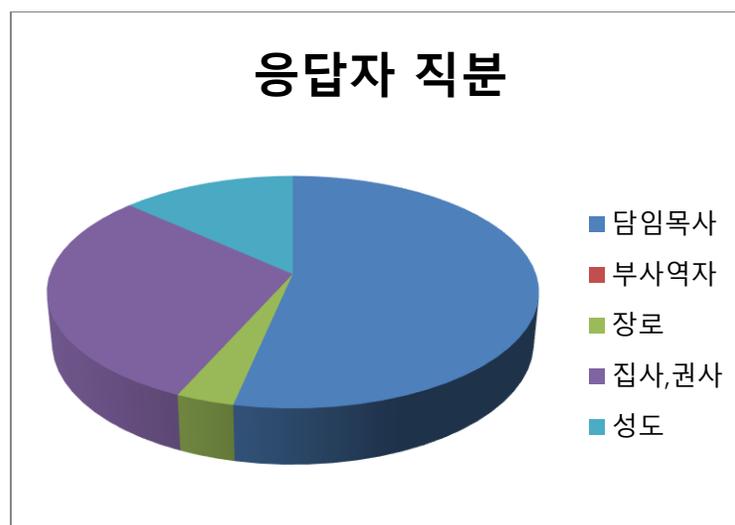
이 질문에 응답한 이들은 모두 30명이었다. 그 중에 남자는 21명(70%), 여자는 9명(30)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16> 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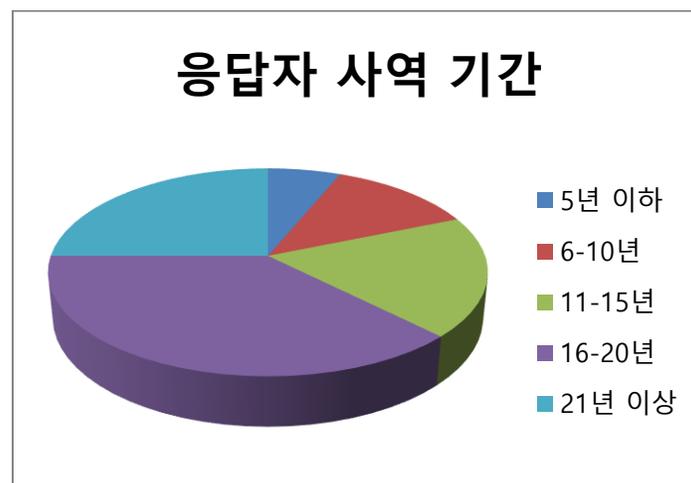
이 질문에 대답한 이들 중에 30-39의 응답자는 2명으로 전체에서 6.7%를 차지한다. 40-49세의 응답자는 15명으로 전체 참가자중 50%를 차지한다. 50-59세의 응답자는 10명으로 전체 응답자중 33.3%를 차지한다. 마지막으로 60세 이상의 응답자는 모두 3명으로 전체 응답자중에 10%를 차지 하였다.

<그림 17> 교회 내 직분



이 질문에 응답한 사람은 총 5부류가 있는데, 부교역자는 없어 4부류의 응답자가 나왔다. 첫째 담임목사는 응답자중에 16명으로 전체 응답자중에 53.3%를 차지하였다. 평신도 중 장로라고 응답한 사람은 1명으로 전체 응답자중에 3.3%를 차지하였다. 집사와 권사라고 답한 사람은 9명으로 전체 응답자중에 30%를 차지하였다. 마지막으로 성도라고 응답한 사람은 4명으로 전체 응답자중에 13.3%를 차지하였다.

<그림 18> 사역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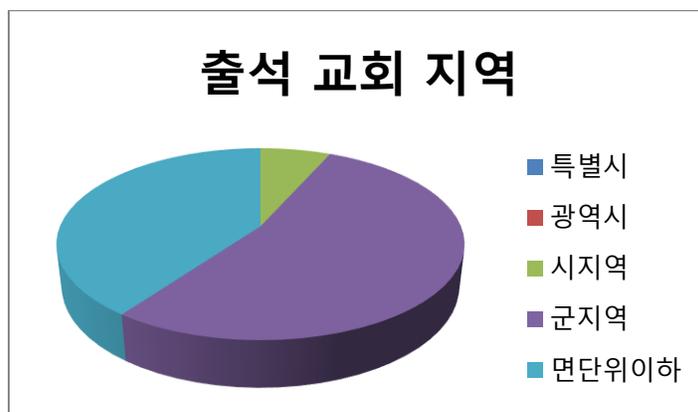
이 질문은 응답자가 교회사역을 한 기간을 묻는 질문이다. 5부류의 대답이 나왔다. 응답자중 5년 이라고 응답한 이는 1명으로 전체 응답자중에 6.3%를 차지한다. 6-10년간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모두 2명으로 이는 전체 응답자중에 12.5%를 차지한다. 11-15년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모두 3명으로 이는 전체 응답자중에 18.8%를 차지한다. 16-20년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모두 6명으로 전체 응답자중에 37.5%를 차지한다. 마지막으로 21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4명으로 전체 응답자중에 25%를 차지하였다. 응답에 응해준 목회자들의 10년 이상 사역을 하였다고 응답하는 목회자가 대다수여서 다양한 사역의 경험에서 나오는 설문 결과에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그림 19> 교회 다닌 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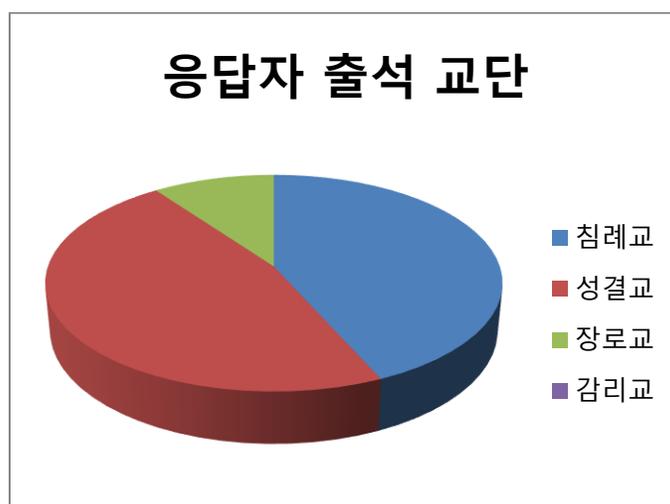
이 질문은 응답자가 모두 4가지 부류의 응답을 하였다. 교회 출석 2년 이하라는 응답은 모두 2명이 하였고, 이는 전체 응답자의 14.3%를 차지한다. 교회 출석 5~10년이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모두 1명으로 전체 응답자중 7.1%를 차지한다. 교회 출석 10~15년이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모두 2명으로 전체 응답자중 14.3%를 차지한다. 마지막으로 교회 출석 15년 이상이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모두 9명으로 전체 응답자중 64.3%에 해당된다. 이상의 결과로 보면 이번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들은 신앙생활을 오래한 교인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이는 지역적으로도 교회들의 설립연도들이 오래된 것과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0> 출석 교회 위치한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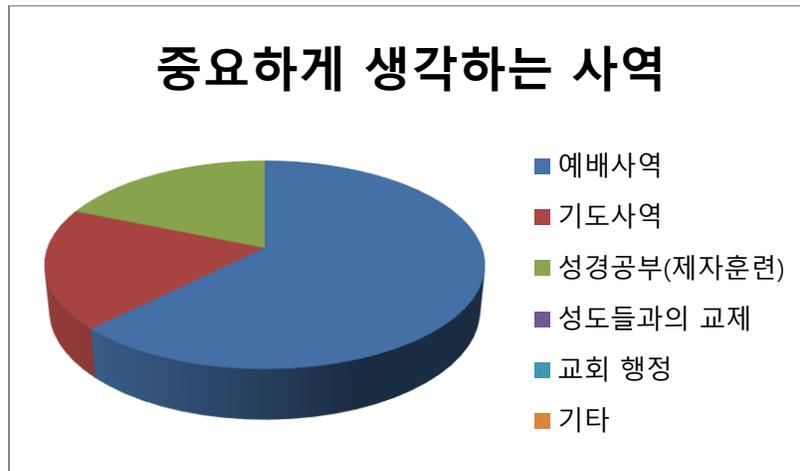
이 질문에 응답한 이들은 세 부류였다. 특별시와 광역시에 거주하는 이들은 없었고, 시 지역, 군 지역, 면 단위 이하의 지역에 거주한다는 답을 하였다. 그 중에 시 지역에 거주한다는 응답자는 2명으로 전체 응답자중에 6.7%를 차지하였다. 군 지역에 거주한다는 응답자는 16명으로 전체 응답자중에 53.3%를 차지하였다. 마지막으로 면 단위 이하에 거주한다는 대답은 12명이었는데 이는 전체 응답자중에 40%를 차지하였다.

<그림 21> 응답자 출석 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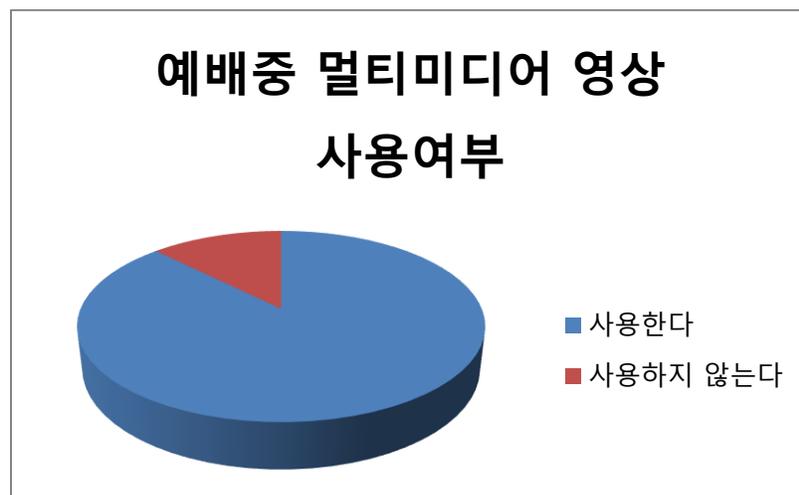
이 질문에 대한 응답자의 대답은 침례교, 성결교, 장로교에 출석한다는 세 부류의 응답으로 정리가 된다. 이들 중 침례교에 출석하는 응답자는 모두 13명으로 전체 응답자중에 43.3%를 차지하고 있다. 성결교에 출석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모두 14명으로 전체 응답자중에 46.7%를 차지하였다. 마지막으로 장로교에 출석한다는 응답자는 모두 3명으로 전체 응답자중에 10%를 차지하였다.

<그림 22> 응답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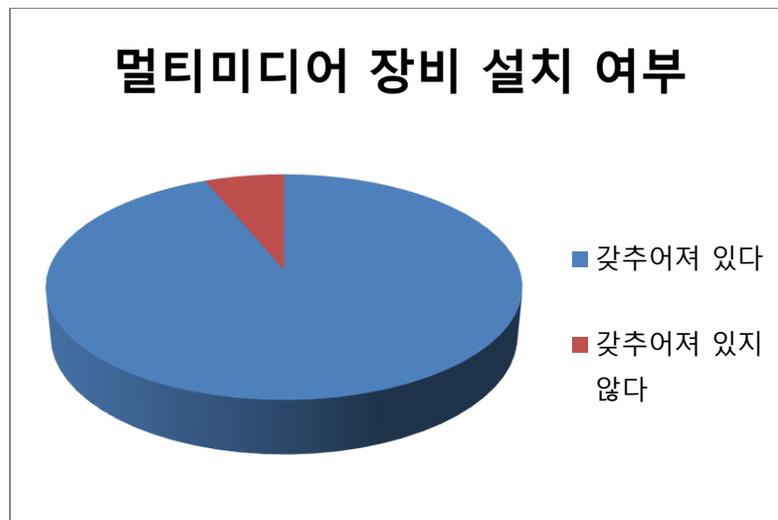
이 질문에 대한 응답자들의 대답은 세 부류로 구분이 된다. 예배사역, 기도사역, 성경공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든 응답의 결과였다. 나머지 성도들과의 교제, 교회행정들을 선택한 응답자는 없었다. 이들 중 예배사역이 중요하게 생각한다든 응답한 응답자는 10명으로 전체 응답자중에 62.4%를 차지하였다. 기도사역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든 응답자는 3명으로 전체 응답자중에 18.8%를 차지하였다. 마지막으로 성경공부(제자훈련)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든 응답한 응답자는 3명으로 전체 응답자중에 18.8%를 차지하였다.

<그림 23> 멀티미디어 사용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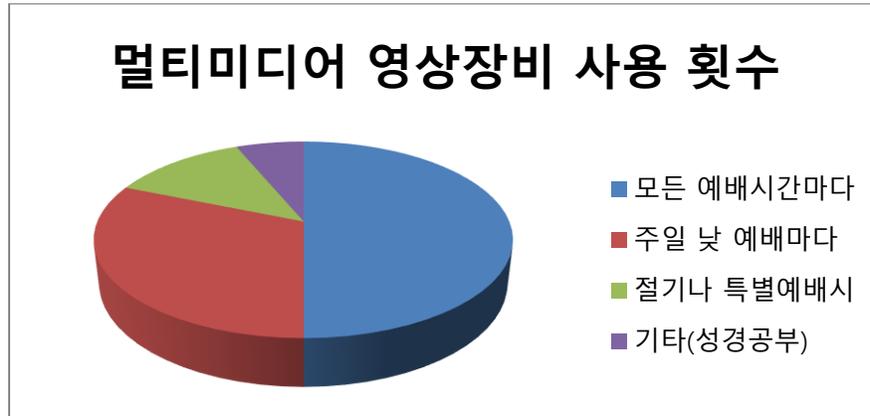
이 질문에 대한 응답자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예배 중에 멀티미디어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14명으로 전체 응답자중에 87.5%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예배 중에 멀티미디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2명으로 전체 응답자중에 12.5%를 차지하였다. 이 응답에서 알 수 있듯이 대다수 목회자들이 멀티미디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대다수 교회들이 멀티미디어 장비를 갖추고 있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고, 나름의 활용 기술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림 24> 멀티미디어 장비 설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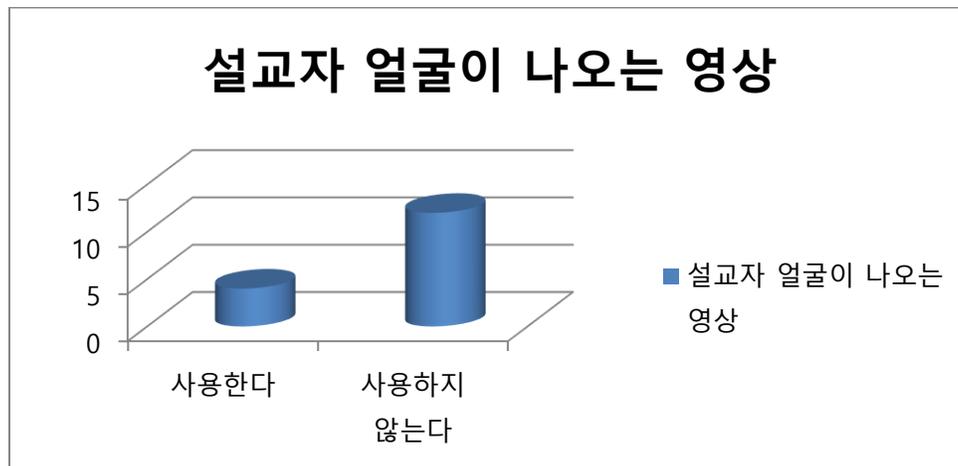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두 부류로 나타난다. 멀티미디어 영상장비를 갖추고 있다는 응답자는 15명으로 전체 응답자중에 93.8%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멀티미디어 영상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다는 응답자는 1명으로 전체 응답자중에 6.3%를 차지하였다. 9번 질문에서 사역에서 영상장비를 사용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14명이었고, 멀티미디어 장비를 설치하였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15명인 것을 보면, 장비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고 있지 않은 응답자는 1명이라고 알 수 있다. 그리고 장비를 갖춘 상황이라면 거의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5> 멀티미디어 영상장비 사용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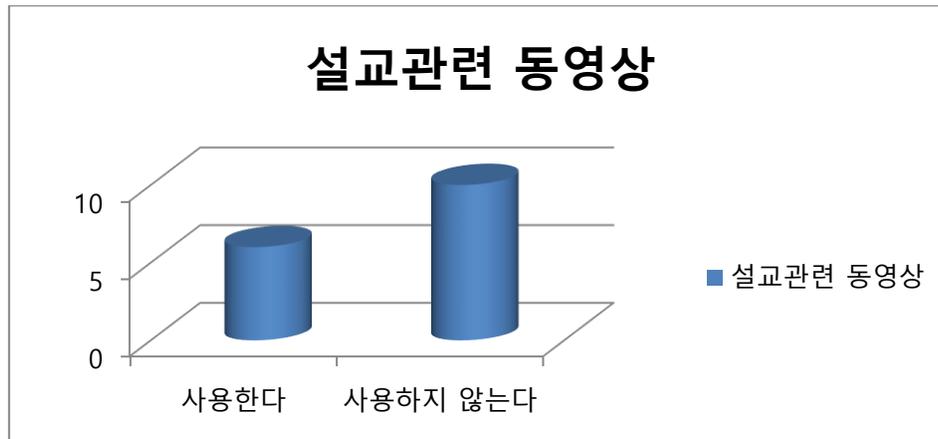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은 다양하게 나왔다. 모든 예배시간마다 영상장비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6명으로 전체 응답자중에 50%를 차지한다. 주일 예배 때만 사용한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5명으로 전체 응답자중에 31.3%를 차지한다. 절기나 특별예배만 사용한다는 응답자는 2명으로 전체 응답자중에 12.5%를 차지한다. 기타 의견으로 성경 공부 때 멀티미디어 영상을 사용한다는 응답자는 1명으로 전체 응답자중에 6.3%를 차지하였다.

<그림 26-1> 설교자의 얼굴이 나오는 영상 사용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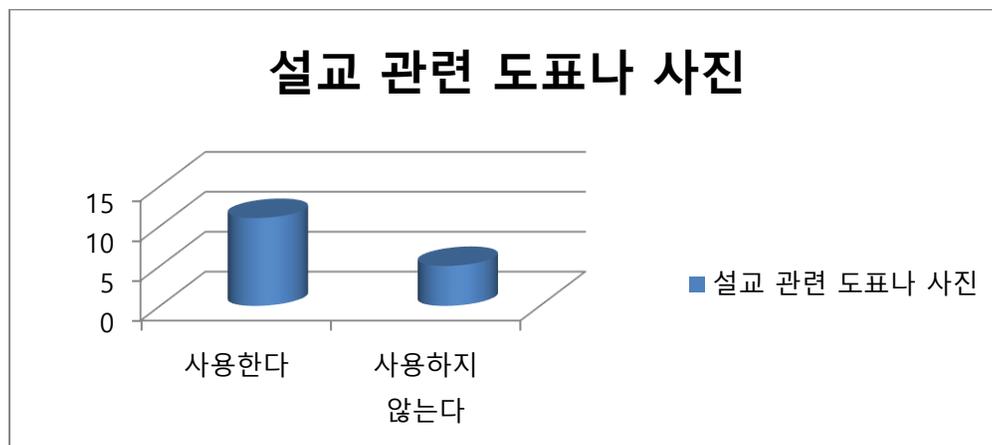
예배 중 설교자의 얼굴이 나오는 영상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대답은 12명으로 전체 응답자중 75%를 차지하고, 사용한다는 응답자는 4명으로 전체 응답자중 25%를 차지했다

<그림 26-2> 설교 관련 동영상 사용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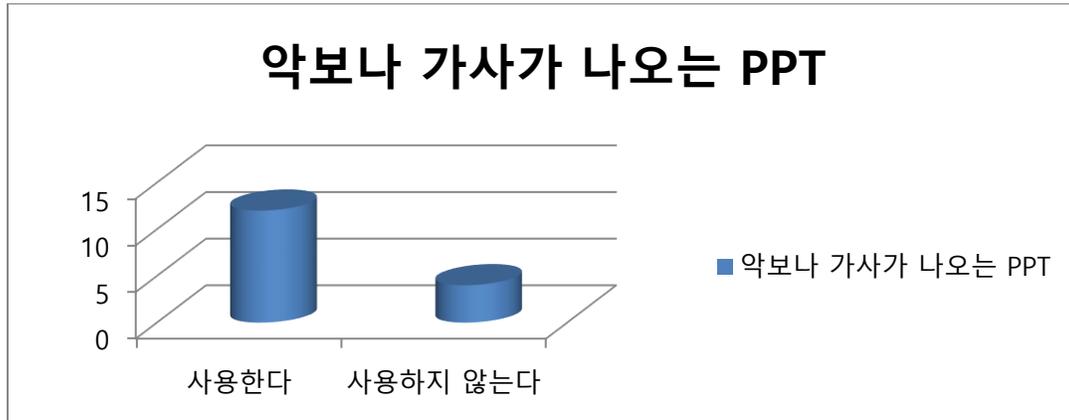
설교와 관련된 동영상 활용에 대해 사용한다는 응답은 6명으로 전체 응답자중 37.5%를 차지하였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10명으로 전체 응답자중 62.5%를 차지하였다.

<그림 26-3> 설교관련 도표나 사진 사용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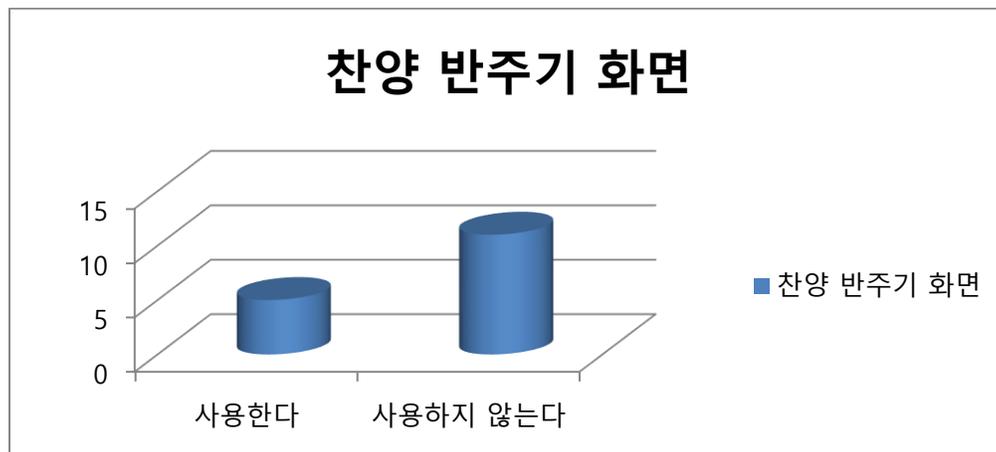
설교와 관련된 도표나 사진 등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응답은 사용한다는 응답자가 11명으로 전체 응답자중 68.8%를 차지하였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5명으로 전체 응답자중 31.2%를 차지하였다.

<그림 26-4> 예배 중 악보나 가사가 나오는 PPT 사용 여부



예배 중 찬양 악보나 가사가 나오는 PPT 사용여부를 묻는 질문에 사용한다는 응답은 12명으로 전체 응답자중에 75%를 차지하였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4명으로 전체 응답자중 25%를 차지하였다.

<그림 26-5> 예배중 찬양반주기 화면 사용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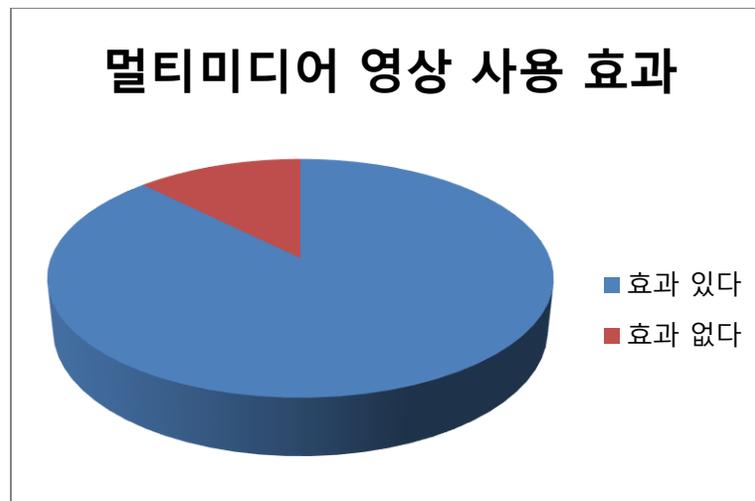


예배 중 사용하는 찬양반주기 화면이 스크린에 나오도록 하여 사용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사용한다는 응답자는 5명으로 전체 응답자중 31.2%를 차지하였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68.8%를 차지하였다.

그림 26-1~26-5의 결과에서처럼 예배 중에 사용하는 멀티미디어의 종류 중 찬양 가사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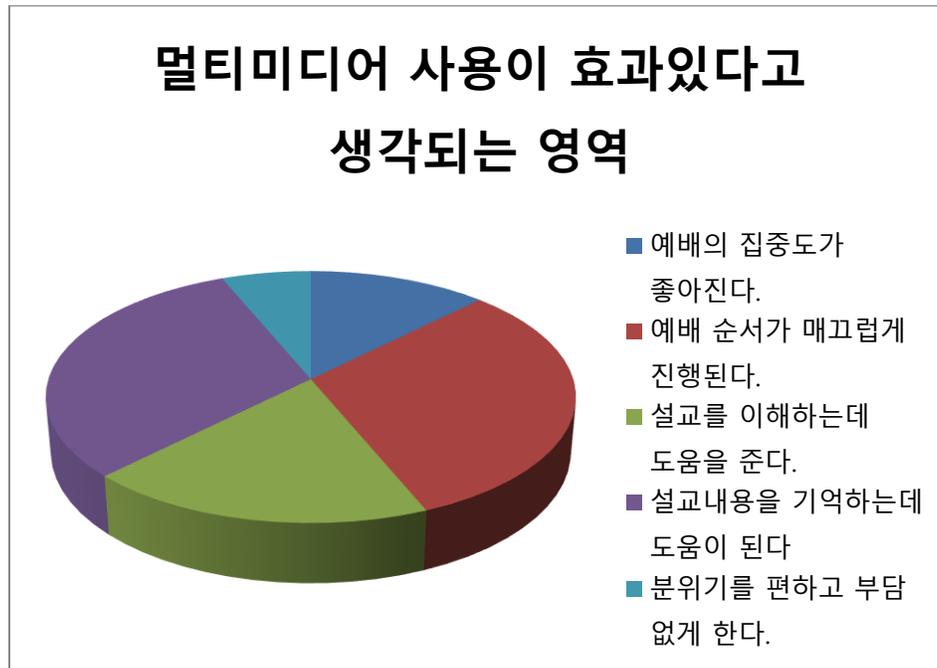
악보가 나오는 영상과 설교나 순서에 관련된 그림, 도표, 사진 등이 나오는 영상 등 비교적 간단한 영상에 대하여는 많이 사용한다는 대답이 나왔고, 어느 정도의 기술을 요하는 동영상 활용이나 설교자의 얼굴이 나오는 영상 사용에 대하여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훨씬 더 많았다. 이 결과로 알 수 있는 것은 거의 모든 교회가 멀티미디어 장비를 갖추고 있는 것에 비하여 사용하는 종류가 한정된 것은 목회자의 사용할 수 있는 기술 여부에 따라 사용하는 종류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그림 27> 멀티미디어 영상 사용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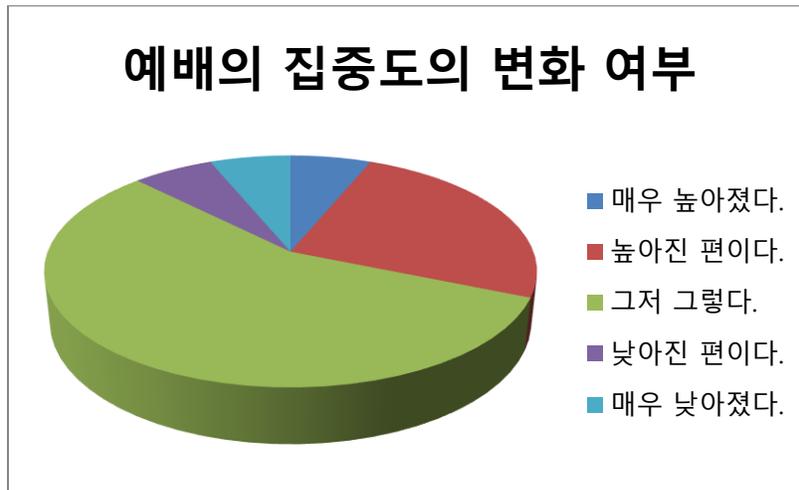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은 두 부류로 정리된다. 멀티미디어 영상을 예배에 사용함이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14명으로 전체 응답자중에 87.5%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멀티미디어를 예배에 사용하는 것이 효과가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2명으로 전체 응답자중에 12.5%를 차지하였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멀티미디어는 예배 사역에서 효과가 있음을 목회자들이 느끼고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림 28> 멀티미디어 사용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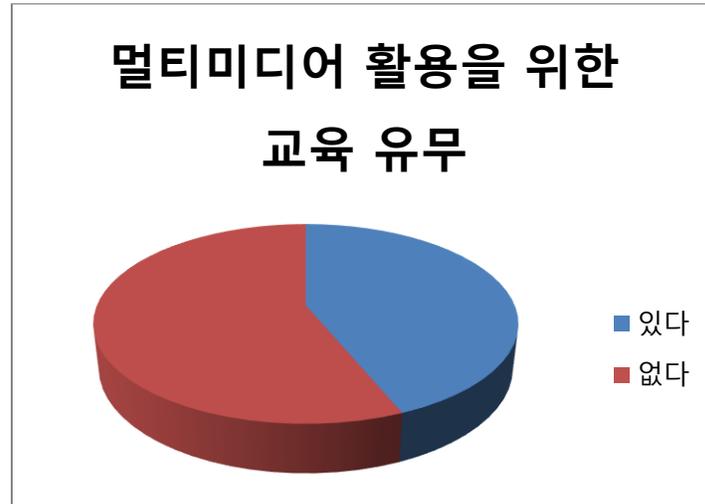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섯 부류로 나왔다. 예배의 집중도가 좋아진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2명으로 전체 응답자중에 6.3%를 차지한다. 예배순서가 매끄럽게 진행된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5명으로 전체 응답자중에 31.3%를 차지한다. 설교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3명으로 전체 응답자중에 18.8%를 차지한다. 설교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5명으로 전체 응답자중에 31.3%를 차지한다. 예배 분위기를 편하고 부담 없게 한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1명으로 전체 응답자중에 6.3%를 차지한다.

<그림 29> 예배의 집중도의 변화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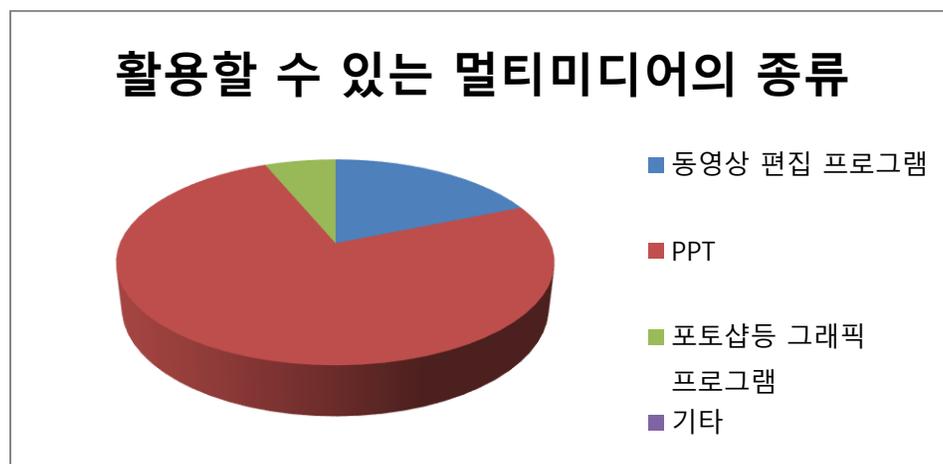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은 다섯 부류로 나왔다. 전통적인 예배에 비해 매우 높아졌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1명으로 전체 응답자중에 6.3%를 차지한다. 높아진 편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4명으로 전체 응답자중에 25%를 차지한다.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9명으로 전체 응답자중에 56.3%를 차지한다. 오히려 낮아진 편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도 1명이 있는데, 이는 전체 응답자중에 6.3%에 해당된다. 그리고 매우 낮아졌다는 부정적인 응답도 1명이 있는데 전체 응답자중에 6.3%를 차지했다. 멀티미디어 영상을 대체로 사용하고 있는 응답자들이 정작 사용하는 멀티미디어 영상을 통해 과거 전통적인 예배에 비한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는 결과가 나왔다(그저 그렇다는 것이 부정적인 면이 강한 것을 판단).

<그림 30> 멀티미디어 활용을 위한 교육, 훈련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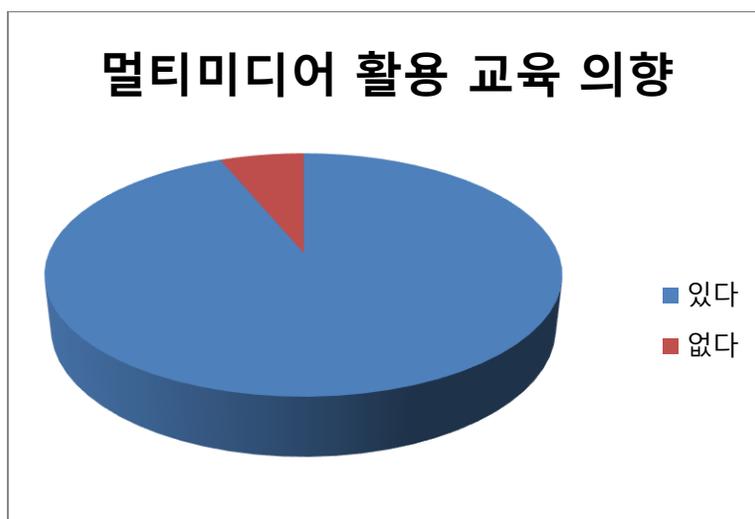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은 두 부류로 볼 수 있다. 멀티미디어 활용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았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7명으로 전체 응답자중에 43.8%를 차지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9명으로 전체 응답자중에 56.2%를 차지한다. 멀티미디어 활용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이 많던 15번 문항의 결과의 원인이 제대로 된 멀티미디어 교육이나 훈련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용한 것이 원인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림 31> 활용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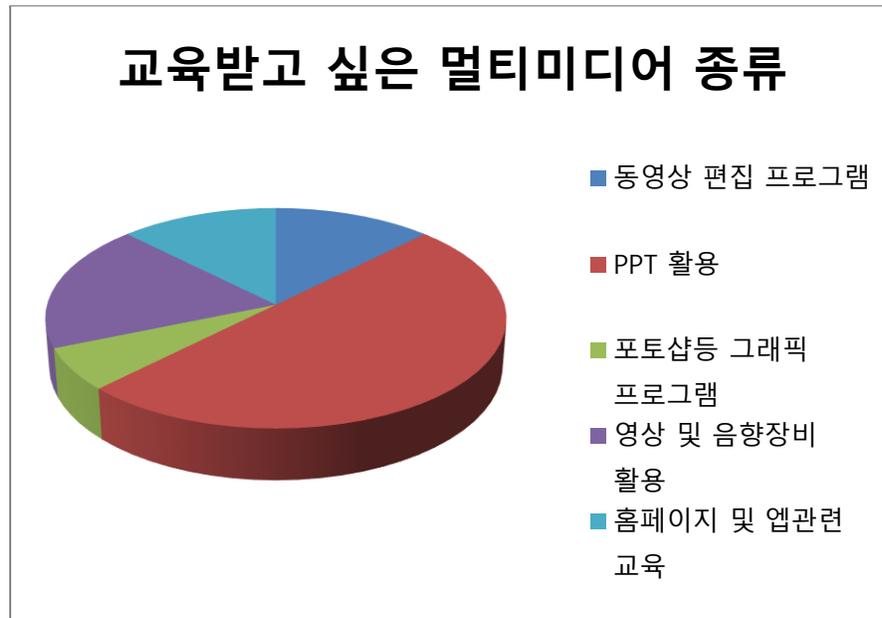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세 부류로 나왔다.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활용할 줄 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3명으로 전체 응답자중에 18.7%를 차지한다. 가장 많은 것이 파워포인트(PPT)를 활용할 줄 안다고 응답이었는데, 총 12명의 응답자가 응답했다. 이는 전체 응답자의 75%에 해당한다. 포토샵 등 그래픽프로그램을 활용할 줄 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1명으로 전체 응답자중에 6.3%를 차지한다.

<그림 32> 멀티미디어 활용 교육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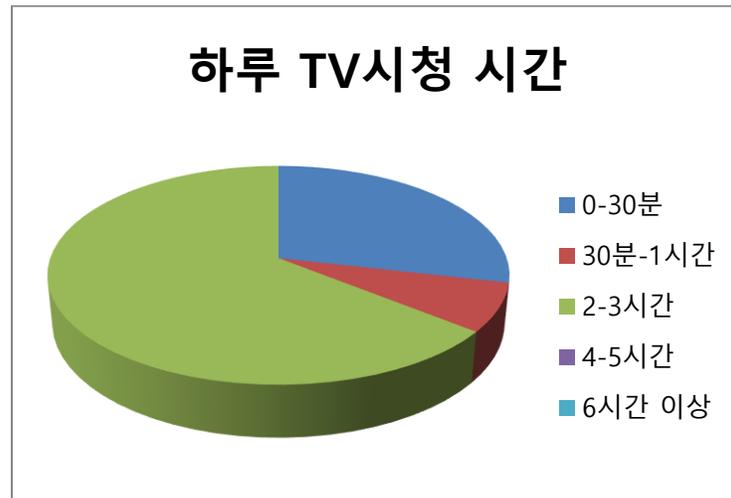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은 두 부류이다.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건이 되면 멀티미디어 교육을 받을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15명으로 전체 응답자중에 93.7%를 차지한다. 그리고 멀티미디어 교육을 받을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1명으로 전체 응답자중에 6.3%를 차지한다. 이로 보아 멀티미디어를 대다수가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은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고, 이에 교육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3> 교육받고 싶은 멀티미디어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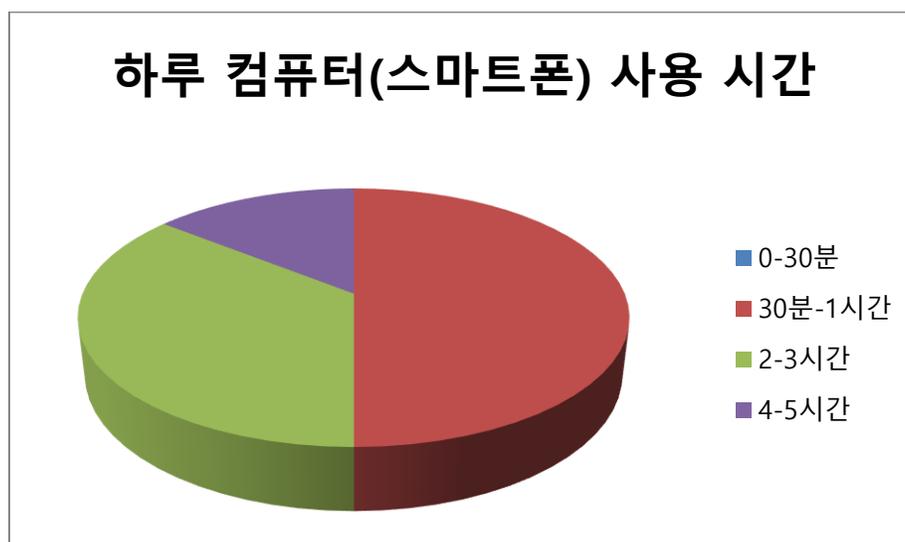
이 질문에는 다섯 부류로 응답을 하였다.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교육을 희망한 응답자는 2명으로 전체 응답자중에 12.5%를 차지한다. PPT활용에 대한 교육을 희망한 응답자는 8명으로 전체 응답자중에 50%를 차지한다. 포토샵 등 그래픽 프로그램 교육을 희망한 응답자는 1명으로 전체 응답자중에 6.3%를 차지한다. 영상 및 음향 장비 활용에 대한 교육을 희망한 응답자는 3명으로 전체 응답자중에 18.8%를 차지한다. 홈페이지 및 앱 관련 교육을 희망한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중에 2명으로 12.5%를 차지한다.

<그림 34> 하루에 보는 TV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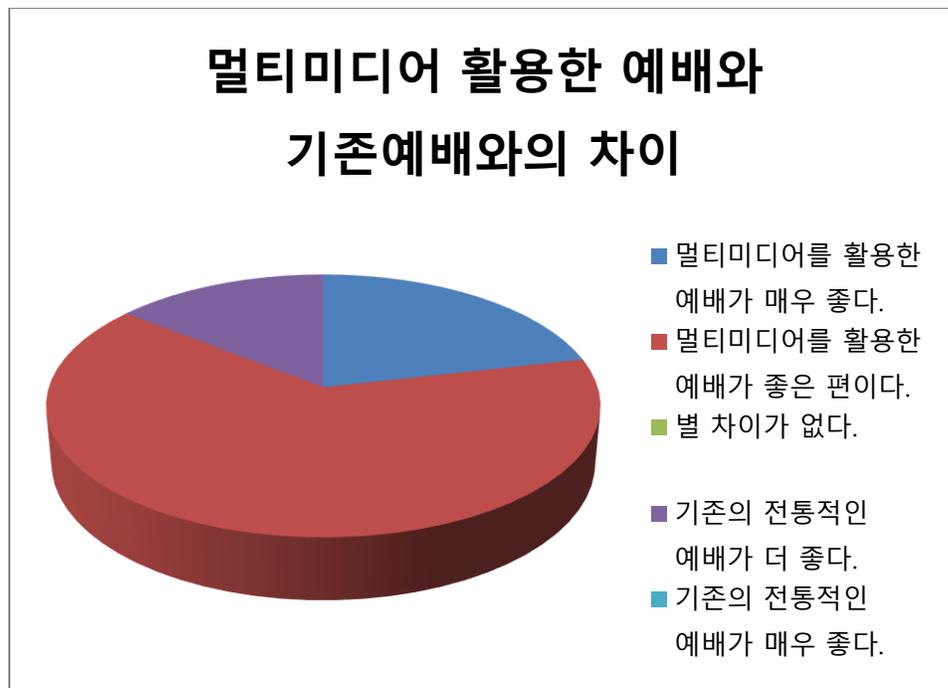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두 부류로 나온다. 하루에 TV시청을 30분 이내로 한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4명으로 전체 응답자중에 28.6%를 차지한다. 그리고 하루에 TV를 30분-1시간 정도 시청한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1명으로 전체 응답자중에 7.1%를 차지한다. 2-3시간 TV를 시청한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9명으로 전체 응답자중에 64.3%를 차지한다. 이 결과로 볼 때 영상매체는 교인들의 삶과 떼어 수 없는 부분임을 알 수 있다.

<그림 35> 하루에 사용하는 컴퓨터, 스마트폰 시간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은 세 부류로 나왔다. 하루에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30분-1시간 정도 사용한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7명으로 전체 응답자중에 50%를 차지한다. 하루에 2-3시간 사용한다는 응답은 5명으로 전체 응답자중에 35.7%를 차지한다. 마지막으로 4시간-5시간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응답자도 2명으로 전체 응답자중에 14.3%를 차지한다. 이로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컴퓨터, 스마트폰 등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서 평신도들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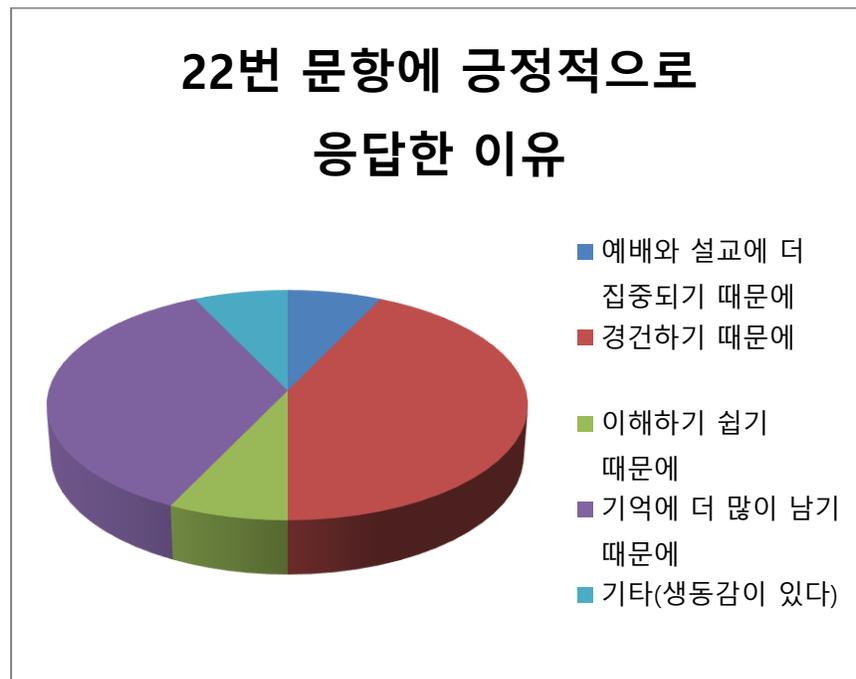
<그림 36> 멀티미디어 활용 예배와 기존예배와 느끼는 차이점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은 세 부류로 나왔다.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예배가 기존의 예배에 비하여 매우 좋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3명으로 전체 응답자중에 21.4%를 차지한다.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예배가 기존의 예배에 비하여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9명으로 전체 응답자중에 64.3%에 해당된다. 그리고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예배보다 기존의 예배가 더 좋다는 응답자도 2명이 나왔는데 이는 전체 응답자중에 14.3%에 해당된다. 멀티미디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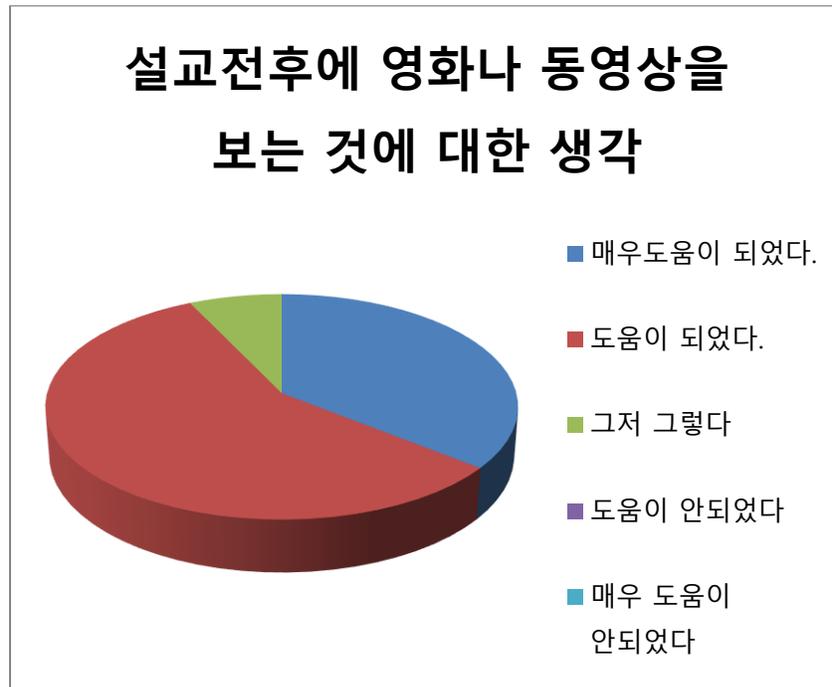
활용하는 예배가 기존의 예배에 비하여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7> 22번의 질문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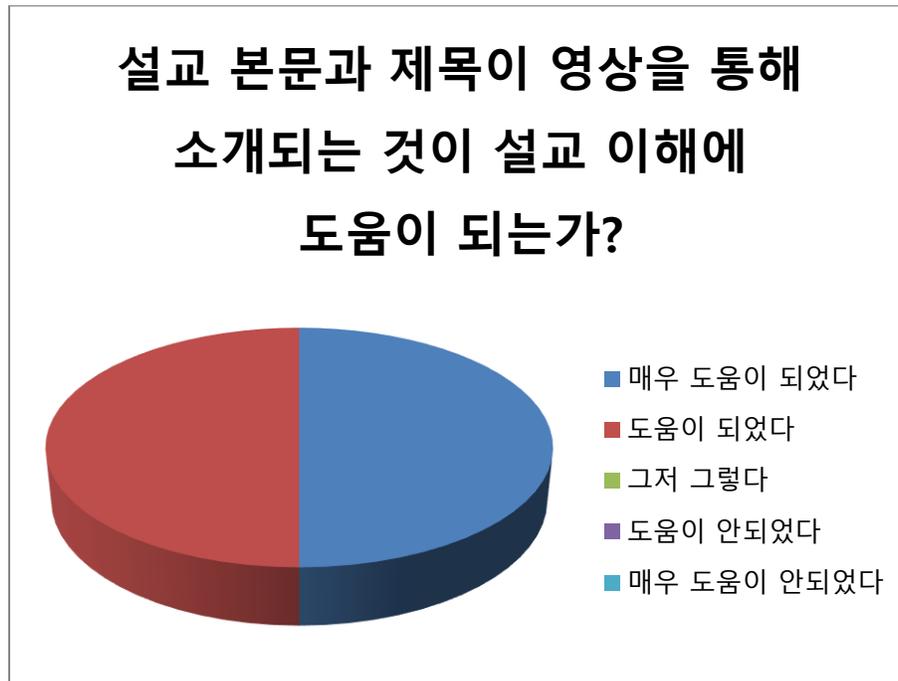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은 고루 나왔다.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예배가 기존의 예배보다 좋은 이유로 예배와 설교에 더 집중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1명으로 전체 응답자중에 7.1%를 차지한다. 경건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6명으로 전체 응답자중에 43%를 차지한다.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1명으로 전체 응답자중에 7.1%를 차지한다. 기억에 더 남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5명으로 전체 응답자중에 36.7%를 차지한다. 기타 의견으로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는 응답이 1명으로 전체 응답자중에 7.1%를 차지했다.

<그림 38> 설교 전후에 영상을 보는 것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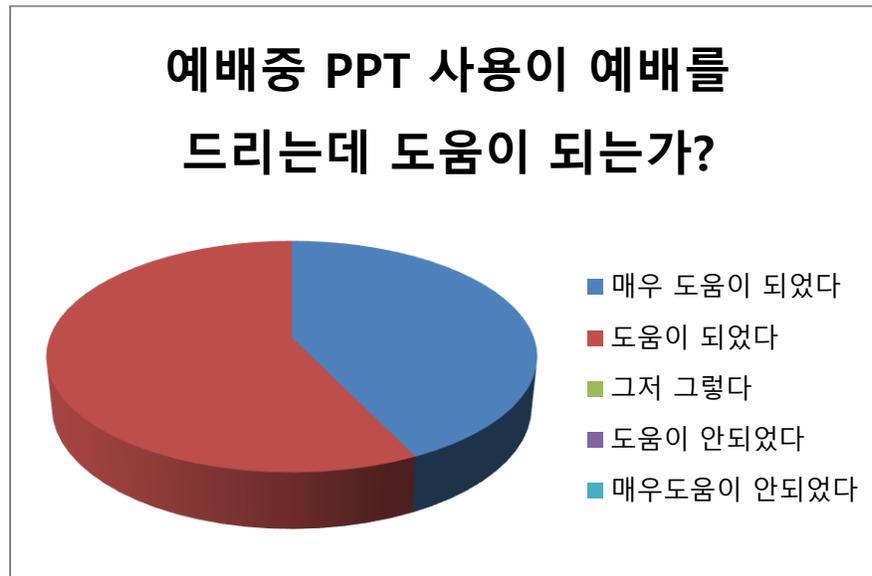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은 세 부류로 나왔다. 설교 전후로 해서 영화의 장면이나 관련 동영상들을 보는 것에 대한 의견에 매우 도움이 되었다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5명으로 전체 응답자중에 35.7%를 차지했다. 도움이 되었다고 긍정적인 응답을 해준 응답자가 8명으로 이는 전체 응답자중에 57.2%를 차지한다.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응답자도 1명이 있는데, 이는 전체 응답자중에 7.1%에 해당된다. 예배 중 설교를 전후로 해서 영상을 보는 것에 대한 대부분의 생각은 매우 긍정적이다.

<그림 39> 영상을 통해 설교 제목이 나올 때 설교 이해에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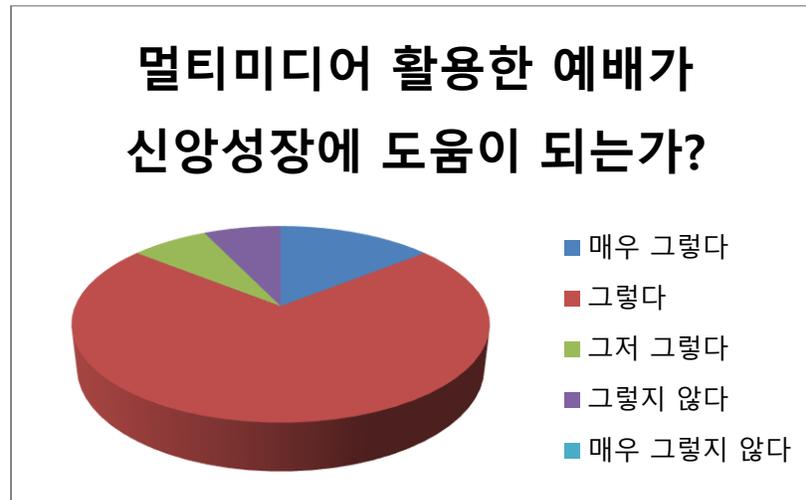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두 가지였다. 성경 본문이나 제목 등 설교의 주요 내용들이 영상을 통해서 소개되는 것이 설교의 이해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7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절반인 50%를 차지했다. 그리고 성경 본문이나 제목 등 설교의 주요 내용들이 영상을 통해서 소개되는 것이 설교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고 대체로 긍정적인 응답을 한 응답자 또한 7명으로 전체 응답자중에 50%를 차지한다. 이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설교를 돕기 위해 미리 설교의 제목, 대지 등을 영상을 통해서 보여줄 때 예배를 드리는데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0> 예배 중 PPT 사용이 예배를 드리는데 도움이 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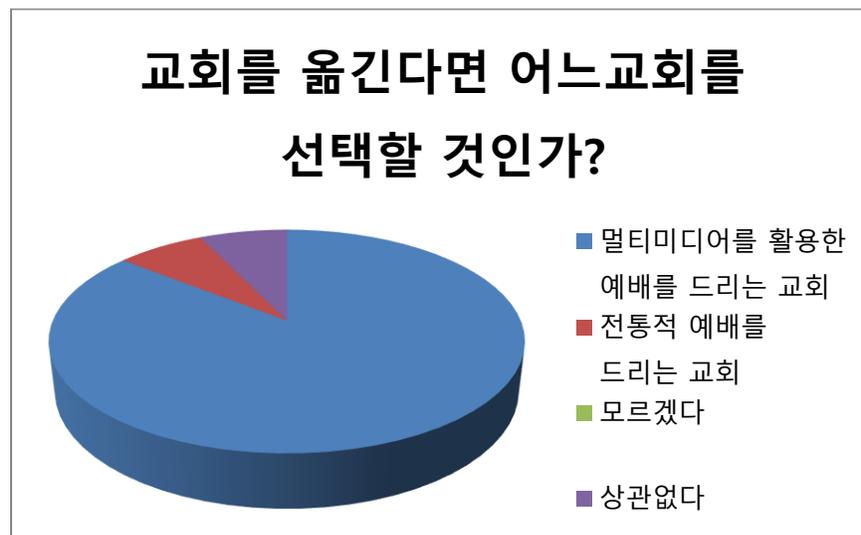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은 두 가지였다. 예배를 돕기 위한 멀티미디어 영상 중 PPT를 활용 예배 순서, 기도 순서, 성경, 찬송가 영상 등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6명으로 전체 응답자중에 42.9%를 차지한다. 그리고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응답을 한 응답자도 8명으로 전체 응답자중에 57.1%를 차지하였다. 예배 중에 PPT를 활용하여 예배순서, 기도자, 성경, 찬송가 등을 보여주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그림 41> 멀티미디어(영상)를 활용한 예배가 신앙성장 도움이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4부류였다. 멀티미디어(영상)를 활용한 예배가 신앙성장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2명으로 전체 응답자중에 14.3%를 차지한다. 긍정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응답을 한 응답자는 10명으로 전체 응답자중에 71.4%를 차지한다. 그저 그렇다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1명,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응답자도 1명으로 각각 7.1%를 차지한다. 대다수가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예배가 자신의 신앙성장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한다.

<그림 42> 교회를 옮긴다면 어느 교회를 선택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은 세 가지였다. 가장 많은 응답을 한 것은 불가피하게 교회를 옮겨야 한다면,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12명으로 전체 응답자중에 85.8%를 차지했다. 그리고 그래도 전통적인 교회를 선택하겠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1명으로 전체 응답자중에 7.1%를 차지한다. 어느 교회든 상관없다고 한 응답자도 1명으로 전체 응답자중에 7.1%를 차지한다. 교회를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멀티미디어를 활용하느냐의 문제도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분석과 평가

본 설문을 참석한 목회자는 모두 16명이고, 평신도는 14명이다. 목회자의 경우는 16명 모두가 담임목회자였고, 평신도들의 경우 주로 집사와 성도가 93%로 대부분이었다. 목회 경력이나 신앙생활 연수는 목회자의 경우 사역의 경력이 10년 이상이란 대답이 81.3%가 나왔고, 평신도의 경우 신앙생활 연수가 78.6%로 목회를 대부분 오래하였고, 신앙 생활도 오래한 분들이 대부분을 차지 하였다. 공통적인 질문으로 교단을 묻는 질문에 침례교가 13명으로 43.3%, 성결교가 14명으로 46.7%를 차지하였다. 본 장에서는 SPSS를 통해서 얻어진 데이터를 교차 분석하여, 목회자와 멀티미디어의 사용여부, 설치여부, 사용 효과여부, 교육 의향여부 및 평신도의 신앙생활 경력과 멀티미디어 사용에 대한 반응의 차이 등을 분석했다.

1) 목회자의 나이와 멀티미디어 사용 및 교육 희망

본 설문에 응답한 목회자는 모두 16명이었다. 그 중 나이 대를 분류해보는다면, 30대가 1명(6%), 40대가 8명(50%), 50대가 6명(38%), 60대가 1명(6%)이었다. 이중에 나이대 별로 멀티미디어 사용 여부를 분석해보니, 응답자가 1명이었던 30대와 60대는 모두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을 하였고, 40대는 8명중 7명(88%)가 사용을 하고 있었고, 1명은 사용을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을 하였다. 50대도 6명중에 5명(83%)은 사용을 하지만 1명은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을 하였다. 이 결과로 볼 때 멀티미디어 사용은 30대와 60대는 100% 사용하고 있는 것과 40대와 50대중 1명씩 사용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아서 나이와는 사용여부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나이에 비해 멀티미디어 사용 효과를 묻는 질문에 30대, 40대, 60대의 응답자는 100%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데에 비해, 50대 응답자 6명중 2명(33%)은 효과가 없다고 응답을 하였다. 그리고 교육을 받을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30대 1명(100%)은 교육을 받지 않겠다고 응답을 하였고, 40대 응답자 8명중 4명(50%)은 교육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 50대 응답자 6명중 4명(66%)도 교육을 받지 않겠다고 했고, 60대 응답자 1명(100%)은 교육을 받겠다고 응답을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멀티미디어 사용은 사실 나이와는 별로 상관이 없이 목회자 개인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교육에 대한 질문에서도 30대는 교육을 받지 않겠다고 응답을 하였는데, 60대의 응답자는 교육을 희망한다는 응답을 한 것을 보아도 나이와 교육 여부에 대한 부분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2) 목회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역과 멀티미디어 사용

설문 결과에 따르면 목회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역은 예배사역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10명으로 62.4%를 차지하였고, 기도사역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3명으로 18.8%, 성경공부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3명으로 18.8%의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응답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역과 관련된 멀티미디어 사용여부와 효과에 대한 평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먼저 예배사역을 중요시 생각하는 응답자 10명중 멀티미디어 사용을 한다는 응답은 9명(90%)이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명으로 10%였다. 기도사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응답자중에 멀티미디어 사용을 한다는 응답자는 2명(66.7%)이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명(33.3%)였다. 성경공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응답자중 멀티미디어 사용한다는 응답은 3명(100%)이었다.

특히 예배 사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90%이상 멀티미디어를 사용하였고, 그 사용 효과에 대하여도 100%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사용하는 멀티미디어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10명중 7명(70%)은 설교나 순서에 관련된 그림, 도표, 사진 등을 사용한다고 하였고, 또 찬양이나 순서가 나오는 PPT도 사용한다는 응답자가 7명(70%)가 나왔다.

3) 멀티미디어 장비 설치유무와 사용효과 및 교육 희망

멀티미디어 장비를 교회에 갖추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전체 목회자 16명중 15명으로 94%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그 사용횟수를 묻는 질문에 모든 예배 때 마다 사용한다는 의견은 8명으로 53%를 차지했고, 주일 낮 예배 때만 사용한다는 응답은 5명으로 33%로 나왔다. 86%의 응답자는 활발하게 멀티미디어 장비를 사용하는 편이었고, 그 사용 효과에 대한 응답을 분석해보니, 효과가 있다는 응답이 15명중 13명으로 87%를 차지했고, 효과가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2명으로 13%에 해당되었다. 그리고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중 어느 면에서 효과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예배 순서가 매끄럽게 진행된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5명으로 38%를 차지하고, 설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3명으로 23%를 차지했다. 설교 내용을 기억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4명으로 31%를 차지했고, 분위기를 편하고 부담 없게 한다는 응답이 1명으로 8%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멀티미디어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을 한 응답자 14명중 멀티미디어 사용 능력을 조사해보니, 활용하는 멀티미디어의 종류는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3명(21%)이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고, PPT를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10명(71%)이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을 하였고, 포토샵 등 그래픽 프로그램은 1명(8%)이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을 하였다. 그렇다면 여건이 되면 멀티미디어에 대한 교육을 받을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14명 모두 받을 의향이 있다고 대답을 하였다. 그렇다면 어떤 교육을 원하는냐는 질문에 PPT활용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8명으로 58%를 차지하였고, 영상 및 음향장비에 대한 교육을 희망한 응답자는 3명으로 21%를

차지했다. 홈페이지 및 앱 관련 교육을 희망한 응답자는 2명으로 14%를 차지했고, 동영상 편집을 교육받고 싶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1명으로 7%에 해당된다. 이상의 것을 종합해 본다면 멀티미디어 장비를 갖추고 있는 목회자들의 경우 멀티미디어 사용의 효과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사용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도 모두 있다고 응답을 하였다. 그러나 교육에 대한 의향을 물었을 때 PPT 활용이 가장 많이 나온 것을 본다면 PPT를 사용을 하기는 하지만 정식으로 배워서 활용함이 아니기에 부족함을 느끼고 교육을 희망한다고 판단이 되었다.

4) 평신도의 신앙 연수와 멀티미디어 사용 효과

본 설문에 대한 평신도 응답자는 모두 14명이다. 이들 중 신앙의 연수에 비하여 멀티미디어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분석해 보았다. 신앙생활 경력에 준해서 멀티미디어 예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분석해보니, 신앙생활을 2년 이하를 한 응답자는 2명(14%) 멀티미디어를 사용하는 예배가 좋다는 응답을 하였다. 신앙생활의 경력이 5-10년이 되는 응답자는 1명인데 이 응답자도 멀티미디어 사용하는 예배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신앙생활 경력이 10-15년인 응답자는 2명인데, 이들도 대체로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그런데 가장 많은 응답자가 분포된 16년 이상의 신앙생활 경력자중 7명(78%)은 멀티미디어 사용을 한 예배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지만, 2명(22%)은 별 차이가 없다는 응답을 하였다.

4. 소결론

이번 설문결과 분석은 목회자에 대한 부분과 평신도에 대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목회자의 경우 멀티미디어 활용에 대한 의식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양상을 취하고 있고, 그러나 모든 예배에 활용한다고 대답한 경우가 50%를 보여 사용하는 빈도수는 거기에 비해 저조한 것이 현실이었다. 그리고 목회자 대부분이 멀티미디어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다고는

대답을 했지만, PPT가 가장 많은 것으로 초보적인 단계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기회가 된다면 보다 전문적인 멀티미디어에 대한 지식과 교육을 받을 의사가 있다는 대답이 93.7%가 나온 것으로 보아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히 드러났다. 특히 관심이 있는 부분은 동영상 편집 등의 교육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신도의 경우에도 교회내 사역에서 멀티미디어 활용에 대해서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예배의 집중도가 높아지고, 예배나 훈련 등에 멀티미디어가 좋은 효과가 있다고 느낀다고 대답을 하였다.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의 예배, 교인들이 은혜 받는 감동의 예배가 다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의 예배와 교인들이 은혜 받는 감동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멀티미디어를 활용한다면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제 5 장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예배 활성화에 대한 제안

설문 결과를 통해 멀티미디어를 활용하는 작업이 교회의 예배 사역 속에 꼭 필요한 일임을 목회자나 평신도가 느끼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농촌에 있어 도시보다 열악한 환경이지만 교회들이 멀티미디어를 예배에 활용하여 예배의 역동성과 집중력을 갖게 되고 이를 통해 예배의 활성화를 경험하게 된다면 매우 긍정적인 일이다.

본 연구자는 참고문헌 연구와 설문조사의 분석을 토대로 교회 내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멀티미디어 활용에 대하여 제안하려 한다. 그리고 교회 외적 사역으로 멀티미디어에 필요성을 느끼는 교회들에게 사역의 경험과 자료를 공유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교육을 하는 ‘멀티미디어 목회 사역 공유센터’의 운영을 통해 멀티미디어 사역이 지속적으로 되도록 하는 한 실례를 제시하려 한다.

1. 교회 사역에서의 멀티미디어 활용

임태종도 말하기를 “주일이 돌아올 때쯤이면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예배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정말로 이 사실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될 때 예배는 참으로 역동적이 될 것이다”라고 했다.¹³⁴ 이런 감동의 예배. 역동적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요 4:23). 교회에서 멀티미디어 사용이 역동적인 예배를 드리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작업들이 필요하다.

1) 기초작업

(1) 목회자의 의식 변화

목사에게 있어 기쁨은 일주일간의 삶 속에 지친 교인들이 주일날 교회에 찾아와 충만한

134) 임태종, 「예배의 개혁, 멀티미디어 예배」, 305.

예배의 감격 속에서 위로받고 회복되어 다시 세상을 향해 십자가 군병처럼 담대히 나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다. 이런 충만한 예배는 목회자의 기도와 헌신이 있어야 한다. 목회자는 설교에 대한 성경적 연구, 성령의 충만한 은혜에 대한 기대, 감동 있는 찬양과 영감 있는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향한 헌신이 있어야 한다.

이 세대에 맞는 예배 스타일을 필요하다. 설교, 신학, 교리의 가르침이 있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삶에 적용을 도울 수 있는 관계적인 예배가 필요하다. 일방적 강요가 아닌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삶에 영향을 주어야 할 것이다. 이런 필요성을 목회자는 인지하고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시대의 필요를 알고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고민을 목회자는 해야 한다. 그리고 예배에 본질적인 것이 바뀌지 않는다면 예배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찬송가 중심의 무거운 예배에서 CCM 등 다양한 음악을 사용하는 활기찬 예배로, 활자 중심의 예배에서 영상을 활용하는 예배로, 많은 예배 순서로 인한 길고 지루한 예배가 아닌 단순한 예배 순서지만 더 집중하여 감동을 주는 예배로, 교리적 메시지보다 성경의 진리를 통한 실제 삶에 필요한 적용까지 다루는 메시지로, 설교 중심의 예배에서 모든 순서를 중시하는 예배로, 변화 없는 예배에서 다양한 변화를 추구하는 예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듣는 예배에서 보고 느끼는 예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변화되도록 말씀에 대한 깊은 연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리고 예배의 모든 순서 속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준비해야 한다. 그것을 돕는 것중의 하나가 멀티미디어 사용이다. 철저히 준비된 멀티미디어 사용을 통해 성도들이 더 집중하여 찬양을 드리고, 설교 말씀을 더욱 선명하게 들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준비가 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은혜로운 예배가 될 것이다.

(2) 교인들의 의식 변화

예배의 변화는 목회자 혼자서는 할 수 없다.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자신의 은사를 예배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목회자 1인 중심으로도 충분히 예배를 드렸었다. 이제는 공동체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 교인 중에 은사 있는 교인들을 훈련하고 준비시켜서 능동적으로 예배에 참여케 한다면 공동체 모두가 예배자로 참여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교회에서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예배학교’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예배의 분명한 목적을 바로 정립하며, 그 목표에 합당한 예배를 드림으로 얻어지는 진정한 예배의 축복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 예배가 신앙생활에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게 하고, 예배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참여케 하며, 예배를 통한 축복을 경험케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인들로 예배 팀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예배 팀을 지속적인 훈련시키고 함께 예배를 준비한다면 더 풍성하고 능동적인 예배를 드리게 된다.

2) 준비작업

예배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처럼 성령의 역사가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예배의 활성화를 추구하기 위해 예배 준비팀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3단계의 준비과정을 소개한다.

(1) 예배 준비팀 구성

예배를 목회자 혼자서 준비하고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 총 3개로 준비팀을 구성한다. 찬양팀, 영상 및 음향팀, 중보 기도팀이다. 예배 준비팀은 교회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i) 찬양 팀 구성

이 시대 예배에서 찬양의 비중은 참으로 크다. 과거에는 찬송가 하나만으로도 충분하였지만 요즘 많은 CCM 곡들이 나와서 예배에 활용하며 예배가 훨씬 더 풍성해졌다. 그래서 성가대만이 아닌 찬양팀을 구성해서 예배를 돕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한국 농촌의 현실에서는 젊은이를 찾아보기 힘들지만, 장년부 중에 찬양에 은사가 있는 교인들을 훈련시켜서 찬양 팀을 구성하면 된다.

(i) 찬양인도자

찬양 팀 모두가 중요하지만 그중에 특히 중요한 것은 찬양 인도자이다. 한국에서는 설교를 하는 예배 인도자와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인도자가 구분되어 있다. 찬양 인도자와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와 커뮤니케이션이 잘 된다면 찬양과 메시지가 연결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찬양 인도자를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찬양 인도자는 회중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예배 인도하는 목회자의 메시지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찬양인도자는 메시지를 전하는 목회자, 찬양팀 그리고 영상을 담당하는 팀과는 사전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예배가 하나님께 집중되도록 해야 한다.

(ii) 싱어, 악기 팀

찬양하는 싱어나 악기를 연주하는 팀도 찬양 인도자와 더불어 영상 담당자와 호흡이 중요하다. 찬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실전에 이르기까지 영상, 음향담당자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찬양과 영상이 함께 잘 진행되어 예배를 드리는 청중들이 찬양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

ii) 영상 및 음향 팀

드러나지 않게 수고하는 곳이 바로 영상과 음향 팀이다. 농촌교회의 현실상 대개는 1인이

감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기에 더욱 힘들 수 있는 위치이다. 예배 영상을 위해 남들이 보지 않는 그것에서 더 많이 수고하고, 음향의 실수가 나지 않도록 항상 귀를 기울여 예배가 잘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영상과 음향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감당하고자 하는 성실함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예배인도자, 찬양 인도자와 소통을 통해 영상과 음향이 예배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iii) 중보 기도팀

예배는 영적인 전투와도 같다. 성령의 강력한 도움이 없다면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렇기에 무엇보다도 기도의 힘이 필요하다. 충만한 예배의 능력을 위하여, 악한 사단이 틈타지 못하는 능력 있는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다. 특히 예배 담당하는 설교자, 찬양 인도자, 찬양팀과 영상, 음향 담당자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2) 시스템 준비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구성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각 교회의 처지와 상황을 고려하여 용도에 맞는 시스템을 갖추는 일일 것이다.

i) 하드웨어 준비

전문적인 영상 작업을 위한 장비는 매우 다양하고 전문적인 기술자의 도움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농촌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멀티미디어 장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서술하려고 한다. 영상작업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비로서는 컴퓨터(노트북), 프로젝터와 스크린 혹은 대형TV가 필요하고, 최소한의 음향시설이라면 파워앰프, 믹서기, 이퀄라이저, 스피커, 마이크 등이 있다.

(i) 컴퓨터(노트북)

영상 활용을 위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컴퓨터이다. 컴퓨터를 통해 작업한 영상, 그림, 텍스트 등을 모니터와 스크린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감당한다. Window XP이상의 운영체계가 깔려 있고 PPT나 영상을 틀 수 있는 미디어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컴퓨터나 노트북이 필요하다.

(ii) 프로젝터와 스크린

프로젝터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고가이고 그에 비해 해상도가 낮아 문제도 많았지만, 요즘 나오는 프로젝터는 가격도 많이 낮아지고, 해상도가 높아져서 밝은 화면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프로젝터의 단점은 램프의 수명이 길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밝기가 약해지고, 수리할 시 램프 교환에 고가의 수리비가 든다는 단점이 있다. 스크린은 프로젝터 이상으로 중요하다. 선명한 화면을 볼 수 있는 스크린을 구입해야 한다. 작동 방식에 따라 전동식과 수동식 스크린이 있는데 교회의 상황에 맞는 것을 구입해야 한다.

(iii) 대형 TV

프로젝터와 스크린의 단점을 보완하기에 좋은 것이 대형 TV이다. 요즘 가전제품의 성능도 좋아지고 가격도 저렴해져서, 중저가 브랜드의 경우 UHD급 75인치도 100만 원~200만 원 이내면 구매가 가능하고, 75인치 삼성 Full-HD TV의 경우도 200만 원 초반이면 구매를 할 수 있다. 별도의 스크린이 필요치 않고, 램프가 나갈 염려도 없고, 손쉽게 켜고 끌 수 있으며 고장이 적어서 예배 시 활용도가 높다.

(iv) 카메라(캠코더)

카메라(캠코더)의 경우 첫 번째 용도는 교회 예배당이 커서 설교자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에 설교자의 얼굴이 스크린을 통해 회중에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두 번째 용도는 여러가지 교회 행사를 촬영을 하는 용도이다. 각 교회의 상황에 맞는 장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v) 음향 장비

영상장비와 함께 꼭 필요한 것은 음향장비이다. 음향장비는 “멀티미디어에서 소리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인 20Hz~20KHz대의 소리를 발생시키는 장비를 통하여 수신자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정보를 전해주는 것이다.”¹³⁵ 음향장비를 구성하는 최소한의 구성은 파워앰프와 믹서기, 이퀄라이저, 마이크와 스피커다. 앰프나 스피커의 용량을 교회의 넓이에 맞게 구성하고, 설교자나 찬양 팀의 음색에 맞게 믹싱하여 사용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음향 전문가의 도움으로 받는 것이 좋다.

ii) 소프트웨어 준비

영상 활용을 위해서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많지만, 100명 이하의 중.소형 농촌교회에서 활용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가장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만을 소개한다.

(i) 텍스트를 위한 프로그램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텍스트를 위한 프로그램은 한글과 컴퓨터의 한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워드 등이 있다. 그만큼 모든 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거기에 반해 그 기능을 알고 제대로 활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늘 쓰던 기능만을 쓰는 것이 아니라 교본들을 통해 그 기능 등을 잘 숙지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ii) 이미지를 위한 프로그램

사진이나 그림은 뛰어난 전달력이 있어서 예배 시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된다. 흔히 사용하는

135) 김동현, 「멀티미디어」 (서울: 기한재, 2000), 102.

것은 미국 어도비 시스템즈사의 ‘포토샵(Photoshop)’이다. 원래는 매킨토시 컴퓨터에서 영상 합성, 색상 분해, 컬러 그림 그리기 등에 사용하던 전문가용 소프트웨어였으나 이후 IBM PC를 위한 윈도우도 출하하여 현재 컴퓨터 그래픽 작업에 가장 흔히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간단한 그림의 편집 등은 윈도우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그림판을 이용한다면 쉽게 사용할 수 있다.

(iii) 영상을 위한 프로그램

영상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만, 가장 활용하기 쉬운 두 가지만을 언급한다. 첫째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파워포인트(Powerpoint)”다. 파워포인트 역시 포토샵과 마찬가지로 매킨토시용으로 개발되었다가 윈도우가 나오면서 그 효과성으로 말미암아 2000년대부터 대중화되었다. 파워포인트는 이름처럼 요점을 전달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강조하기에 적합한 문서 작성 프로그램이다. 즉 파워포인트는 프로젝트를 이용하여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회중에게 보여줄 수 있는 문서를 만들도록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파워포인트는 시각자료, 그래프, 도표, 그리고 문자나 동영상까지 활용하여 전달할 수 있는 교회에서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이다. 둘째는 파워포인트를 통해 사용할 영상을 제작하려면 ‘베가스’나 ‘프리미어 프로’와 같은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좋다. 그러나 전문성이 필요하기에 가장 쉬운 것은 ‘곰믹서’라는 무료 프로그램으로 영상과 텍스트, 음악까지 넣어서 영상을 만들 수 있어서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3) 예배 리허설 구성

연극 한 편도 무대에 올리려면 수없이 많은 연습과 리허설을 거쳐서 올린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이에 못지않은 철저한 준비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이 예배 리허설이다. 시간은 대략 토요일 저녁 시간에 장소는 교회에서 목회자와 예배 준비팀, 예배 순서를 맡은 이들이 함께 모여 다음 날 주일 낮 예배의 영광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정해진 Que-Sheet의 순서에

따라 예배 리허설을 한다. 이때 Que-Sheet는 분 단위로 정확하게 작성을 한다. 영상 담당자는 Que-Sheet에 맞게 찬양이나 순서 PPT를 철저히 준비하고, 만약에 설교 중에 사용할 보조 영상이 있다면 문제없이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그래야 혹시 예배 중의 있을 수 있는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3) 멀티미디어 활용에 대한 제안

목회자는 누구나 예배와 교회 모임에 전 교인이 100% 참석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주일에 10여 차례의 예배(새벽기도, 철야기도 포함)를 다 참여하여 헌신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 교회 생활에서 최우선이 되는 예배와 모임에 대한 정확한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주일 낮 예배를 가장 중점사역으로 정하고 대다수의 성도가 주일 낮 예배에는 참석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예배는 차별화하여 주일 저녁은 찬양 예배로 수요일은 수요기도회로 성격을 달리하여 필요한 교인들이 한 번 더 참여하도록 하는 목회전략을 실행할 것을 제안한다.

(1) 주일 낮 예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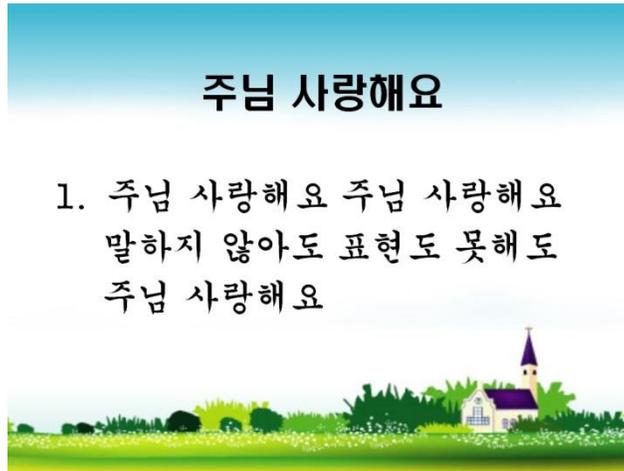
주일 낮 예배는 가장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는 예배인 만큼 다수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예배 형식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예배의 순서를 따를 것인가, 순서를 간략하게 하고 찬양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게 하고, 설교에 집중케 하는 예배의 형식을 따를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의 농촌교회들의 상황이라면 전통적인 예배의 순서를 따름이 무난한 것이다. 한국의 농촌교회들은 대부분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예배의 형식을 바꾼다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기에 기존의 형식을 추구하되 과거에 듣기만 하는 예배가 아니라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순서 하나하나를 잘 준비하고 감동적인 영상을 준비하여 예배를 드린다면 집중력이 있고 감동적인 예배가 가능할 것이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지만, 성령도 이처럼 준비된 이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기 때문이다. 주일 낮 예배의 모든 순서를 다루지 않고 예배 순서 속에 멀티미디어를 통해 변화가 가능한 것을 중점으로 두고 다루려 한다.

i) 예배 전 찬양

찬양 팀이 있는 경우 찬양인도자의 인도에 싱어와 악기 팀의 협력으로 찬양을 인도하도록 한다. 그런데 농촌교회에서 찬양팀 구성이 힘든 경우 대개는 찬양인도자 개인이나 목회자가 예배 전 찬양을 하는 경우가 많다. 목회자가 예배 전 찬양을 하게 된다면 에너지를 너무 쏟아 예배의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 그렇기에 찬양 인도자를 세우고, 훈련시켜서 예배 사역에 협력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이 힘든 경우, 영상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유튜브에 보면 좋은 배경에 아름다운 찬양이 나오는 영상이 많이 있다. 교회 분위기에 맞고 교인들의 연령에 맞는 찬양 영상을 골라 내려 받아서 ‘곰믹서’를 통해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영상을 만들어서 예배시간 전에 틀어준다면 교인들이 아는 찬양은 함께 따라 부를 수도 있어 예배의 분위기가 좋아진다. 그리고 나서 예배 인도하는 목회자 올라와 마지막으로 찬양 한 곡을 함께 하고 예배를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매주 똑같은 영상을 틀어주어서는 안 된다. 영상의 시간 때우기식 사용은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한편의 설교를 위해 많은 시간을 들이듯이 한편의 영상을 위해서도 고민하면서 시간을 투자하는 열정이 필요하다. 그 주의 설교 메시지와 연관이 있는 찬양 영상을 만들어 함께 부르기를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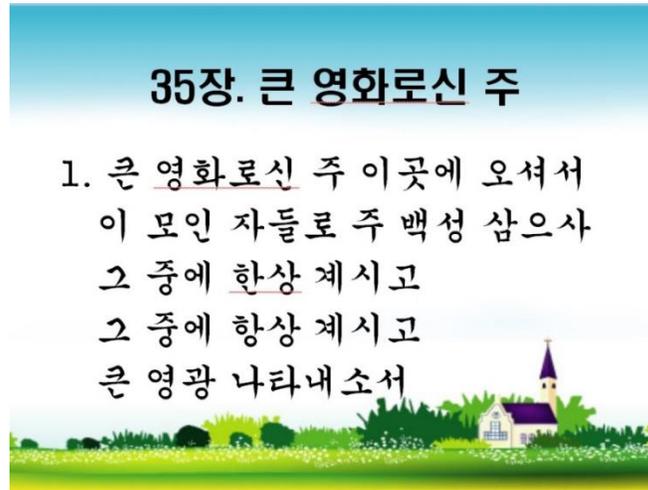
<그림 43> 예배 전에 나오는 찬양 영상 한 장면



ii) 찬양

찬양 팀이나 찬양 인도자를 통해서 찬양할 때 고려할 점은 스크린에 나오는 찬양 화면이 예배에 참여한 교인들을 배려해 준비하는 필요하다. 흔히 나이 드신 분들은 글자가 있는 화면이 좋고, 젊은이들은 악보가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 반대다. 대개 젊은 교인들은 멜로디를 듣고 글자만 있어도 따라 할 능력들이 된다. 그러나 나이 드신 교인의 경우는 낯선 찬양일 경우 따라 하기가 힘들다. 그나마 악보 속의 음의 높낮이라도 보여준다면 따라 하기에 훨씬 수월해진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예배에 참여한 교인들의 분포도에 따라 나이가 드신 교인들이 많은 경우 꼭 악보가 함께 나와 있는 찬양 화면을 사용하면 좋다. 그리고 PPT 영상을 쓸 때 주의할 것은 화면의 통일성이다. 인터넷을 통해 이 악보, 저 악보 PPT 자료를 모아서 쓰다 보면 통일성이 없어 산만해지는 경우가 많다. 찬송가나 복음성가나 이왕이면 같은 사이트에서 구한 악보를 써서 화면의 통일성을 주어야 한다.

<그림 44> 예배 시 사용하는 찬송가 악보 P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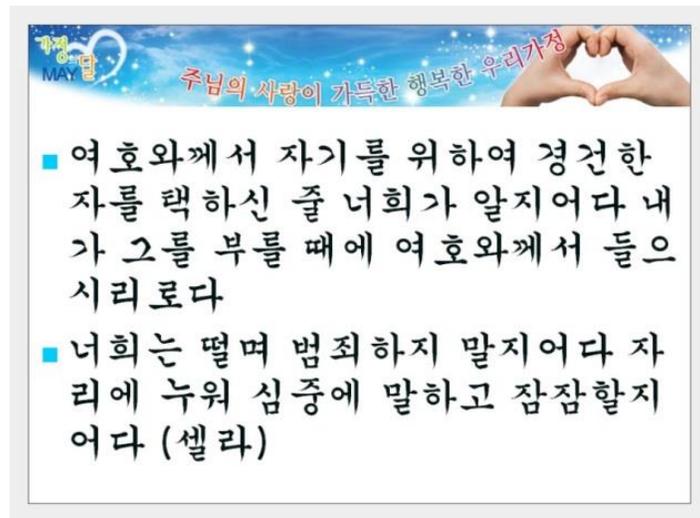
iii) 설교 관련 영상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이 예화를 선택하는 일이다. 좋은 예화는 설교를 더 풍성하게 하듯이, 유효 적절한 영상은 설교의 감동을 훨씬 더 하도록 한다. 그러나 대개 영상을 준비할 때 고려할 것은 설교의 메시지를 적절하게 보조해주는 것과 회중들이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예화의 선택에 있어 나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 더 집중하게 된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낯선 남의 나라 이야기보다 이왕이면 우리 주변의 이야기가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가능하다면 교인들의 영상을 카메라로 담아 찍어 사용하는 것이 최고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화면에 나오는 영상의 화질이나 음성의 질도 중요해서 너무 화질이나 음질이 떨어지는 영상을 사용한다면 기대감이 떨어져서 영상을 사용하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그리고 간혹 좋은 영상을 보고 영상에 맞는 말씀을 준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우선 되어야 할 것은 성경 본문에 적합한 것인가이며, 절기나 교회 상황이나 사회적 상황에 맞는 본문을 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설교가 우선되지 않고 영상이 주가 된다면 짜맞추기 설교가 된다.

iv) 성경 말씀, 교독문

예배 화면에서 성경을 화면에 보여줄 때 주의할 점은 글자 크기를 24pt로 할 경우 20~23개의 단어가 적합하다.¹³⁶ 성경을 읽을 때 슬라이드 배경을 바꾸는 않는 것이 좋고, 한 화면에 3가지 이상의 색을 사용할 경우 보는 회중에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리고 서체의 경우도 한 가지로 통일하는 것이 좋으나, 특별히 강조할 경우에는 다른 서체를 쓰는 것도 가능하다.

<그림 45> 예배 시 사용하는 성경 말씀 PPT



v) 설교

목회자가 설교할 때 목회자의 얼굴이 화면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날 설교의 대지나 성경 구절 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교회 건물이 커서 뒤에 있는 교인들이 목회자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카메라를 사용하여 설교하는 목회자의 상반신을 보여주는 것도 설교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크지 않는 예배당이라면 그날 설교의 대지나 성경 구절 등을 보여주어서 설교에 더 집중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때도 사용하는 PPT의 화면은

136) 김양중, 「예배공학」(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1), 260.

통일성을 주는 것이 좋다. 프레임마다 화면이 다르다면 집중도가 떨어진다. 그리고 지나친 PPT 애니메이션 효과를 사용한다면 오히려 심란하여 예배에 방해가 된다. 그리고 화면의 배열도 중요해서 이왕이면 균형 잡힌 구도가 좋고, 서체도 크고 선명한 서체로 통일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vi)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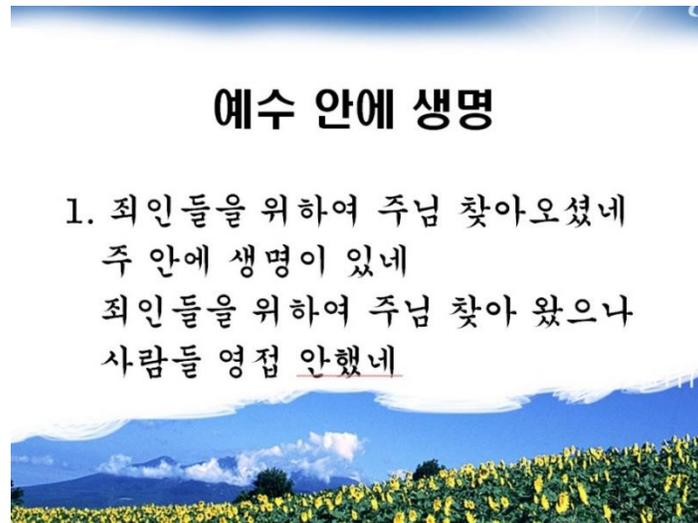
예배 속에 광고는 소홀히 하기 쉽다. 그러나 광고도 예배 순서 중 하나라고 한다면 정성껏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항상 똑 같은 목회자가 하는 광고만 하지 말고, 교인 중에 목소리가 좋은 한 명이 광고하는 음성을 녹음하여 PPT 화면과 함께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카메라를 이용하여 영상을 찍어 광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2) 주일 저녁 예배(오후 예배)

주일 오후나 저녁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들은 대부분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믿음이 있는 교인들이 주로 참석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메시지나 예배의 방향성을 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주일 저녁예배를 찬양예배로 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나 준비할 때 늘 같은 형태를 가지고 진행하다 보면 처음에는 새롭고 흥미를 갖던 교인들이 타성에 젖어 감동 없는 형식주의에 빠질 수 있다. 그렇기에 찬양 예배도 목회자나 찬양인도자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목회자가 인도하든지 아니면 찬양 인도자와 함께 진행하든지 교인들에게 위로와 회복과 은혜가 될 만한 곡으로 선곡하려고 고민을 해야 한다. 이때 주제를 가지고 연관성이 있는 찬양을 준비함이 좋고, 사용하는 PPT 찬양 화면도 주일 낮 예배와 마찬가지로 화면의 질이 좋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이 찬양 예배 시 설교 대신에 간증 영상을 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연예인 등 유명 크리스천을 직접 초대하여 간증을 듣는 것이 어렵기에 은혜로운 간증 영상을 유튜브나 기독교 사이트에서 구하여 찬양 예배 중에 사용하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화질이 좋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음질이나 화질이 좋지 않을 경우

오히려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이 선택해야 한다. 영상에 사용되는 모든 자료를 선택도 마찬가지이다. 본 연구자가 사용하는 자료 중에 찬송가의 경우는 ‘기독교 멀티미디어 선교회’¹³⁷에서 만든 21C 새 찬송가다. 악보도 함께 나와있고 누구나 다 쉽게 쓸 수 있도록 DVD로 나와 있다. 복음성가의 경우는 여러 곳이 있지만 그중에 다음 카페 ‘예수 찬양 방송 선교회’¹³⁸에서 각종 기독교 자료와 더불어 각종 찬양 PPT 악보를 무상으로 제공해주고 있어 이곳을 통해서 좋은 찬양 PPT 악보, 동영상 자료를 구할 수 있다.

<그림 46> 주일 저녁 예배 시 사용하는 복음성가 PPT



(3) 수요일 저녁 예배

한국에서 수요일예배는 주로 수요일 기도회로 모인다. 도시 교회의 경우는 오전에도 모이기도 하지만, 한국의 농촌교회의 경우는 거의 저녁 시간에 모이게 된다. 교인들이 힘든 일과를

137) CMA(기독교 멀티미디어 선교회) : 1996년에 조직된 CMA는 21세기 멀티미디어목회와 선교를 위한 멀티미디어 정보를 나누고, 자료를 교환하며, 교회(예배, 교육)와 선교에 필요로 하는 멀티자료 개발 및 연구를 하며, 이를 활용함에 있어 도움을 주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자 구성된 비영리적인 목적의 순수 선교회이다.

138) 예수 찬양 방송 선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바탕으로 올바른 찬양을 선도함과 선교 사명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6년도에 개설하여 각종 찬양 방송, 찬양자료, 영상자료, 기독교자료 등을 제공해주는 순수 기독교 단체이다.

마치고 피곤함에 지친 몸으로도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은 너무도 귀한 일이다. 이렇게 참석한 교인들에게 이들에게 맞는 차별화된 예배를 준비해야 한다. 수요예배를 수요 기도회의 성격으로 준비하여 감동 있는 찬양과 영감 있는 기도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인들이 교회에 들어섰을 때 좋은 찬양과 영상을 준비하여 틀어준다면 예배에 참석한 이들의 마음가짐이 새로워지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찬양을 인도할 때도 같은 주제, 같은 코드의 찬양을 진행하고 PPT도 끊이지 않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도회 동안 기도의 제목을 구체적으로 PPT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거나, 화면을 통해 좋은 기도문 등을 함께 읽으며 수요기도회를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수요예배에 참석하는 교인들이라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교인들이일 것이다. 농촌 교회의 경우 시간에 쫓겨 따로 시간을 내서 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수요예배 시간을 이용하여 이런 열심 있는 성도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시간을 갖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미국 공군에서 시청각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실험을 했다. ‘말’, ‘도표’, ‘말과 도표’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전달형식과 기억량(%)과의 관계를 실험하였는데 그 결과 명령을 내린 시점에서 말로만 명령하였을 때는 40%, 도표로 한 경우는 70%, 그리고 두 가지 방법을 다 활용한 경우는 90%를 기억한다는 통계가 나왔다. 또한, 120시간이 지났을 때 말은 10%만, 도표는 20%만, 말과 도표를 다 사용한 경우는 60%가량 기억한다고 한다.¹³⁹ 그렇다면 농촌교회에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멀티미디어를 사용하여 좀 더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성도들을 훈련하는 것은 중요하다. 수요예배를 통해 교육이나 훈련을 할 경우 목회자가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그림을 보여주고 도표를 보여주고 사진들을 함께 보여주면서 교육을 한다면 좋은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39) 김양중, 「예배공학」(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1), 263.

<그림 47> 수요일예배 시 사용하는 성경공부 P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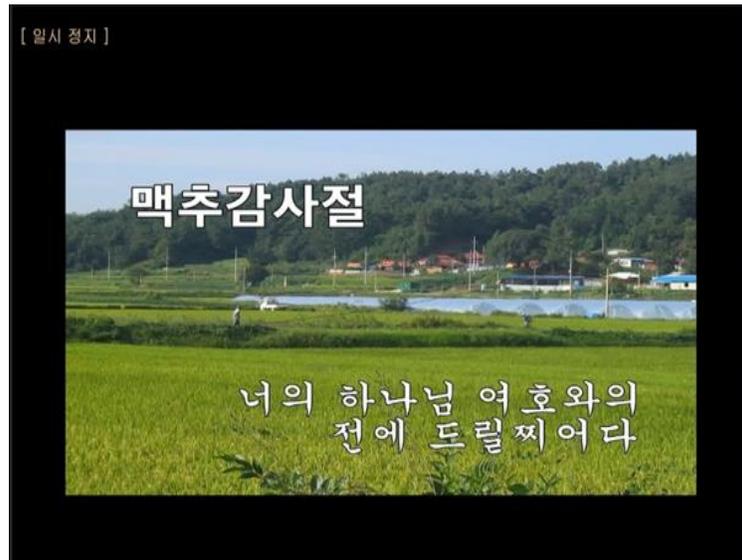
(4) 절기 감사예배

절기 예배에서도 멀티미디어를 사용하여 예배에 집중하도록 도울 수 있다. 3번의 절기 예배인 부활절,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과 한 번의 특별절기인 성탄절과 두 번의 명절인 설날과 추석은 전도하기 좋은 기회이고 믿음의 결단을 하기에 좋은 시기이다. 목회자는 절기 예배를 위해 최소 한 달 전부터 미리 준비하여, 절기 메시지와 함께 절기에 적절한 영상을 사용하여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교하는 것도 멀티미디어를 절기에 사용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부활절의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영상들이 많이 있다. 이런 영상을 사용할 때 농촌교회가 고령화되고 있기에 화면에 번역된 문자가 나오는 것보다는 성우가 한국어로 더빙한 영상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맥추감사절이나 추수감사절의 경우는 추수나 수확이라는 주제에 맞는 영상을 활용하면 좋을 것이고, 성탄절은 예수님 출생에 대한 영상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특히 명절에는 오래간만에 고향을 찾아와 가족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한 이들을 고려해서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영상들을 사용해야 한다. 한 번의 설교로 교인들이 쉬 바뀌지 않듯이 한 번의 영상으로 교인들이 감동을 다 받을 수는 없다. 그러나 한

사람을 위해 설교를 준비하듯, 감동받고 은혜받을 한 사람을 위해서 멀티미디어를 사용하여 예배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교인들의 필요에 따라 시기적절한 영상을 찾아야 한다.

<그림 48> 맥추감사절에 사용한 영상



<그림 49> 설 명절에 사용한 영상



(5) 송구영신예배

일 년을 정리하며 한 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 때 멀티미디어를 잘 활용한다면 예배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지난 1년간에 우리 주변에 있었던 10대 뉴스를 만들어서 한 해를 되돌아보아 감사하게 하며, 다가온 새해에 대한 기대와 기도를 한다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구영신예배에 멀티미디어를 사용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일 년 동안 행사 때에 촬영한 사진들이나 비디오를 편집해서 사용하고, 예배나 특별 행사들의 크고 작은 일을 촬영하여 모아두었다가, 1년이 마쳐갈 때 ‘올 한해 우리 교회의 10대 사건’같은 이름으로 편집한 10여 분 정도의 영상을 송구영신 예배 때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예로 제시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우리의 이야기가 나올 때 더 집중하고 거기서 의미를 찾게 된다. 1년간의 교회 영상을 통해 자신의 1년간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기회가 되고, 다가올 새해에 대한 새로운 다짐을 하는 뜻 깊은 송구영신 예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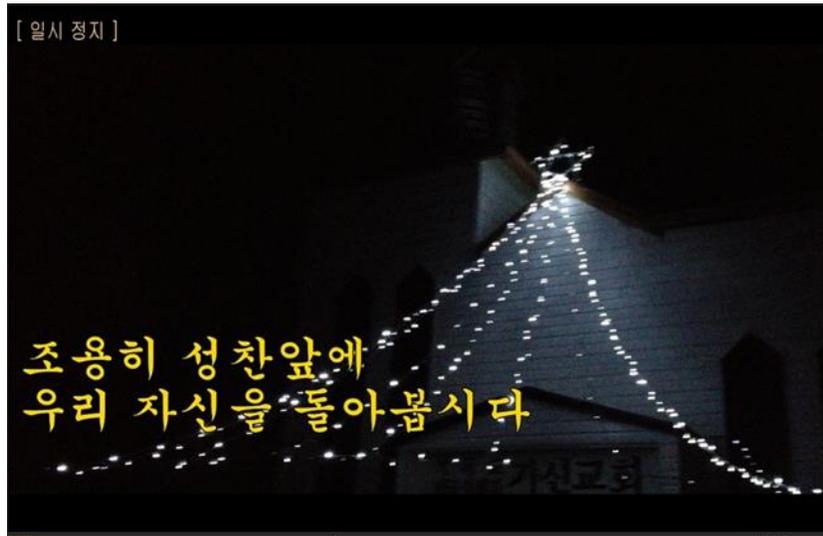
<그림 50> 2016년 송구영신 예배 때 사용한 영상



(6) 성만찬 예식

성만찬 예식을 진행할 때 멀티미디어를 활용한다면 성만찬의 의미와 메시지를 도울 수 있다. 예수님이 행하신 최후의 만찬의 영상들을 필요에 따라 짧게 나누어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림 51> 2017년 부활절 새벽 성만찬 때 사용한 영상



(7) 소그룹 모임

농촌교회에서는 구역예배, 목장모임, 셀 모임 등 여러 이름으로 소그룹 모임이 매주 금요일에 있다. 형편에 따라 목회자가 모임을 인도하기도 하고, 교인 중 훈련된 직분자가 모임을 인도하기도 한다. 그런데 예배의 분위기는 교회에서의 예배와는 달리 구역예배는 가정에서 소수의 사람이 모여 예배를 드린다. 이런 소그룹 모임 때에도 멀티미디어를 사용하여 모임을 도울 수 있다. 반주자나 찬양 인도자가 없는 경우 스마트 폰의 찬양 앱, 그리고 휴대용 스피커를 사용하여 찬양반주기를 틀어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찬양 앱은 보통 미가엘에서 나오는 ‘미가엘 찬송가’, ‘미가엘 복음성가’, ‘미가엘 성경’이 저렴하고 사용법이 쉬워 예배 때 사용기에 용이하다.

(8) 장례예식

장례예식은 목회자가 슬픔을 당한 유족이나, 친지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진행해야 한다.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의 섬김과 복음으로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많다. 성도들의 장례예식을 위해 평소에 교인들에게 ‘가족들에게 유언 남기기’라는 이름으로

가족들에게 마지막 남길 유언을 녹화하는 것도 멀티미디어를 활용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장례때 미리 녹화된 유언 영상과 교회 행사나 예배 때 고인의 영상을 발췌하여 한편의 영상을 만든다. 발인예배 후 장지로 가기 이전에 고인이 평소 신앙 생활하던 교회에 들러 평소 고인이 앉던 자리를 중심으로 유족들이 앉게 하여 기도하기 전에 미리 준비한 영상을 틀어준다. 이 영상에서 고인이 평소에 신앙 생활하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 유언으로 예수님 잘 믿으라는 유언을 가족들에게 들려주면 유족들은 고인을 생각하며 깊은 감동을 받게 되고, 이를 통해 전도되어 신앙생활을 하는 자녀들이 있다.

2. 멀티미디어 목회사역 공유 센터 운영

1) 명칭, 목적, 목표

설문조사결과 참여자의 94%의 목회자가 멀티미디어 교육에 대한 의사를 말하였고, 그 종류는 PPT, 그래픽, 영상 및 음향, 동영상편집 순으로 나왔다. 대개의 목회자의 경우 교회의 필요 때문에 멀티미디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만, 체계적인 교육의 부재로 교육을 희망하는 것으로 보이고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멀티미디어 목회사역 공유 센터’를 통해 부여군 내 소재한 188개의 교회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멀티미디어 사용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인 고찰과 멀티미디어 자료를 서로 공유하고 교환, 교육을 통해 농촌 지역 복음화와 예배의 활성화를 돕는 것을 사역의 목적으로 하고, 공유센터를 통해 교육받은 목회자나 훈련받은 평신도가 교회에서 멀티미디어 사역을 실시하고 담당하여 예배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한다.

2) 교육 대상

멀티미디어 목회사역 공유 센터의 교육대상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멀티미디어 사역에 관심이 있는 부여군 내 188개 교회 목회자와 교회 내에서 멀티미디어를 통해

봉사하려는 평신도가 교육의 대상이 된다.

3) 교육 기간

설문 결과 목회자 대부분이 멀티미디어 교육을 희망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전문적인 멀티미디어 활용 교육보다는 실제 사역에서 사용 가능한 기본적이고 간략한 영상 교육을 주로 하고, 각자가 개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주고자 한다. 이를 위해 1년 한차례 4주 총 4일간의 과정에 하루 3시간씩 12시간을 실무 위주로 교육을 한다. 평신도 반의 경우는 교회에서 실제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과정을 1년 한차례 2주 총 2일 하루 3시간씩 6시간을 실무 위주의 교육을 한다. 이때 교육 강사는 본 연구자와 부여지역에 있는 목회자 중 멀티미디어에 능통한 목회자들을 섭외한다. 또한, 원활한 운영과 진행을 위하여 ‘부여군 기독교 연합회’내 교육부와 연계하여 활동하도록 한다.

4) 교육 내용

(1)목회자반

<표 1> 목회자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구 분	강의 제목	주요 강의 내용	강의 시간
1주 차	과워포인트	O.T로 멀티미디어 사용에 대한 성경적, 역사적, 신학적 배경등 이론 정립 기본 프리젠테이션 만들기 슬라이드 배경 서식 만들기 프리젠테이션 내용 멀티미디어화하기	3 시간
2주 차	포토샵	포토샵 기본 기능 사용법 레이어 생성 및 활용 보정 등 효과 기능 활용	3 시간
3주 차	프리미어	프리미어 프로의 기본 사용법 영상 편집 및 자막, 배경음악, 화면 전환효과 넣기. 렌더링하기.	3 시간
4주 차	프로쇼	프로쇼에 사진, 영상을 넣기 배경 음악을 넣고, 화면 전환 효과 넣기 프리미어 프로를 통한 자막 넣기	3 시간

i) 1주 차 교육 내용

목회자반 1주 차에는 먼저 멀티미디어의 교회 예배 사용에 대한 성경적, 역사적, 신학적인 이론적 배경을 먼저 정립하고 이후에 파워포인트를 교육한다.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시스템에서 개발된 프레젠테이션 소프트웨어이다. 사무용 통합 프로그램인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 포함되어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와 맥 OS 와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에서 구동이 가능하다. 사업가, 교사, 학생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에 의해 프레젠테이션 소프트웨어로 널리 쓰이고 있으며,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들 가운데 하나이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파워포인트의 모든 기능을 숙지하고 사용한다면 좋겠지만, 실제로 교회 사역에서 사용하는 기능과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지나친 효과는 오히려 예배 진행에 방해가 되므로 되도록 너무 과한 효과나 기능들의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그런 의미에서 파워포인트 교육도 교회 사역 실무 위주의 교육을 진행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교육내용은 기본 원리 강의, 텍스트작성, 표 작성, 테마적용, 애니메이션 적용 스킬, 동영상, 소리 파일 적용 스킬 등을 교육하여 예배 진행 PPT를 직접 작성, 시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i) 2주 차 교육 내용

목회자반 2주차 교육은 포토샵으로 진행한다. 어도비 포토샵(Adobe Photoshop)은 어도비 시스템즈사에서 개발한 레스터 그래픽 편집기이다. 대한민국의 인터넷 유행어로 "포샵"이라는 말이 사용되기도 한다. 주요 기능은 이미지를 합성하고, 보정하고, 정렬하여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 특히 교회 내에서 포토샵을 통해서 주보 디자인, 파워포인트 배경화면 디자인 등을 할 수 있고, 교회에서 사용하는 현수막이나 사진이나 그림이 들어가는 모든 자료를 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전문적인 그래픽 프로그램이기에 모든 영역에 대한 교육은 한계가 있고, 다만 기본적인 기능을 통하여 교회 내 사역에 필요한 간단한 이미지 작성, 편집하도록 한다. 주요 교육의

내용은 레이어 이해와 사용법, 각종 툴 사용법, 주요 테크닉을 등을 배워 예배 사역에 필요한 PPT 배경화면이나 교회 홍보 포스터 등을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ii) 3주 차 교육 내용

목회자반 3주 차엔 프리미어 프로를 교육한다.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Adobe Premiere Pro)는 실시간, 타임라인 기반의 영상 편집 응용 소프트웨어이다. 프리미어 자체가 전문가가 사용하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지만, 그 기능이나 영상의 퀄리티가 높아서 교회 사역에 사용한다면 최고 품질의 영상 자료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모든 전반적인 기능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 가장 기본적인 것과 교회에서 사용 가능한 효과들을 중심으로 교육한다면 충분히 교회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주요 교육의 내용은 동영상, 사진, 음악 등 소스 가져오기, 동영상 자르고 타임라인 배치하기, 자막 넣기, 동영상 화면 전환 효과 적용 방법, 비디오, 오디오 효과 적용 방법, 완성된 영상 출력과 렌더링을 통한 파일 포맷 등을 배워 예배 사역에 사용할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v) 4주 차 교육 내용

목회자반의 4주 차에는 프로쇼(Proshow)를 교육한다. 프로쇼는 사진 관련 프로그램 제조사로 유명한 PhotoDex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사진이나 동영상 등에 화면 전환 효과 등을 넣고 배경음악을 삽입하여 좋은 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 그러나 단점은 아직 한글자막을 넣을 수 없기에 프리미어에서 한글 자막을 넣는 2중 작업을 해야 한다. 그런데도 사용하기 편하고 좋은 품질의 영상을 만들 수 있기에 멀티미디어 사역에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다. 주요 교육의 내용은 사진 가져오기 및 배경음악 삽입하기, 영상 편집하기, 자막 넣기(한글자막지원이 안 되기에, 프리미어 프로를 통한 자막 넣기), 화면 전환 효과 넣기 등을 교육하여 간단하게 예배사역이나 교회사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상 제작을 목표로 한다.

(2) 평신도 반 교육과정

<표 2> 평신도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구 분	강의 제목	강의 내용	강의 시간
1주차	문서 작성	O.T로 멀티미디어 사용에 대한 성경적, 역사적, 신학적 배경등을 간략하게 강의하여 이론적 배경 정립 한글로 주보 등 문서 작업을 위한 기본 기능 숙지 및 사용방법 주보 만들기, 교회 문서 만들기	3 시간
2주차	파워포인트	기본적인 파워포인트의 사용법 슬라이드 배경 만들기, 전환 등 효과 사용	3 시간

i) 1주차 교육

평신도반의 1주차 교육은 먼저 교회의 예배에 멀티미디어를 사용함에 있어 성경적, 역사적, 신학적인 배경등을 간략하게 강의하여 이론적으로 정립한 후, 한컴 오피스 한글을 교육한다. 한글은 한글과 컴퓨터에서 개발된 워드 프로세서이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와 함께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워드 프로세서이기도 하다. 그만큼 누구나 쉽게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교육에 사용할 프로그램은 한글 2014를 사용하도록 한다. 교회에서 주보를 만드는 작업이나 교회 문서 제작하는 방법들을 주로 교육하도록 한다.

ii) 2주 차 교육

평신도반 2주 차는 파워포인트를 교육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파워포인트는 회사나 학교 등에서 프리젠테이션용으로 사용하는 최고의 프로그램이다. 교회 사역에서 목회자만이 사용할 것이 아니라 멀티미디어 사역자로 평신도를 세울 때 가장 기본적으로 배워야 할 것이 파워포인트이다. 모든 기능을 교육할 수는 없지만, 교회 사역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실무적인 교육을 위주로 하도록 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목회자반과 같이 기본 원리 강의,

텍스트작성, 표작성, 테마적용, 애니메이션 적용 스킬, 동영상, 소리 파일 적용 스킬등을 교육하여 예배 진행 PPT를 직접 작성, 시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5) 목회 자료 공유, 교환 작업

멀티미디어 목회사역 공유 센터를 통해서 목회자 간에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멀티미디어 자료를 서로 함께 공유하고 함께 개발하는 작업을 시도하도록 한다. 멀티미디어 영상 자료의 특성은 교회 내에서 1회만 사용한다는 것이다. 한번 사용한 영상을 다시 사용할 시 교인들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기대감을 갖기 어렵고, 사용 효과도 떨어진다. 이에 어렵게 만든 영상을 한번의 사용으로 끝내지 말고, 같은 지역에서 함께 사역하는 교회와 서로 자료를 공유한다면 서로의 목회가 훨씬 더 풍성해질 것이다. 이에 SNS를 통한 홍보, 커뮤니티 개설하여 공유센터를 통한 목회 자료 공유를 널리 홍보하고 실행하도록 한다.

3. 소결론

‘21세기는 멀티미디어 시대’¹⁴⁰라고 하듯이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멀티미디어는 이제 빼놓을 수 없다. 너무도 익숙한 멀티미디어를 교회 내 사역에 접목을 한다면 훨씬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있다. 물론 교회 내에서 예배, 전도, 봉사, 구제 등 절대적인 사역은 중요하다. 그러나 교회 사역을 더 풍성하고 예배사역을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꼭 필요한 사역으로서 멀티미디어 사역은 이제 필수항목이 되었다.

특히 농촌교회의 사역에서 멀티미디어 사용의 필요성이 높다. 소외된 환경, 고령화, 노동으로 지친 농촌 교인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사역을 위한 멀티미디어 활용을 해야 한다. 설문 결과를 통해서 드러났듯이 그러기에 농촌교회 목회자는 물론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멀티미디어 사역은 교회사역중에 꼭 필요한 사역이라고 하였고. 멀티미디어 사역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의

140) 이만재, 이상선, 「멀티미디어 교과서」, 2.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멀티미디어를 교회 농촌교회 사역에서 활용함에 있어 더 체계적이고 발전적인 방법으로의 시도들이 요구된다. 함께 있는 지역의 교회들과 연합하여 시간과 재정이 들어도 투자하고, 교육받고 실행하여 멀티미디어 사역을 통하여 모든 교회의 예배와 사역들이 더 풍성해지고 감동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제 6 장

결론

한국 농촌교회는 내적으로 교인들의 고령화, 그로 인한 일군 부재, 제자훈련 등 재생산의 어려움, 세분화된 전문사역의 어려움 등이 산재해 있다. 그리고 교회 밖으로는 낙후된 생활환경, 농촌경제의 피폐로 겪게 되는 생존권의 위협, 열악한 교육환경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열악한 환경속에서 점점 노쇠해져가는 농촌교회를 생각한다면 유일한 희망은 예배를 통한 치유와 회복이다. 그래서 목회자는 어떻게 하면 더 감동적이고 은혜롭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그렇기에 멀티미디어 활용을 통해서 교인들이 예배에 더 집중할 수 있고, 감동적이고 역동적인 예배가 가능하다면 교회에서는 멀티미디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농촌에 있는 100명 이하의 중, 소형 교회에서 멀티미디어(영상매체)를 활용함으로써 예배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농촌에 위치한 가신침례교회에서의 16년간의 목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예배에 집중하고 더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할까에 대한 물음으로 이 연구가 시작하게 되었다.

멀티미디어의 활용의 문제는 시대적인 대세가 되어서 농촌에 있는 교회들조차 장비와 시설은 거의 모든 교회가 갖추었다. 그러나 거기에 비해 활용도나 그 효율성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멀티미디어 활용의 기술의 부재, 지속적인 공급이 되지 않는 콘텐츠의 한계, 매주 성실해 준비해야 하는 열정의 부재등을 들수 있다. 그런 결과를 알 수 있도록 4장의 설문결과에서도 목회자들의 경우는 멀티미디어의 예배 활용에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멀티미디어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원하고, 대부분이 시간을 내어서

다양한 멀티미디어 활용기술을 배우기 원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중요한 또하나 예배자인 평신도들의 경우도 멀티미디어 활용이 예배를 드림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는 사실이다.

중요한 본질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고,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는 성경적인 예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다양한 도구와 방법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멀티미디어 영상이라는 좋은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멀티미디어는 예배의 중요한 핵심은 아니다. 멀티미디어를 활용한다고 해서 모든 예배에 충분한 은혜가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 예배의 은혜는 성경적 메시지를 통한 성령님의 역사에 달려 있다. 그러나 이런 성령의 역사도 준비하고 기대하는 이들에게 내려진다.

예배를 위하여 멀티미디어를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먼저는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설교준비를 위해 시간을 드리듯, 예배때 사용할 멀티미디어 영상 활용을 위해 잘 준비되어야 한다. 또한 예배 준비팀을 훈련시켜야 한다.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와 더불어 찬양팀과 음향, 영상팀이 함께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예배를 준비하면 더욱 감동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러기 위해 기본적인 동영상 편집과 PPT사용, 음향기기 사용등 영상과 음향을 위한 멀티미디어 교육이 필요하다.

2.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

앞으로의 바램은 부여군내 188개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중 예배에 관심이 있고 특히 멀티미디어 활용에 대해 교육을 원하는 목회자와 평신도를 대상으로 멀티미디어 목회사역 공유 센터를 통하여 기본적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 혼자 한다면 힘든 일이지만, 현재 조직되어 있는 부여군 기독교연합회내 목회연구부, 그리고 부여군 각 면단위 기독교연합회와의 협력을 통해 일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 멀티미디어 목회사역 공유 센터를 통해 농촌교회 예배의 활성화라는 커다란 목표를 함께 공유하며 함께 사역하여 척박한 농촌교회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도록 하겠다.

APPENDIX A

부록 A

설문지(한글)

(해당 문항에 V 표시 해주세요.)

※ 개인적인 질문

1. 성별? ① 남 ② 여
2. 나이? ① 30~39세 ② 40~49세 ③ 50~59세 ④ 60세 이상
3. 교회 내 직분? ① 담임목사 ② 부교역자 ③ 향존직(장로) ④ 서리집사 ⑤ 성도
4. 당신은 교회사역을 몇 년간 하셨습니까? (목회자인 경우만 답해주세요)
① 5년 이하 ② 6~10년 ③ 11~15년 ④ 16~20년 ⑤ 21년 이상
5. 교회에 다닌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평신도인 경우만 답해주세요)
① 2년 이하 ② 3~5년 ③ 6~10년 ④ 11~15년 ⑤ 16년 이상
6. 출석하는 교회(목회자일 경우: 사역하는 교회)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① 특별시 ② 광역시 ③ 시 지역 ④ 군 지역 ⑤ 기타
7. 출석하는 교단(목회자일 경우: 사역하는 교단)은 어떻게 됩니까?
① 침례교 ② 성결교 ③ 장로교 ④ 감리교 ⑤ 기타

※ 목회자에게 드리는 질문(8~19번)

8. 당신의 현재 교회 사역 속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① 예배 사역 ② 기도사역 ③ 성경공부(제자훈련)
④ 성도들과의 교제 ⑤ 교회 행정 ⑥ 기타 ()
9. 예배 사역에서 멀티미디어 영상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① 예 ② 아니요

10. 당신의 교회에 멀티미디어 영상 장비는 갖추어져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요

11. 멀티미디어 영상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사용 빈도수는 어떻게 됩니까?

- ① 모든 예배 시간마다 ② 주일 낮 예배마다
③ 절기나 특별 예배 시 ④ 기타()

12. 사용하는 멀티미디어 영상의 종류는 어떻게 됩니까? (모두 체크해 주세요)

- ① 설교자의 모습이 나오는 영상 ② 예배나 설교에 관련된 동영상
③ 설교나 순서에 관련된 그림, 도표, 사진 등 ④ 찬양이나 순서가 나오는 PPT
⑤ 찬양 반주기를 활용한 빔 프로젝트 ⑥ 기타()

13. 당신은 예배 중 멀티미디어 영상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14. 있다면 어느 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배의 집중도가 좋아진다. ② 예배 순서가 매끄럽게 진행된다.
③ 설교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④ 설교내용을 기억하는데 도움이 된다.
⑤ 분위기를 편하고 부담 없게 한다. ⑥ 기타()

15. 멀티미디어 영상을 활용하여 예배를 드리는 경우, 과거에 전통적인 예배에 비해 예배의 집중도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 ① 매우 높아졌다. ② 높아진 편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낮아진 편이다. ⑤ 매우 낮아졌다.

16. 멀티미디어 활용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17. 활용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의 종류는 무엇이 있습니까?

- ①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② PPT
③ 포토샵등 그래픽 프로그램 ④ 기타()

18. 만약에 여건이 된다면 멀티미디어 영상 활용에 대한 교육을 받을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19. 만약에 멀티미디어 교육을 받고 싶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①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② PPT 활용
 ③ 포토샵 등 그래픽 프로그램 ④ 영상 및 음향장비 활용
 ⑤ 홈페이지 및 앱 관련 교육

※ 평신도에게 드리는 질문(20~28번)

20. 귀하가 하루에 TV를 시청하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 ① 0~30분 ② 30분~1시간 ③ 2~3시간 ④ 4~5시간 ⑤ 6시간 이상

21. 귀하가 하루에 컴퓨터(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 ① 0~30분 ② 30분~1시간 ③ 2~3시간 ④ 4~5시간 ⑤ 6시간 이상

22. 귀하는 멀티미디어 영상을 활용한 예배가 기존의 예배에 비해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예배가 매우 좋다. ②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예배가 좋은 편이다.
 ③ 별 차이가 없다. ④ 기존의 전통적인 예배가 더 좋다.
 ⑤ 기존의 전통적인 예배가 매우 좋다.

23. 위 질문에서 ①, ②로 대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예배와 설교에 더 집중되기 때문에 ② 경건하기 때문에 ③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④ 기억에 더 많이 남기 때문에 ⑤ 기타 이유 ()

24. 설교 전후에 설교를 돕기 위한 영화나 동영상을 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좋지 않다. ⑤ 매우 좋지 않다.

25. 성경 본문이나 제목 등 설교의 주요 내용들이 영상을 통해서 소개되는 것이 설교의 이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도움이 되었다. ② 도움이 되었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도움이 안되었다. ⑤ 매우 도움이 안되었다.

26. 예배를 돕기 위한 멀티미디어 영상 중 PPT를 활용 예배 순서, 기도 순서, 성경, 찬송가 영상 등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도움이 되었다. ② 도움이 되었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도움이 안되었다. ⑤ 매우 도움이 안되었다.

27. 멀티미디어 영상을 활용한 예배가 당신의 신앙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저 그렇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28. 귀하가 불가피하게 교회를 옮겨야 한다면,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와 전통예배를 드리는 교회 중에 어느 교회에 출석하시겠습니까? (두 교회가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 ①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 ② 전통적 예배를 드리는 교회
③ 모르겠다 ④ 상관 없다

-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BIBLIOGRAPHY

참고자료

1. 단행본 및 번역서

- 권성호. 「교육공학의 탐구」. 서울: 양서원, 2002.
- 김동현. 「멀티미디어」. 서울: 기한재, 2000.
- 김세광. 「예배와 현대문화」.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 김양중. 「예배공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1.
- 김일우. 「농어촌교회여! 다시금 한국교회에 부흥의 주춧돌을 놓자」. 서울: 좋은땅, 2009.
- 김진년. 「크리스찬, 인터넷, 멀티미디어」.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6.
- 김한식. 「용안침례교회 요람」. 전북: 용안침례교회, 2017.
- 박영근. 「영상예배와 멀티미디어 교회교육」. 서울: 성지출판사, 2000.
- 손화철. 「토플러 & 엘릴 현대 기술의 빛과 그림자」. 서울: 김영사, 2006.
- 엄승용. 「성막강해」. 서울: 예찬사, 1994.
- 오정현. 「새천년 사역의 패스 파인더」. 서울: 두란노, 2000.
- 오지원. 「칠산교회 120년사」. 충남: 칠산침례교회, 2016.
- 옥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두란노, 1998.
- 윤두태. 「새 시대 예배갱신과 교회 성장」. 성남: 21C목회연구소, 2002.
- 이만재, 이상선. 「멀티미디어 교과서」. 서울: 안그래픽스, 2005.
- 이명희. 「현대 예배론」. 대전: 침례신학대학교 출판부, 2016.
- 이유정. 「잠자는 예배를 깨워라」. 서울: 예수전도대, 2012.
- 이정현. 「개혁주의 예배학」. 서울: 도서출판 샘터, 2005.
- 임삼규. 「멀티미디어 시대의 예배, 멀티미디어 시대의 설교」. 서울: 도서출판 정금, 2004.

- 임태중. 「예배의 개혁, 멀티미디어 예배」. 서울: 국민일보, 2000.
- 장호준. 「테크니컬 미니스트리 핸드북」. 서울: 미디어북스, 2012.
- 전응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막이다」. 서울: 도서출판 소망, 2009.
- 정일웅. 「기독교 예배학 개론」. 서울: 범지출판사, 2005.
- 정장복. 「예배학 개론」.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3.
- 조기연. 「한국교회와 예배 갱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 조병산. 「용안침례교회 112년사」. 전북: 용안침례교회, 2012.
- 주승중 편. 「영상 세대를 향해 이렇게 설교하라」.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4.
- 최윤식. 「한국교회 미래지도」.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3.
- 최윤식, 최현식. 「한국교회 미래지도2」.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5.
- 홍지환, 「한국교회 미래지도」. 서울: 기독교연합신문사, 2002.
- Boschman, LaMar. 「위십 리바이벌」. 조계광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8.
- Clowney, Edmund P. 「IVP조직신학 시리즈 교회」. 서울: IVP, 1998.
- Goldsmith, Martin. 「성경본문의 맥을 밝혀주는 레위기-신명기」. 서울: 성서유니온, 2000.
- Rognlien, Bob. 「예배는 체험이다」. 김동규 역, 서울: 예수전도단, 2007.
- Saliers, Don E. 「거룩한 예배」. 김운용 역. 서울: WPA, 2010.
- Schultze, Quentin J.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하이테크예배」. 박성창 역. 서울: IVP, 2006.
- Segler, Franklin M. 「예배학 원론」. 정진황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79.
- Sproul, R. C. 「성경적 예배」. 조계광 역. 서울: 지평서원, 2015.
- Tozer, A W. 「이것이 예배이다」. 이용복 역. 서울: 규장, 2006.
- Webber, Robert E. 「예배의 역사와 신학」. 정장복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5.
- Wiersbe, Warren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 조계광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2.
- Wright, N. T. 「툼 라이트 예배를 말하다」. 최현만 역. 서울: 에클레시아북, 2010.

2. 논문

박한수. “현대예배를 위한 멀티미디어 영상예배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연합신학대학원, 2007.

박찬원. “설교에서 영상을 활용한 농촌교회 활성화 방안-동광교회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2010.

원중홍. “그리스도교 예배의 멀티미디어 활용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2009.

3. 정기 간행물

기윤실 편. “2017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발표보고.” 「선교타임즈」, 2017년 4월. 18-9.

이혜정. “통계를 통해서 본 종교인구와 개신교단의 변화.” 「신학과 목회」, 2015년 11월. 376-80.

조기연. “예배 전통의 회복에서 시작되는 신앙 회복.” 「목회와 신학」, 2014. 9월호. 55.

조홍식, “한국사회의 반기독교 문제의 원인과 대책.” 「교회와 신학」, 2008, 가을. 14-5.

주승중, “예배에서 상징의 의미.” 「교육교회」, 2004. 3월, 4.

신성종. “한국교회 본질을 찾아야 한다.” 「월간목회」, 2017년 4월, 58-60.

이근수, ‘현대목회와 멀티미디어 「기독교 교육연구」, 8권 1집 (1997): 143-4.

4. 기타 자료

가스펠서브 편. 「성경문화 배경사전」.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7.

「기독교 교육학사전」.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0

「부여군 2013년 통계연보」. 부여: 부여군청. 2013.

「인구대사전」. 서울: 통계청, 2016.

IRB APPROVAL
IRB 승인

LIBERTY UNIVERSITY.
INSTITUTIONAL REVIEW BOARD

December 13, 2016

In Jun Hwang

IRB Exemption 2699.121316: A Study on Revitalizing Worship in Rural Churches by Utilizing Multimedia with a Focus on the Utilization of Visual Media

Dear In Jun Hwang,

The Liberty University Institutional Review Board has reviewed your appli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Office for Human Research Protections (OHRP) and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regulations and finds your study to be exempt from further IRB review. This means you may begin your research with the data safeguarding methods mentioned in your approved application, and no further IRB oversight is required.

Your study falls under exemption category 46.101(b)(2), which identifies specific situations in which human participants research is exempt from the policy set forth in 45 CFR 46.101(b):

- (2) Research involving the use of educational tests (cognitive, diagnostic, aptitude, achievement), survey procedures, interview procedures or observation of public behavior, unless:
- (i) information obtained is recorded in such a manner that human subjects can be identified, directly or through identifiers linked to the subjects; and
 - (ii) any disclosure of the human subjects' responses outside the research could reasonably place the subjects at risk of criminal or civil liability or be damaging to the subjects' financial standing, employability, or reputation.

Please note that this exemption only applies to your current research application, and any changes to your protocol must be reported to the Liberty IRB for verification of continued exemption status. You may report these changes by submitting a change in protocol form or a new application to the IRB and referencing the above IRB Exemption number.

If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this exemption or need assistance in determining whether possible changes to your protocol would change your exemption status, please email us at irb@liberty.edu.

Sincerely,

G. Michele Baker, MA, CIP
Administrative Chair of Institutional Research
The Graduate School

LIBERTY
UNIVERSITY.
Liberty University | Training Champions for Christ since 1971